

LUXURY

january 2013



패션으로 풀어본 新年運勢
8개 코스메틱 브랜드의 뷰티풀 파트너
2013 Fabric Calendar



contents

160 新年運勢

열두 방위에서 쥐, 양,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소, 원숭이, 닭, 돼지, 개의 형태로 땅과 인간을 수호하는 십이지신. 2013년 계사년을 맞이해 <럭셔리>에서 열두 띠별 패션 토정비결을 준비했다.

217 BEAUTIFUL PARTNER

뷰티 업계에서는 소비자, 전문의, 아티스트, 사회단체와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의미 있는 도전을 한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8개 코스메틱 브랜드 책임자들과 그들의 뷰티 파트너를 공개한다.

272 ANOTHER CAREER

향수, 안경, 가방 등 평소 관심이 많던 아이템을 직접 디자인하거나 수입하며 또 다른 커리어를 시작한 4명의 '도시 남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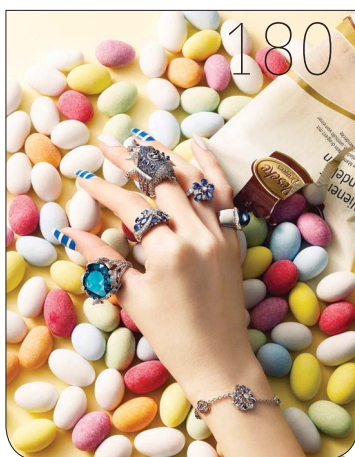
282 FABRIC INSPIRATION

열두 달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재, 컬러, 패턴의 패브릭을 뷰 파인더에 담았다. 4인의 사진가와 4팀의 스타일리스트가 사계절 동안 준비한 2013년의 패브릭 캘린더.



설화수, 자음생 진본유

'코리아뷰티'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설화수의 한방 에센스 오일 '자음생 진본유'. 인삼 중자유가 피부 방어 물질의 분비를 원활히 해 노화의 근본 원인인 트러블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1년에 단 한 번 채취가 가능한 인삼 종자에서 얻을 수 있는 오일의 양이 0.004ml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진귀한 성분이다. 이 밖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산화를 막는 동백유와 피부 표면을 탄탄하게 보호하는 마유를 함유했다. 매일 아침 기초 손질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적당량을 펴평한 후 손바닥으로 살짝 비벼, 얼굴 전체를 감싸듯이 흡수시킨다.



FASHION ICON 078



SWEATER+COAT

따스한 스웨터와 든든한 코트가 만드는 최상의 궁합

TOTE BAG + ACCESSORY

어두운 겨울 옷차림을 산뜻하게 변신시키는 핸드백과 참 장식의 활약!

KNIT MUFFLER + GLOVES

멋진 윈터 룩을 완성하고 싶다면 머플러와 장갑으로 스타일링 감각을 뽐내자

PADDING + BOOTS

추운 날씨에는 어김없이 손이 가는 패딩 아우터와 부츠 매치법

BRACELET + RING

여름보다 추운 겨울에 더욱 각광받는 가죽 팔찌와 '데일리' 링이 만났다

SHOES + SOCKS

남자의 패션 센스는 신발 속 양말에서부터!

fashion



FASHION SCOPE 098

DESIGNER'S D-DAY LOOK

디자이너들의 피날레 의상

2013 WISH LIST

패션 피플 9인이 말하는 새해 소망,
그리고 그 순간을 함께할 영광의 패션 아이템!

FASHION FOR GOODWILL

패션 브랜드가 주도하는 '공익을 위한 소비'의 시대

FASHION CALENDAR

2013년 주목할 만한 7개의 편집 습이 제안하는
커리어 우먼의 일주일 패션 스타일링

PARTY & EVENT 136

CELEBRITY STYLE

셀러브리티에게서 얻는 패션 스타일링 팁

FASHION NEWS 144

1월의 주얼리·워치·패션 브랜드 신제품과 이벤트 소식



COORDINATION 174

WINTER ESSENTIAL, CASHMERE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에 맞춘 캐시미어 연출 제안

JEWELRY 180

CANDY SHOP

달콤한 향기로 가득찬 캔디 컬러 스톤 링



228



BEAUTY ICON 090

LIPSTICK CHOICE

뷰티 브랜드가 선정한 2013년 주력 립스틱

SMOOTH HAND

매끄러운 손을 위한 파우치 필수품, 핸드크림

BEAUTY SCOPE 112

숫자로 말해요!

재미있고 기억하기 쉬운 뷰티 넘버 플레이

THE MINIMAL BEAUTY

10가지 안팎의 최소 성분만을 사용한 저자극 화장품의 모든 것

CAPTURE TOTALE

파리에서 취재한 2013년 '캡춰 토탈'의 모든 것

BRIGHTEN UP

홍콩에서 열린 바비 브라운의 2013년 스프링 컬렉션 스케치

네일, 오래갈 수 있을까?

매니큐어를 오래 지속하는 5가지 방법

BEAUTY NEWS 144

스킨케어·메이크업·헤어 & 보디·향수 신제품과 브랜드 소식들



230

beauty



ITEM FOCUS 228

HAIR COMBINGS

두피와 모발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헤어 브러시 7

BODY & SOUL 230

2013 SKINCARE KEYWORD, COSMECEUTICAL

국내외 주목받는 코스메슈티컬 브랜드와 베스트 셀러를 한자리에 모았다

SPECIAL EDITION 235

THE HISTORY OF WHOO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10주년 기념 에디션

BEAUTY ISSUE 244

설화수, K-뷰티의 중심에 서다

니만마커스가 선택한 실란 팩트 5종의 매력

BEST CHOICE 247

TRUE STORY OF SHEA BUTTER

록시땅의 상징, 시어버터 이야기

CLINIC 335

리즈산부인과·유라인 클리닉



310

LIVING ICON 094

POINT WALLPAPER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패턴의 벽지

LIVING SCOPE 120

2013 CALENDAR
새해를 알리는 디자인 달력

백화점 식품관 전성시대
맛집들을 영입하고, 고급 식재료와 서비스 시스템으로 무장한 백화점 식품관

THINK CLEAN
주방과 세탁실의 필수품 세제, 이제 유기농으로 만난다

HELLO, NEW FACE
2013년 12대의 대표 신차 중 당신의 선택은?

RED CARD ON TABLE
건강을 위협하는 밀가루, 설탕, 우유, 육류의 진실

PLACE 134

MEXICAN FEVER
서울 시내 맛있는 멕시코 레스토랑 4곳

LIVING NEWS 146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리빙·카·트래블 뉴스

living



EVENT 298

SEOUL DESIGN FESTIVAL
2012 서울디자인페스티벌 현장을 취재하다

CUISINE 302

NEW YEAR'S TABLE
건강과 부를 기원하는 각 나라의 새해 아침상

LIQUOR 310

VODKA
무색무취의 매력을 지닌 보드카의 세계

WINE & DINE 320

HONG KONG WINE & DINE FESTIVAL
와인과 음식, 야경으로 취하는 홍콩의 정취

WHEEL 324

ALL NEW RANGE ROVER
항구도시 에사우이라에서 마라케시까지
레인지로버의 4세대 모델 '올 뉴 레인지로버'와 함께했다

302

122





128



266

EDITO	020	내 인생의 '프로젝트'
L-LIST	022	아니슈 카푸어라는 수수께끼의 키워드 그의 조각 작품을 이해하는 7개의 퍼즐 조각
LUXURY IS	052	PYTHON LEATHER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뱀피 액세서리 FASCINATING JEWELRY 환상적인 뱀 모티프 주얼리 ATTRACTION OF MEDUSA 치명적인 매력의 메두사 ART OF SNAKE 예술가들의 가장 절대적이고도 강력한 모티프, 뱀
LUXURY EYE	060	<럭셔리>가 전하는 1월의 패션·뷰티·리빙·컬처 이슈
CULTURE SCOPE	128	우리는 디자인 마켓으로 간다 뉴욕과 베를린, 런던, 파리에서 만난 디자인 마켓 4 세계 일주 항공권이 궁금해 경험자들이 들려주는 주요 세계 일주 항공권의 특징과 장단점 미술품, 제대로 보관하고 계십니까? 보존·수복 전문가에게 배우는 우리 집 미술품 지키는 법! 하이엔드 승마 브랜드, 한국 진출! 최근 2~3년 사이 등장한 승마 명품 브랜드 6

features



EXCLUSIVE	138	20년째 연극 무대에 오르고 있는 배우 오달수 “나에게 연극이란, 집으로 돌아가는 것”
PORTRAIT OF MASTER	142	1500가지의 향을 구분해내는 남자 24년간 수백 가지의 향을 빚어온 아모레퍼시픽 향료연구팀 서형제 팀장
GALLERY	266	빛의 마법사, 건축 조명 디자이너 건축물을 캔버스 삼아 보다 큰 조명의 세계를 보여주는 '대표 선수' 3인 인터뷰
DESIGN IS POWER	278	THE ART OF MUSIC JACKET 당대 최고의 스타 디자이너와 아티스트가 협업한 아트 피스, 음반 재킷의 역사
GETAWAY	316	HOSHINOYA OKINAWA 태평양의 풍광을 축소해놓은 소우주, 호시노야 오키나와

160 FORTUNE TOLD ABOUT THE NEW YEAR

Please have your 'fashion fortune' told about 2013 based on the Tojeongbigyeol New Year horoscope based on twelve horary signs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ey, rooster, dog, and pig) for fun, as has been a tradition in Asia.

217 BEAUTIFUL PARTNER

Those in the beauty business are studying ways to deliver beauty to others through continued experiments and forming partnerships with others, Representatives of eight leading beauty brands, along with their beautiful partners, posed for the camera.

contents



272 ANOTHER CAREER

There are people in the fashion/beauty business sector who have started a new career by engaging in design or import of perfume bottles, glasses or bags. Here are four yuppie urbanites expanding their horizon with earnestness.

282 FABRIC INSPIRATION

Fabric materials keep us warm in winter; lend a feeling of brightness in spring; produce a pleasant feeling of coldness, and; create a chic atmosphere in fall. <LUXURY> introduced fabric materials suited to each season.



LUXURY

EDITORIAL 편집 Tel 2262-7457

편집장·주관 Editor in Chief 김은령 Eunryoung Kim · exlibris@design.co.kr

FASHION 패션

수석기자 Senior Editor 장라윤 Rayoon Jang · rarara@design.co.kr

기자 Editor 김지원 Jiwon Kim · kjw@design.co.kr

류은정 Eunjung Ryu · fv-ej@design.co.kr

인턴 Editorial Assistant 이영우 Youngwoo Lee · ywlee@design.co.kr

BEAUTY 뷰티

수석기자 Senior Editor 심희정 Heejung Shim · apple@design.co.kr

기자 Editor 이주현 Juhyun Lee · zoo@design.co.kr

LIVING 리빙

수석기자 Senior Editor 이영채 Youngchae Lee · breeze0@design.co.kr

기자 Editor 이영지 Youngji Leigh · anne@design.co.kr

FEATURES 피쳐

수석기자 Senior Editor 정성갑 Sungkab Jung · a53119@design.co.kr

기자 Editor 유선애 Seonae Yu · seon@design.co.kr

아트 디렉터 Art Director 손익원 Ikweon Sohn · bart@design.co.kr

디자이너 Designer 이선영 Seonyoung Lee · nikei@design.co.kr

박정화 Jeonghwa Park · pjhdesign@design.co.kr

황준수 Junsu Hwang · boxingky@design.co.kr

객원 디자이너 최덕희 Duckhee Choi

포토 디렉터 Photo Director 이우경 Wookyoung Lee · watt@design.co.kr

포토그래퍼 Photographer 김동오 Dongo Kim

이경욱 Kyungok Lee

이명수 Myeongsu Lee

Tone Studio 디렉터 Director 염정훈 Junghoon Yum

포토그래퍼 Photographer 이주연 Jooyoun Lee · 조정희 Junghee Zo

황인우 Inwoo Hwang · 김도현 Dohyun Kim

교열 Copy Editor 전남희 Namhee Jeon

ADVERTISING 광고 Tel 2262-7401~5 유통관리 Tel 2262-7407

정기구독 Tel 080-007-1200

부국장 Chief Ad Manager 이재윤 Jaeyoun Lee · ryan@design.co.kr

부장 Ad Manager 방승욱 Seunguk Bang · landmark92@design.co.kr

차장 Ad Manager 이재화 Daniel Lee · daniel@design.co.kr

대리 Assistant Ad Manager 유형진 Hyoungjin You · yhj@design.co.kr

허수영 Sooyoung Huh · hsy@design.co.kr

유통 관리 매니저 Distribution Manager 송은우 Eunwoo Song · ewsong@design.co.kr

Deputy Manager 최경식 Kyungsik Choi · kschoi@design.co.kr

AD.Admin 임병훈, 김찬숙

중국사무소 China Office Creators Company

Beijing Xirenmei Culture Co. Ltd, tel 86-010-5978-4889

MARKETING DIVISION 마케팅본부

본부장 Director 이영임 Youngim Lee · yilee@design.co.kr

마케팅팀 Marketing Team 전현웅·박지혜

온라인 마케팅팀 Online Marketing Team 이민형 팀장·조은아·이성욱·허시현·박지현·오미혜·곽상은

FAIR & DESIGN PROMOTION DIVISION 전시사업본부

본부장 Director 신승원 Seungwon Shin · swshin@design.co.kr

전시사업팀 Fair & Design Promotion Team 전승원 팀장·신대우·김은유·노재한·김지영

DIGITAL STRATEGY DIVISION 디지털전략본부

본부장 Director 이재철 Jay Lee · jaylee@design.co.kr

real watches for real people



Oris Artelier Skeleton
Oris Artelier Skeleton Diamonds
www.oris.ch



ORIS
Swiss Made Watches
Since  1904



LUXURY

YOUNGNAM OFFICE 영남지사 Tel 053-762-9994

편집부 Editorial Division

편집디렉터 박미나 Mina Park · mirror1012@hanmail.net

사원 박찬일 Chanil Park · 이정숙 Jungsook Lee

포토그래퍼 고영학 Younghak Ko

광고국 Advertising & Distribution

국장 박준욱 Junuk Park · guild6898@naver.com

실장 박창영 Changyoung Park

유통관리 매니저 정대영 Daeyoung Jung

사원 김형미 Hyungmi Kim · 남영란 Youngran Nam

DESIGNHOUSE INC. 디자인하우스

재무정보실 이사 Financial Director 이종진 Yongjin Lee · ylee@design.co.kr

전산팀 팀장 IT Team 이진형 Jinhyoung Lee · jhlee@design.co.kr

제작팀 팀장 Production Team 이성훈 Seonghoon Lee · monday@design.co.kr

인사실 실장 HR Director 이희수 Heesoo Lee · heesoolee@design.co.kr

자료실 Archive Manager 손수안 Sooang Shon · sooang@design.co.kr

자문위원 Adviser 강무현 · 조현주 · 송치복

법률고문 Legal Counselor 김영철 변호사 · 변리사 (법무법인 KCL)

회계자문 Financial Consultant 삼일회계법인(PWC)

감사 Auditor 장영주 · 이상협

월간지편집본부 Editorial Director 김은령 본부장 Eunyoung Kim · exlibris@design.co.kr

월간지광고본부 Vice President · Ad 이종기 부사장 Jongki Lee · jklee@design.co.kr

President · Publisher 이영혜 대표이사 · 발행인

자매지 월간 디자인 · 월간 행복이가득한 집 · 월간 마이웨딩 · 월간 맘앤양광 · 월간 스타일H · 월간 맨즈헬스

대표전화 02-2275-6151

2013년 1월호 통권 제 143호. 2005년 11월 10일에 등록, 등록번호 서울 중. 라-00210.

2012년 12월 26일 발행(매월 발행). 발행 공금처 : (주)디자인하우스(02-2275-6151)

필름출력 : (주)ING프로세스(02-323-6493) | 인쇄처 : 팩컴코리아(주) Kyongsu Kim (031-428-8503)

용지 : 한솔제지 | 잉크 : 대한잉크

편집 · 광고 문의 : 02-2262-7401(팩스 02-2275-7883)

주소 :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0 태광빌딩

〈력서리〉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실리는 기사와 사진으로 모든 설명한 취재 뒷이야기, 관련 동영상은 디자인하우스

홈페이지 www.design.co.kr에서 확인해 보세요. 디자인하우스 매체들이 발굴한 데코&푸드, 레저&트래블,

패션&뷰티, 헬스&마인드, 맘&베이비, 피플&컬처 정보가 독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디자인하우스에서 발행하는 인쇄 잡지의 기사와 사진, 레이아웃 등은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도

기본 밀바탕이 되는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인쇄 잡지 콘텐츠에 관한 주식회사 디자인하우스의 제반 권리는

웹, 휴대전화, e-북, 기타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서도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동일하게 보호되며,

음성, 동영상 등의 콘텐츠에 관한 주식회사 디자인하우스의 제반 권리도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월간〈력서리〉와 디자인하우스는 UNGC(UN Global Compact)의 회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UNGC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관련 원칙을 지지하고 지킵니다.

〈력서리〉는 대한잉크와 디자인하우스가 공동개발해 최고의 인쇄적성과 친환경적 특징을 자랑하는

력서리 잉크로 인쇄됩니다. 최고의 품질을 원하는 많은 잡지들이 이 잉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슈 카푸어 Anish Kapoor 1954년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났다. 19세인 1973년 영국으로 이주, 혼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첼시 미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는다. 1970년대 말부터 색채 안료 작업으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1990년 베니스 비엔날레 영국관 대표로 참가해 프렐미오 두에밀라 상을, 1991년 영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현대미술상인 터너 상을 수상했다. 2009년에는 생존하는 현대미술가로서는 처음으로 런던 로열 아카데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아니슈 카푸어’라는 수수께끼의 키워드

주변을 빨아들이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는 스테인리스 거울, 20톤의 붉은 왁스를 쓸어내는 철골 해머, C자·S자 형태로 굴곡진 전시장 벽, 속이 텅 빈 57m의 터널... 아니슈 카푸어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공간을 다루며 조각에 관한 고정관념을 부순다. 최근 영국 리슨 갤러리 개인전을 비롯해 3개의 전시를 연이어 연 그는 현재 미술계를 통틀어 가장 유명하고 논쟁적인 작가 중 한 명이다. 2월 8일까지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개인전을 앞두고 그가 한국을 찾았다.

지금껏 본 적 없는 표현 방법, 거대한 규모로 매혹하는 대형 작품 앞에서 관객은 할 말을 잃곤 한다. 그는 “작품이 관객을 불러들여 일대일로 마주하는 고독한 찰나가 있는데 이때야말로 깊이 있는 친밀감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이 과정을 ‘치유’라고도 부른다. 내 작품을 통해 치유를 느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건 작가가 계획한다 해서, 관객에게 직접 설명한다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색을 유도하는 그의 작품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슈 카푸어를 알고 있지만 누군가 그에 대해 묻는다면 머뭇거리게 된다. 그를 이해하기 위한 7개의 퍼즐 조각을 가지고 이번 전시를 찾다면 왜 그의 작품을 두고 명상과 치유의 예술이라 하는지, 동서양의 사상과 문화가 만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등 사진 몇 장으로는 알아챌 수 없는 작품의 깊이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❶

글 유선애 기자 | 사진 제공 및 취재 협조 삼성미술관 리움 www.leeum.org



1 비선형 “몇 년에 걸쳐 건축가 세실 발무과 함께 비선형적 공학을 추구해왔다. 가장 최근 작품인 ‘궤도Orbit’가 그 결과물로, 탑은 당연히 대칭이어야 한다고 여기지만 비대칭의 탑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2 몸 “내 작품을 배, 자궁, 젖꼭지 형상으로 해석하며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나를 여자 작가로 오해하기도 했다. 몸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오브제라는 생각에 몸에 관련한 질문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는 ‘내가 임신했을 때’ 같은 작품은 임신, 즉 ‘pregnant’란 신체뿐만 아니라 지적·정의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작업한 것이다.”

3 강렬한 색 “내 작업의 중심은 색깔이다. 20~30년간 색깔을 중점적으로 고민했다. 작품 ‘나의 붉은 모국’은 20톤의 붉은색 왁스를 사용했는데 시선을 압도하는 강렬한 색은 눈앞의 물체를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4 오목거울 “작품 ‘현기증’ 등 오목거울의 작업이 흥미로운 것은 거울이 그 자체로 머무르지 않고 거울로 가득 찬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며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이끈다는 점이다. 움푹 들어간 면으로 빛을 가득 채우고, 형태를 왜곡하고 위장시킨다.”

5 동아시아 문화 “사람들은 인도 문화에서 내 작품의 근원을 찾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문화 역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년 시절의 일부를 일본에서 보냈는데 미학적인 정원 문화와 하이쿠, 병풍 등이 특히 아름답게 다가왔다.”

6 다양한 재료 “작품 ‘붉은색의 은밀한 부분’을 반영하기는 섬세한 분말 안료를 사용했다. 때로는 형태보다 재료의 성질이 조각의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7 거대한 조각 지름 8m, 무게 15톤의 작품 ‘동굴’처럼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숭고함이라는 아이디어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숭고함이란 경이로운 감정, 거대한 규모에서 오는 감정이란 생각한다.”

luxury is

Fascinating Jewelry

반짝이는 비늘로 덮인 유연한 몸,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 동면과 탈피를 반복하는 뱀의 특성은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다 못해 숭배하게끔 만들었다. 뱀

을 향한 동경은 인간의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폼페이 유적지에서는 뱀을 형상화한 장신구가 여럿 발견되었고, 페루 고대 문명의 발전을 보여주는 시판 왕 무덤에서는 뱀을 조각한 왕관을 쓴 금동 펠리노 신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신비주의가 팽배하던 중세 시대에는 질병을 고치고 악귀를 쫓는 일명 '부적 반지'를 차는 것이 유행했는데, 행운의 상징인 뱀은 단골 소재였다.

뱀 모티프 주얼리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 것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덕분이다. 1830년대 후반 빅토리아 여왕이 약혼 반지에 행운의 의미를 담아 뱀 모티프를 붙인 것을 계기로 귀족 부인들 사이에서 파리를 튼 뱀 모양 목걸이와 반지가 유행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뱀은 팜 파탈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매혹적인 모티프로 여겨져 파인 주얼리 하우스에 영감을 주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불가리다. 60년 전 뱀을 모티프로 '세르펜티' 컬렉션을 선보였고, 이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존재로 남았다. 부쉐론 역시 1878년 '스네이크' 컬렉션을 시작으로 '썬', '보페 당제뢰르', '트리블' 컬렉션 등으로 뱀을 향한 찬사를 이어갔다. 까르띠에는 예술 작품과도 같은 뱀 모티프 주얼리를 만들며 애정을 과시해왔다. 1968년 배우 마리아 펠릭스를 위해 제작한 스네이크 네크리스와 1997년 205캐럿의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만든 네크리스가 대표적. 머리를 치켜세우고 몸을 비트는 움직임까지 실감나게 묘사했다.

글 김지원 기자 | 제품 협조 부쉐론(543-6523), 불가리(2056-0172), 에이치스틴(515-1945), 타사키(3461-5558)



luxury is



Python Leather

2013년은 계사년 흑사띠의 해. 예로부터 뱀은 신성한 영물로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존재로 여겼다. 자라면서 허물을 벗는 모습이 재생과 불사를 상징했고, 예지 능력을 지녔다고 믿어 고대에는 점술에 이용하기도 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 수호신으로 삼아 귀중히 여기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구렁이가 인간에게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고 화재나 낙뢰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이를 죽이면 불행이 찾아온다고 믿기도 했다.

그러나 매서운 눈, 갈라진 혀, 무시무시한 독을 지닌 뱀은 괴물과 마적을 상징하기도 했다. <구약성서>에서는 하와를 속여 금단의 열매를 따 먹게 한 악과 유혹의 아이콘으로 묘사했다. 이렇듯 뱀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며 백사는 길조, 흑사는 흉조로 색상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상징하기도 한다.

패션에서는 뱀피의 신비로운 무늬와 질감 덕분에 독특한 소재로 인기가 높다. 악어, 타조, 도마뱀과 함께 '이그조틱 레더'라 불리며 가방부터 의류,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분야에 널리 쓰인다. 뱀 가죽은 비단뱀인 파이트론 Python과 물뱀인 카룽Karung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질감 방향에 따라 무늬가 각양각색이다. 섬세한 비늘과 자연스러운 광택, 선명한 색상이 특징이며 사람의 지문처럼 비슷한 모양이라도 색상과 무늬가 천차만별이라 희소성을 지닌다. 뱀피는 원피를 강조한 제품을 비롯해 파스텔 톤과 지브러 패턴 등을 입혀 다채로운 색상과 무늬로 점점 더 화려하고 개성 있게 진화하고 있다. 라벨이나 로고 대신 가죽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뱀피 소품으로 자신만의 강렬한 개성을 표현해보면 어떨까?

글 류은정기자 | 사진 황인우

제품 협조 랄프 로렌(6004-0136), 버버리(3485-6536), 질리아니(6905-3752), 펜디(2056-9023), 톰포드(6905-3640)

luxury is



Attraction of Medusa

성경 속에서 선악에 대한 경계가 없는 순수한 여인 이브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선악과를 먹는다. 이처럼 여러 신화와 문학 작품에서 뱀은 누군가를 유혹하거나 치명적인 마력을 지닌 여성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한다. 뱀과 여인의 뿔 수 없는 이미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뱀의 머리카락을 지닌 괴물로 변한 메두사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사로잡을 만큼 뛰어난 미모를 자랑했지만 포세이돈을 짝사랑한 아테나 여신이 둘의 관계를 알아차리면서 메두사의 운명은 뒤틀린다. 질투에 눈이 먼 아테나가 아름다운 메두사를 추한 물골의 괴물로 만든 것. 자신을 목격한 사람이 돌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메두사의 괴로움은 페르세우스가 그녀의 목을 베는 순간에야 비로소 끝난다. 흥미로운 점은 후대의 예술가들이 메두사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사람을 돌로 변하게 만드는 메두사의 마력을 괴물로 변하기 전과 후 모두 동일시한다는 것. 1981년 설립된 패션, 뷰티, 리빙을 아우르는 브랜드 베르사체Versace는 메두사의 치명적인 매력을 브랜드 아이콘으로 정했다.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지닌 처녀 시절의 메두사와 보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 만큼 악마적인 마력을 지닌 괴물 메두사의 양면적인 이미지는 그리스의 전통미와 현대미가 공존하는 브랜드 콘셉트와도 일맥상통한다. 스페인의 마제리트Magerit는 2011년 컬렉션 '신화'를 통해 메두사와 뱀을 형상화한 고급스러운 주얼리로 여심을 사로잡았다. 매년 십이 간지에 맞춰 오브제를 선보이는 프랑스 바카라Baccarat도 스테이크 오브제를 선보인다.

글 이영지기자 | 사진 김동오기자 | 제품 협조 베르사체 홈(3443-8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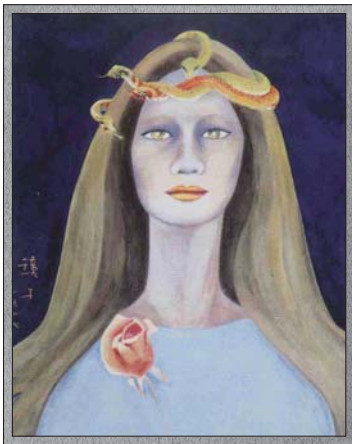
luxury is



Art of Snake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 일부인 '원죄'를 비롯해 독일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의 '아담과 이브', 구스타프 클림트의 '물뱀'에 이르기까지 뱀은 지구상 생물 중 가장 절대적이고도 강력한 모티프로 진화하며 수많은 세월 동안 예술을 풍부하게 만들어왔다.

초창기 16세기 회화 속에 등장한 뱀은 신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었고, 그 죄로 인간에게 고통과 시련을 안긴 '유혹'과 '악' 자체였다. 뱀이 성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부터. 그 변화에는 심리학자, 도상학자, 미술이론가들의 새로운 해석이 큰 역할을 했다. 독일 철학자 하인리히 치머Heinrich Zimmer는 "원을 그리며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모양은 영원불멸의 상징"이라 했고, 신화학자이며 상징학자인 테야르 드 샤르댕Teilhard de Chardin은 "보는 이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뱀은 힘의 상징이자, 가죽을 벗는 특징은 재생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18세기 영국 화가이며 미술이론가 윌리엄 호가스William Hogarth는 그의 책 <미의 분석Analysis of Beauty>에서 "뱀이야말로 지구상 생물 중 가장 아름다운 선을 지녔다"고 말하는 등 뱀이 지닌 형태 자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다.



회화 속 뱀의 움직임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이는 앙리 루소다. 그의 작품 '뱀을 부리는 주술사' 속에서는 달빛 아래 열대림에서 한 여인이 뱀을 목에 두른 채 피리를 분다. 뱀은 여인의 목뿔 아니라 나무에도 걸려 있고 풀밭 위에도 있다. 천경자는 한국 작가 중 가장 뱀에 몰두한 화가다. 뱀 수십 마리가 엉켜 있는 '생태'는 그녀를 세상에 알린 작품. 한국전쟁 중 가난한 형편에 병든 아버지와 여동생은 물론 홀로 키워야 하는 두 아이까지 책임져야 했던 그녀에게 뱀은 일종의 '해방구'였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작품 세계가 바뀔 때마다 뱀을 그렸는데 머리에 화관처럼 네 마리의 꽃뱀을 쓰고 가슴에 장미를 단 여인이 등장하는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는 그녀가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화사畫蛇로 손꼽힌다.

글 유선애 기자 | 사진 서울시립미술관sema.seoul.go.kr

luxury eye

계사년癸巳年. 풍요와 불사의 상징인 뱀의 기운을 이어받아 풍성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시작을 <럭셔리>가 준비한 알차고
다양한 새해맞이 소식들과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요? 글 이영채(LYC), 정성갑(JSK),
심희정(SHJ), 장라윤(JRY), 이영지(LYJ), 이주현(LJH), 류은정(REJ), 유선애(YSA), 김지원(KJW), 이영우(LYW) 기자



겨울이 따뜻해지는 '음식' 책 두 권



<보통날의 와인> '와인, 일상에서
편하게 즐기세요'를 주제로
먹다 남은 와인 처리법,
고기 요리에 와인을 매치해

마시는 방법, 화이트 와인의 매력, 와인 장터의
허와 실, 와인을 두 배 가치 있게 즐기는 법 등에
관해 알려준다. 이탈리아에서 와인과 요리를
공부하고 돌아와 요리사와 요리 연구가 겸
푸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박찬일 씨가 저자로,
쉽고 재미있는 와인 책으로 화제가 된
<와인 스캔들>의 개정판이다. 박찬일, 나무수



<이하연의 발효음식>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품을 들여
각종 장류와 김치를 담그는
김치 명인이자, 유기농 한정식

집으로 유명한 역삼동 한식당 '봉우리'의
대표 이하연 씨가 소개하는 발효 음식 이야기.
소금과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를 주요 키워드로
각각의 재료를 활용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를 자세히 소개한다. 장류와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법, 그 안에 담긴 발효의 미학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모든 음식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자 친절한 요리책이라 주방에 두고 활용하면
무척 든든할 듯. 행복이 가득한 집. (JSK)

2013 Brand New Cream

짜각짜각. 피부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싶다면 레비센탈리스, 난초, 호밀에 이르는 진귀한 성분을
활용한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새해맞이 피부 관리에 힘써보기를!

디올을 대표하는 안티에이징 라인 '캡처 토탈'의 오랜 팬이라면 2013년형 '멀티-퍼펙션 크림'에
주목할 것. 푸시 버튼형이라 한 손으로 여단을 수 있는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문의 3438-9631
겔랑은 2006년 출시 이래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오키드 익셉셔널 컴플리트 케어 크림'의 신제품을
출시한다. '골드 오키드 익셉셔널 컴플리트 케어 3세대 크림'의 핵심 성분 오키드 임페리얼 분자추출물
'TOME'은 수십 종의 난초 꽃을 물어보고 따져보고 알아보고 들여다본 결과물. 문의 3438-9627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크레마 네라 엑스트레마 슈프림 리바이빙 크림'은 독특한 '밤인어젤'
텍스처로 이루어진다. 남다른 재생 효과는 '기적의 식물' 레비센탈리스 덕분. 문의 3497-9652 (LJH)





eye

2013년 새해 첫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 두 클럽을 찾는 것은 어떨까. 지난 11월 문을 연 청담동 '리슨'은 CDJ 200, DJM 2000 등 최고급 DJ 장비를 갖춘, 이름 그대로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운지 클럽이다. 일본 DJ 다무라 도모키, 테크비츠1200 등 세계적인 DJ를 초청해 파티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 문의 540-3386

부티크 갤러리 아트사이드의 전시 오프닝을 진행하는 등 음악을 기반으로 한 문화 아티스트이자 클럽인 논현동 '부티크'. 10명 수용 가능한 4개의 개별 룸이 있어 소규모 파티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문의 070-4226-2543 (YSA)

Limited Pleasure

'한정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이들을 위해 특별한 에디션을 공개한다.

PIERRE HARDY BY 10 CORSO COMO 지드래곤과 김민희를 비롯한 패셔니스트들이 사랑하는 피에르 하디의 열한번째 리미티드 에디션 '큐비코라마'가 국내에 상륙했다.

국내에서는 10 코르소 코모 서울에서만 판매하며 남성용 컬렉션으로 구성된다. 문의 3018-1010

COURONNE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의 리뉴얼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83.7 에디션' 선글라스를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이탈리아에서 수작업으로 만든 아세테이트 소재를 사용해 가벼우며 클래식한 복고풍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문의 3677-8200

LONGCHAMP 매 시즌 '르 폴리아주' 백의 환골탈태 버전을 선보여온 제러미 스콧이 이번 S/S 시즌에는 바로크 무드를 담은 '레오파드 폴라리시' 백을 디자인했다. 문의 543-7685

KOLON SPORT 브랜드 탄생 40주년을 맞아 성대한 잔치를 연다. 리미티드 에디션 2가지와 커머셜 에디션 2가지로 구성되며, 영화감독 박찬욱과 아티스트 박찬경이 공동 제작한 첫 필름 프로젝트 <청출어람>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1588-7667

JLC 장미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랑데부 와일드 로즈' 워치를 새롭게 출시한다. 다채로운 빛을 발하는 자개를 사용했고 베젤과 리그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하다.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부티크에서 만나보자. 문의 756-0300 (REJ)



Infusion Therapy

크림의 흡수를 높이는 부스팅 에센스가 '뷰티 대세'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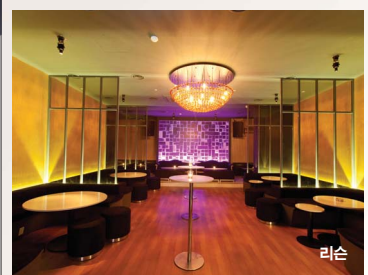
행한눈이어, 안녕
다크서클 완화에 도움을 주는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아이세럼 인퓨전'.
MATCH WITH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아이크림'. 문의 3440-2772



굿바이, 미스 홍당무
균일한 피부 톤을 위한 첫걸음
프레쉬 '크렘 앙시엔스 인퓨전'.
MATCH WITH '크렘 앙시엔스'.
문의 080-822-9500



나만의 피부 가뭄 해결사
수분 보유율을 극대화하는 라 메르
'하이드레이팅 인퓨전'.
MATCH WITH '크렘 드 라 메르'.
문의 3440-2653 (LJH)





eye

Editor's Choice for Winter Travel

〈럭셔리〉에디터가 추천한 유용한 겨울 여행 아이템.

- 1 루이 비통의 보스턴백은 넉넉한 크기에 어깨끈이 있어 여행에 안성맞춤이다. (LYW)
- 2 소니 알파 NEX-F3는 180° 회전 가능한 LCD 모니터가 있어 '셀카'에 강하다. 혼자만의 여행에 유용하다. (YSA)
- 3 섬세한 맛과 부드러운 기포로 여행지에서 처음 만나는 이들과 부담 없이 나눠 마실 수 있는 볼랭저의 '라 그랑 아네 샴페인. 오랜 시간 지속되는 기포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행 기분도 고조될 것! (LYJ)
- 4, 5 겨울 여행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온! 양털을 덧댄 캐나다 구스의 모자와 검은색 퍼를 장식한 DVF의 귀마개는 얼굴 옆면까지 감싸준다. (LYW)
- 6 겨울 일일 많은 여행에서 편안한 신발만큼 중요한 준비물도 없다. 마크 by 마크 제이콥스 by 라플레시용의 웨지힐 부츠로 스타일까지 챙기도록. (KJW)
- 7 얇고 가벼운데다 4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애플의 '아이팟 터치'. 카메라에 파노라마 기능을 추가했다. (LYC)
- 8 이륙 1시간 전 사설 '오뎅드 헤어 미스트'를 머리에 분사한 다음 손끝으로 털어보자. 머리를 감은 듯 상쾌할 것이다. (LJH)

사진 김동욱기자



향후의 라이프스타일을 예측해 인테리어와 디자인을 제안하는 LG 하우스의 트렌드 세미나. 다가오는 2013년과 2014년의 키워드로 자신을 위해 최적화된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코드 빌더(chord builder)'를 꼽았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갖고 싶어 하는 '크리에이티브 브레이커', 맞춤형 소비가 절실한 '밸류 피커'를 위해 LG 하우스가 제안하는 넥스트 트렌드는 이렇다. 소형 주택과 하이브리드 하우스, 모듈러 시스템을 극대화한 실용적인 인테리어, 모던보다 아날로그를 지향하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레트로 프리미엄 인테리어. 그밖에 물의 깨끗함과 유동성에서 영감을 얻은 에코 블루 인테리어 등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인테리어의 방향을 제안했다. 문의 080-005-4000 (LYJ)

Watch & Jewelry Now



TIFFANY & CO. 브랜드 창립 175주년을 기념해 희귀한 보석으로 만든 '컬러 오브 윈터' 컬렉션을 발표했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절대적인 완벽함, 화려한 유색 보석 역시 최고만을 선별해온 티파니만의 독창성과 장인 정신 등 티파니의 전통과 유산을 담은 컬렉션이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했다. 문의 547-9488



DIOR 지난 11월 홍콩에 디올의 첫 파인 주얼리 & 타임피스 부티크가 오픈했다. 이를 기념해 파리 본사에서는 '디올 워치 랑방 플리세'를 제작해 한정했다. 또한 프레셔스 스톤을 세팅한 '마이 디올'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 & 링과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을 이숍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여 주얼리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문의 3445-8565



ROLEX '롤렉스 멘토 & 프로테제 아트 이니셔티브'를 통해 건축가 세지마 가즈오의 멘토링을 받을 신인으로 자오 양을 선정했다. 자오 양은 세지마 가즈오의 일본 쓰나미 피해자를 위한 임시 주거 공간 프로젝트 '홈-포-울'에 참여할 예정. 롤렉스는 2002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예술인과 세계적 거장을 스승과 제자로 연결해 왔다. 문의 2112-1251 (JRY)

H.STERN 지난 11월 29일 도산공원에 위치한 에이치스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한국 공식 론칭을 기념하는 그랜드 오픈 이벤트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조민수, 김성령, 남규리, 이윤미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모델 허박 등 많은 VIP와 셀러브리티들이 참석해 '성공한 여자들의 별'이라는 에이치스틴의 닉네임이 적절한 줄 증명했다. 문의 3443-5940



패딩 아우터 완전 정복 올겨울을 책임질 패딩 아우터 스타일링을 참고하자.



MIX MATCH 알록달록하고 반짝이는 촌스러운 패딩은 이제 안녕! 이번 시즌에는 울, 니트, 트위드, 가죽 등 다양한 겨울 소재를 믹스 매치한 패딩 아우터가 대세다. 톤 다운된 컬러의 패딩 재킷에는 울 소재의 머플러나 화려한 프린트의 클러치백을 매치하자.



PATTERN PLAY 패턴의 위력은 패딩 점퍼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다. 트렌디하게 소화하고 싶다면 비슷한 패턴의 이너웨어를 선택하자. 궁합이 잘 맞는 액세서리는 스포티한 가죽 백팩과 추위를 물리칠 울 소재 헌팅캡!



FUR-TRIMMING 패딩 소재 특유의 가벼움을 고급스럽게 승화시킨 퍼 장식 패딩 코트. 양털 트림링 롱부츠를 매치하면 세미 캐주얼 룩에 잘 어울리고, 시크한 블랙 앵클부츠를 신으면 정장 차림에도 두루 잘 어울린다. (REJ)



WARM & COZY SPOT

집 안을 좀 더 아늑하게 꾸미고 싶다면 눈여겨볼 만한 리빙 매장 두 곳. 도산공원 부근의 '에버뉴 636'은 14개 브랜드의 셀렉트숍. 스칸디나비아의 자연을 실사로 프린트한 '바이 노드'의 소품, '페브릭 코펜하겐'의 침구와 블랭킷, '엔트레디션'의 테이블과 램프, 'SCP'의 소파 등을 만날 수 있다. 문의 517-7370
한남동의 '김선미 그릇 & 카페 리유'에서는 도예가 김선미의 손맛 느껴지는 그릇을 보고, 그 그릇에 담은 차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다. 문의 749-1940(김선미 그릇), 749-1943(카페 리유) (LYC)

Winter Spa Program 3 매서운 겨울 추위로 경직된 근육과 찌뿌드드한 피로를 날려 줄 보디트리트먼트3



W 호텔 어웨이 스파, '순다리 스파 컬렉션' 순다리는 인도 의 아이유르베다 사상에 기초한 다양한 식물성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로 몸과 정신의 균형을 유지해 내면의 평온과 외면의 생기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겨울부터는 W 호텔 어웨이 스파에서 이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관리 전에 테라피스트의 안내에 따라 '도샤Doshā' 테스트를 거치는데 여러 문항을 통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까지 진단받을 수 있다. 이 테스트를 바탕으로 피부 문제점 개선뿐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상태와 내면의 스트레스까지 복합적으로 다스려 진정한 이너뷰티를 도모한다. 문의 2022-0450



아모레퍼시픽 스파 '미스틱 뱀부 포레스트 힐링' 압구정 현대백화점 본점 별관 뷰티파크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스파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인테리어로 갤러리에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미스틱 뱀부 스톤 마사지' 역시 자연 소재를 이용한 프로그램. 브랜드의 시그니처 성분인 녹차를 이용한 족욕이 끝난 후, 따뜻한 대나무와 돌을 이용해 복부를 각 20분간 관리한다. 아랫배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동안 얼굴에는 안색 개선을 위한 화이트닝 트리트먼트가 시작된다. 관리에 사용하는 화이트닝 마스크는 부드러운 목련 껍질이 주성분으로 고농축 미백 효능이 있어 피부를 환하고 투명하게 만든다. 문의 512-3067



엘레미스 힐링 스파 '보디스컬프팅 앤 콜론 테라피' 울통불통하게 나타나는 몸의 울혈은 혈액순환 장애, 림프 정체와 원활하지 않은 소화 시스템에서 야기된다. 그대로 두면 셀룰라이트와 복부 팽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청담동에 위치한 엘레미스 힐링 스파의 추천 프로그램은 '보디스컬프팅 앤 콜론 테라피'. 먼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펜넬 앤 버치 필 오브 보디 마스크'로 스크럽을 한 후,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의 집중 마사지를 통해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만든다.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복부로 집중된 장 마사지. 신진대사가 활성화돼 몸이 한층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문의 558-2010 (SHJ)

eye



설립 초기부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선보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성악가 신영옥을 초청해 자선 음악회를 열었다. 수익금 전액을 사단법인 GIC(Global Image Care)를 통해 아이티 어린이들의 심장병 수술 비용으로 기부한 의미 있는 행사. 태국 수재민 돕기 바자회 등을 진행한 반얀트리 서울 측은 올해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JSK)

미리 만나는 봄

본격적인 S/S 시즌이 시작되기에 앞서 각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따끈따끈한 크루즈 컬렉션으로 봄과 여름의 정취를 미리 느껴보자. 보기만 해도 벌써 봄이 온 듯 기분이 싱그러워질 테니! (KJW)



- 1 여유로운 세트세트 룩을 완성하는 라피아 해트는 디올(512-3232)
- 2 넉넉한 사이즈의 데님 소재 쇼퍼 백은 루이 비통(3441-6464)
- 3 풋사과처럼 상큼한 컬러가 돋보이는 호보 백은 보테가 베네타(3438-7682)
- 4 투명한 굽이 독특한 스트랩 슈즈는 펜디(2056-9022)
- 5 컬러 프레임 선글라스는 디올(512-3232)

사진 김동욱기자

Korean & French Beauty

한국과 프랑스, 닮은 듯 서로 다른 전통문화를 지닌 뷰티 숨 두 곳.



KOREA 설화수, 래핑 스토어 전통 원료로 피부를 다스리는 코리안 뷰티가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인 한방 뷰티 브랜드 설화수는 해외 진출한 국가의 랜드마크와 가장 사랑받는 제품을 그린 일러스트를 담은 팝업 북 <The Journey to the Holistic Beauty>를 만들었다. 또한 현대백화점 신촌점, 무역센터점과 롯데백화점 잠실점 매장을 일러스트로 꾸민 '래핑 스토어'로 단장할 예정이다. 피부 속 건조한 기운을 다스려 윤기와 혈색을 되찾아주는 '윤조에센스'는 국내뿐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도 큰 인기라고. 문의 080-023-5454

FRANCE 기노, 플레그십 살롱 1963년 론칭한 프랑스 에스테틱 전문 화장품 브랜드 기노Guinot. 파리 최고의 호텔, 포시즌스 조르주 생크Four Seasons George V의 살롱에서 선보인 기노 트리트먼트로 명성을 얻었다. 강남구 논현동에 문을 연 플레그십 살롱에서는 프랑스 기노 살롱과 동일한 트리트먼트를 즐길 수 있으니, 지친 피부에 '힐링'을 선사하고 싶다면 방문해볼 것. 홈 케어를 즐길 수 있는 재생 크림 '롱그 비 셀룰레르'도 눈여겨보자.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도와 활력을 되찾아준다. 문의 514-6923 (LYW)



플라자호텔

하얏트 리젠시 인천

HOTEL WONDERLAND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 호텔에서의 근사한 하룻밤.

PURPLE IN YOUR HEART 2월 28일까지 플라자호텔을 방문하면 500개 한정 수량으로 준비한 테디베어를 만날 수 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을 한국메세나협회에 기부해 소의 아동을 위한 예술 교육 서비스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패키지는 딜럭스룸 1박과 테디베어 선물을 포함한다. 문의 310-7710

ONE WINTER NIGHT 하얏트 리젠시 인천이 일주일 전에 호텔을 예약하는 고객을 위해 객실 요금 10% 할인 서비스를 준비했다. 일반 객실은 물론 클럽 객실에도 적용되는데, 클럽 객실을 이용할 경우 11층에 위치한 클럽 라운지에서 조식과 이브닝 칵테일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문의 032-745-1234 (LYJ)



eye

Beauty Olympic

다국적 뷰티 브랜드의 신제품 경연대회, 그 치열한 접전 속으로!

Venice in Seoul

베니스 비엔날레 8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영화 축제, 2012 베니스 인 서울. 지난 80년간 베니스 영화제를 통해 소개된 세계 각국의 숨은 걸작과 디지털로 새롭게 복원한 이탈리아 고전, 동시대 이탈리아 최신작까지 3개 섹션에 걸쳐 총 21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스트롬볼리>(1950년작),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의 <대지우리>(1969년작) 등 놓치지 아까운 명작이 많다. 지난 12월 12일 시작한 이번 영화제는 1월 6일까지 낙원상가 4층에 있는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린다. 상영 시간표는 홈페이지(www.cinematheque.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료는 6000원이며 맥스무비 등을 통해 인터넷 예매도 할 수 있다. (JSK)

FENDI'S FUNCTIONAL BENCHES

펜디는 매년 세계적 디자인 페어인 디자인 마이애미를 통해 재능 있는 젊은 아티스트들을 지원하면서 장인 정신과 실험 정신이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012 디자인 마이애미에서는 벨기에 출신 디자이너 마르텐 드 쉴라에 Maarten de Ceulaer와 함께 '변형Transformations'을 주제로 한 작업을 선보였다. 이는 펜디가 1980년대부터 각종 액세서리와 핸드백 및 여행용 제품에 도입한 그래픽적인 스트라이프 패턴 '페퀸Pequin' 모티프에서 영감을 받은 것. 마르텐은 2D 표현법을 3D 설치법으로 변형해 래커 처리한 나무 보드와 핸드메이드 가죽판을 조합해 소재와 컬러가 대조되는 의자를 만들었다. 이 작품은 모더니즘 초기 디자인 작업을 연상시키며 하나의 살아 있는 패턴으로 재창조됐다는 평을 받았다. (JRY)



LANCÔME

국적 프랑스

예선 장소 삼성동 파크하얏트 서울

종목 안티에이징

선수명 압슬뤼 올레오 세럼

특징 오일에서 세럼으로

마무리되는 특별한 텍스처

문의 3497-9829



PHILOSOPHY

국적 미국

예선 장소 신사동 라까사 호텔

종목 스킨케어

선수명 더마이크로딜리버리

트리플-에시드 브라이팅 필 패드

특징 딱 30초면 충분!

코튼 패드 타입의 초스피드 각질 제거제

문의 080-850-0708



IOPE

국적 한국

예선 장소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종목 스킨케어

선수명 바이오 액티베이터

플랜트 스템셀 액티브

특징 올인원 멀티에센스

문의 080-023-5454



CAUDALIE

국적 프랑스

예선 장소 도산공원 고렐라인더키친

종목 안티에이징

선수명 빈 엑스퍼트 아이 앤 립 세럼

특징 눈가와 입가 주름을 한 번에 관리

문의 www.caudalie.co.kr



CATRICE

국적 독일

예선 장소 논현동 파티오9

종목 메이크업

선수명 얼티메이트 모이스처

프레쉬 스킨 메이크업

특징 수분 크림 못지않은 촉촉함

문의 323-0356 (LJH)

Happy Anniversary! 2013년, 특별한 해를 맞이한 뷰티 브랜드와 대표 제품들.



10th

국내 론칭 10주년을 맞이한 DHC. 진한 메이크업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하는 '딥 클렌징 오일'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10주년을 맞아 DHC는 디즈니와 콜라베이션해 '미니'와 '데이지'를 그려 넣은 디자인을 출시했다. 화장대에 유쾌한 분위기를 더하는 '딥 클렌징 오일'은 2013년 1월 한 달간 한정 판매한다. 디즈니 마니아를 위한 선물로도 제격! 문의 080-757-5333



25th

오르비스는 대표적인 제품 '클렌징 리퀴드'에 예술적인 감각을 더한 새로운 모습을 공개했다. 25주년을 기념해 페이퍼 커팅 아티스트 아오야마 히나와 함께 '커팅 아트 패키지'를 만든 것! 종이와 가위만으로 요정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을 병에 새겼다. 한정 수량 판매하니 구매를 원한다면 서두르자. 문의 080-301-5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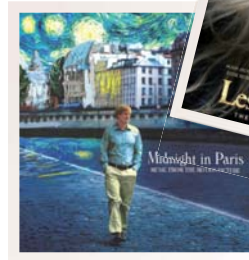
50th

메리케이의 새 향수 '댄스 투 라이프'는 우아한 꽃향기로 모든 연령대에 잘 어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한 특별한 향수로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하며 메리케이의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 춤추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한 향수 병이 우아하다. 미세한 필입자를 함유한 보디로션과 함께 구성한 세트 버전 또한 놓치지 말 것. 문의 080-500-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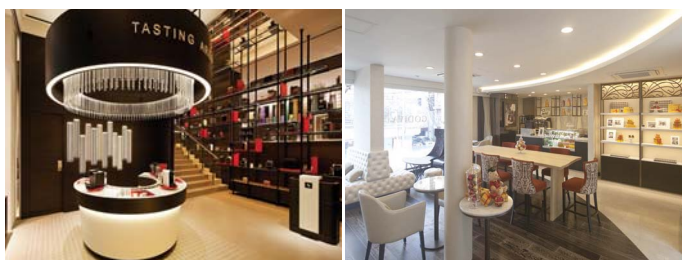


50th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헤어 드레싱 기업 토니앤가이. 영국 토니앤가이 인터내셔널 디렉터가 한국을 방문해 2013년의 새로운 헤어 트렌드 '아틀리에'를 선보였다. 비대칭 구조에 독특한 컬러가 신비감을 강조하는 '브로디' 등 새로운 트렌드가 공명하다면 토니앤가이의 헤어스타일을 눈여겨보자. 문의 3443-2024 (LYW)



〈레미제라블〉 최근 개봉과 동시에 최고의 뮤지컬 영화란 찬사를 받고 있는 〈레미제라블〉의 OST. 영화 촬영 현장에서 라이브로 녹음을 해 생생함이 남다르다. 'I Dreamed a Dream', 'Bring Him Home', 'One Day More', 'On My Own' 등이 주요 타이틀. 〈미드나잇 인 파리〉 몽환적인 느낌의 영화를 본 후 OST를 찾아 인터넷 검색에 열을 올린 이라면 특히 반가울 앨범. 지난 11월 말, DVD 출시와 함께 국내에 정식 발매됐다. 시드니 베첷 Sidney Bechet의 'Si Tu Vois Ma Mere' 등 우디 앨런이 고른 음악이 한국 한 곡 모두 감탄스럽다. (JSK)



SWEET TODAY

커피 한잔과 초콜릿의 조화를 즐기는 당신을 위한 뉴 플래그십 리스트. **NESPRESSO** 파리, 뉴욕, 마이애미, 런던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청담동에 문을 연 네스프레소 플래그십 스토어. 머신과 캡슐 구매뿐 아니라 16가지 그랑 크뤼 커피를 시음할 수 있다. 2층에는 최상급 원두와 아로마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으며, 커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취향에 맞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커피 체험 센터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80-734-1111 **GODIVA** 벨기에산 최고급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가 신사동 가로수길에 스토어, 카페와 바를 결합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최상급 카카오 원두, 프로방스와 그리스산 아몬드, 피에몬테의 개암 등을 사용하며, 특유의 초콜릿 코팅법과 정교한 디자인이 특징. 문의 517-3979 (LYC)

You Choose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3대의 신차를 소개한다.

혼다 9세대 신형 어코드 최고급 사양인 '3.5 EX-L'을 비롯해 '2.4 EX-L', '2.4 EX' 모두 조용하고 안락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ANC 시스템을 적용했다. 언덕길 밀림 방지, 급제동 경보 시스템, 주차 보조 센서, 레인 워치 등을 갖췄다.



포드 2013년형 올-뉴 퓨전 고효율의 에코부스트 엔진을 탑재하고, 레이저 컷 헤드램프, 라이트 캐칭 디자인 라인의 역동적인 외관이 특징.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등을 채택했다. (LYC) ★

롤스로이스 고스트 아르데코 양옆의 아르데코 코치 라인과 반짝이는 환희의 여신상이 조화를 이뤘다. 실내의 캐시미어와 가죽, 자개와 은으로 장식한 베니어판은 아르데코 시대의 장식장을 연상하게 한다.





sweater + coat

따스한 스웨터와 든든한 코트가 만든 최상의 궁합.

진행 김지원 기자 | 사진 홍성은 | 어시스턴트 문수진

1 A라인 니트 원피스는 케이프 코트를 소녀다운 분위기로 변신시키는 일등 공신. 원피스는 모스키노 칩앤시크(3477-7701). 녹색 코트는 겐조(3447-7701) 2 심플한 테일러드 코트에는 화려한 패턴의 톱을 매치해 재미를 줄 것. 기하학 패턴이 독특한 니트 톱은 소니아 리키엘(3447-7701). 머스터드 컬러 코트는 구호(540-4723) 3 남성적인 실루엣의 코트 안에는 경쾌한 체크 패턴 니트 웨어를 입어 무게감을 덜자. 벽돌색 코트는 소니아 리키엘(3447-7701). 커다란 체크 패턴 니트 톱은 클로에(3444-1708) 4 코운 실루엣 코트와 넉넉한 니트 원피스는 환상적인 조합을 자랑한다. 크게 확대한 하운드 투스 체크 문양이 재미있는 니트 원피스는 럭키 슈에프(3446-7725). 오픈해서 입으면 회색 안감이 보여서 더 멋스러운 하늘색 코트는 타임(540-4723) 5 투톤 컬러 코트에는 같은 컬러 배색의 이너웨어를 선택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자. 검정 가죽으로 포인트를 준 코트는 마쥬(3444-1708). 성글게 짠 스트라이프 패턴 니트 톱은 하니와이(3444-1730)





tote bag + accessory

어두운 겨울 옷차림을 산뜻하게 변신시키는 핸드백과 참 장식의 활약!

진행 류은정 기자 | 사진 홍성은 | 어시스턴트 문수진

1 컬러 블로킹이 돋보이는 '뚜주르' 백, 펜디(2056-9023) 털 장식. 베네타이즈 by 주느세콰(515-3151) 골드 참 장식. 랄프로렌(6004-0133) 곰돌이 모양 키 링. 칸펜(3445-6427) 세모난 키 링. 진도모피(3445-6427) 2 그린 토트백과 웡 모양 참 장식 모두 MCM(3447-7701) 3 간결한 사각 토트백. 발렉스트라(3444-1730) 레드 컬러 키 링. 버버리(3485-6536) 4 페일 로즈 컬러의 '디올리시모' 백과 프티 스카프 모두 디올(513-3232) 프린지 참 장식. 버버리(3485-6536) 하트 모양 키 링. 제이에스티나(3444-1730) 5 구조적인 디자인의 핸드백. 발리(542-0385) 동전 자갈 키 링. 아이그너(3446-7725) 6 페트리밍 백 모두 토즈(3448-8105) 술 장식 키 링. 톰포드(6905-3640) 곰돌이 참 장식. 칸펜(3445-6427) 7 퀼팅 토트백. 버버리(3485-6536) 가방 모양 참 장식. MCM(3447-7701) 옐로 컬러 키 링. 보테가 베네타(3438-6100) 8 클래식한 핸드백. 루이비통(3432-1854) 고양이 참 장식. 제이에스티나(3444-1730)





knit muffler+glove

멋진 윈터 룩을 완성하고 싶다면 머플러와 장갑으로 스타일링 감각을 뽐내자.

진행 류은정 기자 | 사진 홍성운 | 어시스턴트 문수진

1 체크 패턴 니트 소재를 패치워크한 가죽 장갑. 멀버리(3447-7701) 도트 패턴 머플러. 질 by 질 스튜디오(515-9895) 2 하운드투스 체크 패턴 목도리. 자니 헤잇 재즈(545-1260) 가죽의 디테일이 고급스러운 장갑. 보테가 베네타(3438-6100) 3 캐시미어에 미세한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을 장식해 은은한 매력을 더했다. 블랙(6905-3740) 가죽과 니트 소재를 겹쳐 보온성을 높인 장갑. 빈폴 액세서리(3446-7725) 4 줄무늬 패턴 머플러는 피코트와 점퍼에 두루 잘 어울린다. 세인트 제임스 by 플랫폼 플레이스(3446-7725) 가죽 리본 장식 장갑. 토리버치(3444-1730) 5 기하학적인 프린트의 목도리. 자니 헤잇 재즈(545-1260) 그레이 컬러 장갑. 폴레트 말루프(582-7495) 6 술 장식이 달린 화이트 컬러 패턴 머플러. 타미 힐퍼거(546-7764) 은은한 버건디 컬러 장갑. 토리버치(3444-1730) 7 알록달록한 색상 배합이 재미있는 목도리. 소니아 리키엘(3446-7701) 다홍색 가죽과 그레이 컬러 니트를 매치한 장갑. 블랙(6905-3740)





shoes + socks

남자의 패션 센스를 한눈에 가능하게 만드는 신발 속 양말.

진행 김지원 기자 | 사진 황인우, 홍성은 | 어시스턴트 문수진

1 푸른색과 회색의 완벽한 궁합. 로퍼 발리(542-0385). 양말 유니클로(3442-3012)
 2 발등이 보이는 슈즈에는 과감한 패턴 양말을 신을 것. 슈즈 꾸찌(3444-3169). 양말 매그앤매그(3446-7725) 3 대비되는 색을 활용하자. 버건디 컬러 슈즈 알프레드서전트 by 라피규라(518-8984). 양말 삭스탑(521-4141) 4 아가일 패턴 양말로 모범생 분위기를 연출했다. 로퍼 토츠(3448-8105), 양말 S.T 듀폰(2106-3592) 5 클래식한 슈즈와 캐주얼한 양말의 매치. 슈즈 알프레드서전트 by 라피규라(518-8984). 양말 타미 힐피거(546-7764) 6 줄무늬 양말은 어떤 신발도 잘 어울린다. 슈즈 디올(513-3232). 양말 에이세컨즈(3447-7701) 7 옥스퍼드화와 노르딕 문양 양말로 완성한 겨울 패션. 슈즈 보스 오렌지(543-7685). 양말 에이글(540-4723) 8 슈즈와 양말의 톤온톤 스타일링. 슈즈 토츠(3448-8105). 양말 삭스탑(521-4141) 9 비비드 컬러 양말로 트렌디한 느낌을 살렸다. 슈즈 살바토레 페라기오(2140-9642). 양말 삭스탑(521-4141)





lipstick choice

2013년, 브랜드를 대표할 주력 립스틱은 바로 이것!

진행 이주현기자 | 사진 홍성은



1 한 손으로 여단을 수 있는 '루즈 오토마띠끄'. 761호로 고혹적인 매력을 뽐내보자. 겔랑(3438-7459) 2 '루주 알뤼르 벨벳'. 스프링 메이크업 룩 '쁘랭땅 프레시오 드 샤넬'의 선행색 립스틱 43호. 샤넬(3708-2009) 3 작년 한정 출시한 네온 핑크색 '캔디 앰뎀'을 올 2월 다시 만날 수 있다. 맥(3440-2782) 4 '립 마에스트로' 300호와 400호의 인기는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조르지 오 아르마니(3497-9811) 5 랑콤의 또 다른 상징인 '루즈 인 러브'. 351호 '로즈 필'로 장밋빛 입술을 연출해보자. 랑콤(080-022-3332) 6 '립 크레옹'. 신제품 600호는 졸업·입학 선물로 제격 일듯. 안나수이(518-0981) 7 '고선명 고광택'을 표방하는 헤라의 글로시 립스틱 '쉬어 홀릭'. 24호는 조기 품절 1순위. 헤라(080-023-5454) 8 '루주 볼륨매 사인' 라인의 대표 색상은 6호다. 입생로랑 뷰티(080-347-0089) 9 '디올 어딕트'. 스프링 룩으로 선보이는 신제품 4종 중 467호를 추천한다. 디올(3438-9631) 10 '루즈 아 레브르 이드라뎅 룽크 트뉴'. L31호 하나면 눈 화장 없이도 매력적인 얼굴을 완성할 수 있다. 시슬리(080-549-021)





2013 calendar

일러스트레이터, 아티스트와 콜라베이션해 꾸민 2013년 디자인 달력.

진행 이영지기자 | 사진 김도현

1 폴카 잼의 '키산파이버트' 달력. 페이지마다 독서, 뜨개질 등 소소한 취미 거리와 나른한 고양이의 일상을 담은 일러스트가 담겨 있다. 에이치픽스(3461-0172) 2 홍콩을 주제로 한 2013년 달력. 켈리타앤컴퍼니(745-7774) 3 얼룩말, 코끼리, 하마, 기린 등의 야생동물이 도심을 배회하는 일러스트를 담았다. 코즈모갤러리(3446-0989) 4 2012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서 주목받은 작가 애덤 그린과 콜라베이션한 작품. 빈티지 광고와 포스터, 멕시코와 아프리카의 이국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다. 비엔웁스(3453-8393) 5 판매 수익 일부를 동물 복지 협회에 기부하는 '도그' 픽셀 일러스트 캘린더. 디자인 파일럿(516-5331) 6 노르웨이 디자인 브랜드 달링 클레멘타인의 달력. 비 오는 4월, 꽃피는 6월 등 주제별로 꾸몄다. 에이치픽스(3461-0172) 7 메모장처럼 만든 데스크용 달력. 365장의 메모지로 구성했다. 루밍(6408-6700) 8 플라스틱 블랙 프레임에 4개의 컬러 블록을 끼워 날짜를 완성한다. 모마스토어(www.momastore.co.kr)



DESIGNER'S D-DAY LOOK

런웨이 위 모델의 위킹이 끝나면 전 세계에서 몰려든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은 그날의 진짜 주인공, 디자이너에게로 향한다. 이 순간을 위해 디자이너는 그날 아침 옷장 속 수많은 옷 중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 디자이너들의 피날레 룩이 궁금하다.

누구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땐 의상에 신경을 쓴다. 가지고 있는 옷으로 미리 스타일링해보기도 하고, 부족한 아이템을 준비하기도 한다. 디자이너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새로 준비한 컬렉션을 발표하는 날. 콘셉트를 잡고 디자인하고 수정하기를 셀 수 없이 반복하며 준비한 옷들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패션쇼는 사람들이 디자이너의 새 컬렉션을 구경하러 오는 자리이므로 디자이너도 새옷을 입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평소 입고 싶은 옷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디자인 철학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가 만든 옷을 잘 소화하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컨템퍼러리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스티브 & 요니를 이끌며 부부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스티브와 요니는 모델이 입을 옷을 다 결정하고 나면 남은 컬렉션 의상 중 자신들이 피날레 때 입을 옷을 결정한다고 했다. 지춘희는 오히려 새 컬렉션에 등장하는 옷은 피날레에 입지 않는 편. “너무 갖춰 입은 느낌이 들어 불편해요. 가능한 한 컬렉션 분위기에 어울리는 옷을 새로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골라 입죠.” 아침부터 쇼 준비로 바쁜 디자이너를 인터뷰하려는 블로거, 새 컬렉션을 취재하려는 에디터, 컬렉션 사진을 담으려는 전 세계 매체가 들이대는 카메라에 쇼 당일 디자이너의 1분 1초는 모두 노출된다. 이날 디자이너는 어떤 옷을 입고 손님을 맞이할까? 이들의 피날레 룩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다.

첫 번째는 매 시즌 변하지 않는 시그니처 룩을 고집하는 디자이너들, 바로 ‘It’s me!’형이다. 이들은 그림자만으로도 누군지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자기만의 ‘그것’을 지녔다. 샤넬의 수장 칼 라거펠트는 뒤로 묶은 흰머리, 목을 가리는 높은 칼라의 화이트 셔츠와 눈동자의 움직임도 감지할 수 없는 짙은 블랙 선글라스, 가죽 장갑, 블랙 팬츠와 벨트, 폭이 넓은 넥타이와 긴 목걸이 여러 개, 굵이 있는 검정 구두 등이 스타일 시그니처. 올해 78세인 아르마니는 피날레에서 운동으로 만든 근육을 드러낼 수 있는 타이트한 블랙 저지 티셔츠에 넉넉한 팬츠를 입고 운동화를 신는다. 디스퀘어드2의 쌍둥이 디자이너 دن과 댄 형제는 같은 옷을 맞춰 입는 위트를 발휘하는데 청바지에 셔츠를 입고 시즌에 따라 타이나 재킷을 매치한다. 염색하지 않은 희끗희끗한 머리에 수염을 짧고 거칠게 자르는 것도 특징이다. 이 외에도 블랙 터틀넥 톱에 재킷을 매치하고 부인의 손을 꼭 잡고 걸어 나오는 로베르토 카발리, 통통한 배를 가리기 위한 넉넉한 배기팬츠 슈트를 입고 뒤통거리며 걸어 나와 귀엽게 미소 짓는 랑방의 앨버 엘바즈, 넥타이와 행커치프까지 맞춘 깔끔한 정장으로 최상의 예의를 갖추는 신사 오스카 드 라 렌타 등도 변하지 않는 그들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디자이너다.



두 번째로는 마치 백스테이지에서 일하는 스태프 중 한 명인 듯 수수한 차림의 디자이너, 'Simple but chic'형이다. 매 시즌 과격적인 맥시 볼륨 실루엣과 강박적 수공예 기법을 담은 드라마틱한 옷을 선보이는 알렉산더 맥퀸의 사라 버튼. 그런데 정작 피날레에서는 평범하고 소박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밑단을 접어 올린 통 넓은 빈티지 청바지에 로퍼 그리고 9부 소매의 헐렁한 블라우스나 셔츠를 입고 조용히 인사하고는 재빠르게 백스테이지로 돌아가버린다. 세 시즌 만에, 그것도 27세라는 어린 나이에 발판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올리비에 루스탱은 어떤가. 런웨이에서는 한 뼘은 훌쩍 올린 과장된 어깨, 화려한 지수 등으로 도시 여자를 위한 블링 블링한 글램 시크 룩을 보여주지만 정작 본인은 블랙 가죽 팬츠에 늘어난 듯 헐렁한 브이넥 화이트 저지 티셔츠를 입고 뛰어나온다. F/W 시즌에는 여기에 재킷 하나를 더 걸칠 뿐이다. 너무나 정숙해서 오히려 더 섹시하게 느껴지는 디자인부터 직접적인 노출까지 변화무쌍한 페티시 스타일을 선보이는 장 폴 고티에는 그냥 평범한, 누구나의 옷장에 있을 법한 블랙 팬츠에 블랙 니트를 입고 '패션계 악동'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메인 모델 또는 셀러브리티와 함께 가볍게뛰어 나와 기분 좋은 인사를 한다.

세 번째는 'Self-PR'형. 본인의 컬렉션에 사용한 메인 소재라든지 실루엣, 프린트, 독특한 염색 기법 등을 가미한 의상을 입어 모델들이 퇴장한 후에도 보는 사람들이 컬렉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똑똑한 마

케팅형' 디자이너들이다. 대표적으로 미우치아 프라다. 그녀는 컬러나 실루엣, 프린트, 소재 등 그 시즌 메인 디테일 중 한 부분을 활용한 옷을 입고 수줍게 인사하고는 빠르게 사라진다. 베로니카 에트로와 안젤라 미쏜니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내는 프린트나 패턴이 돋보이는 옷을 선택하는 디자이너. 톰 브라운은 그 시즌 선보인 여성복 원단으로 만든 남성 슈트를 입고 나오는데 톰 브라운 남성 슈트 특유의 재단과 짙막한 길이가 돋보이는 디자인이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한다. 하우스 오브 홀란드의 헨리 홀란드와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 역시 그 시즌의 컬러와 패턴을 프린트한 옷을 선택하는 디자이너다.

마지막은 그 누구도 디자이너의 피날레 룩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쇼가 끝난 후에 아무도 자리를 뜰 수 없게 하는 'Guess what'형 디자이너들이다. 어느 시즌에는 치마에 구두를 신고 나오더니 또 어느 시즌에는 평범한 블랙 팬츠 슈트에 스니커즈를 신고 나오는 마크 제이콥스. 본인이 추구하는 아방가르드하고 키치하며 볼륨감 있는 입체 패턴 옷을 선호하되, 어떤 시즌에는 정치나 사회, 문화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프린트한 핑키 티셔츠 하나만 걸치기도 하는 전위적인 비비안 웨스트우드. 인종차별에 관한 불미스러운 일로 최근 패션계를 잠시 떠나 있지만 한때 한편의 연극 같은 컬렉션 의상과 패션쇼 연출을 선보였고 그보다 더 드라마틱한 피날레를 연출해 마니아층을 형성했던 존 갈리아노도 이 유형에 속하는 디자이너다. ●

글 정려윤 기자



WISH LIST 2013

패션 피플 9인이 이야기하는 2013년 꼭 이루고 싶은
가슴 설레는 소망, 그리고 그 순간을 함께할 영광의 패션 아이템!
모두 이뤄지기를 바라며 위시 리스트를 한자리에 모았다.

MY WEDDING, MY DREAM

올해 꼭 결혼을 하고 싶다. 친한 친구와 가까운 가족이 모여 파티처럼
즐길 수 있는 소규모 하우스 웨딩이라면 더 좋겠다. 웨딩드레스는
보디라인이 드러나는 타프타 소재 A라인 드레스를 고를 생각.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결혼 사진을 꺼내 봐도 촌스럽지 않고 우아한 기품이
묻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타프타 소재를 자연스럽게 주름 잡은 심플하고
클래식한 암살라 웨딩드레스라면 내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일단 사랑하는 사람부터 만나고 볼 일이다! _ 세트 스타일리스트 최훈화



GO TO SPAIN

열정과 낭만이 공존하는 스페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매일이 축제인 듯 활기가 넘치는 도시에서
불거리와 음식을 즐기다 보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외에
전 세계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꿈꾸는 여행지
이비자 섬에도 꼭 가보려 한다.
준비물은 편안한 신발과 술술
읽히는 소설책 그리고 현지
시간과 한국 시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듀얼 타임 시계.
_ 홍보대행사 KPR 홍보팀 조우리 대리



BE A GENTLEMAN

포토그래퍼에게 검은색 티셔츠와 청바지,
스니커즈는 최고의 작업복이자 가장 많이 입는 평상복.
이유는 간단하다. 편하니까. 하지만 2013년에는
셔츠와 슈트를 평상복으로 도전해볼까 한다.
언젠가부터 슈트는 부담스러운 격식이 아닌 '남자다움'을
가장 잘 표현하는 멋스러운 옷'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결혼식에 갈 때만 입던
슈트를 올해는 자주 꺼내야겠다. _ 포토그래퍼 이진수



TROPICAL SUMMER

12월에 결혼하는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친구처럼 지내는 남편과 같이 여행을 다니며
그가 좋아하는 서핑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
남국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트로피컬 룩으로
치장하고 거리를 걷다 지칠 때면
느긋하게 스파를 즐기며 맘껏 호사를
부리는 것이 소망이다. _ 포르투 한정은 대표



HIGH HEELS HOLIC

키가 큰 편이라 하이힐을 즐겨 신지 않지만, 새해에는 타이트한 펜슬 스커트에 앞코가 아찔하게 뾰족한 킬 힐을 시도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한 살 더 먹은 만큼 성숙한 스타일링을 연출하고 싶다. 환상적인 다리 라인과 관능적인 킬 힐의 조화는 남자들의 환상이기도 하지만 나의 오랜 버킷 리스트이기도. 그전에 미끈한 종아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만. <마이웨딩> 패션 & 뷰티 에디터 도나형

HAPPY WINTER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스키. 올해는 복잡한 국내 스키장을 벗어나 여유로운 해외 스키장에서 겨울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스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알프스 남쪽 자락에 있는 프랑스 남부의 메르캉투르 국립공원이나 캐나다의 휘슬러, 미국의 콜로라도 등을 물색 중이다. 그곳에 어울릴 만한 럭셔리한 제트세트 룩도 준비해야겠다. 후드가 달린 퍼 코트와 레깅스 그리고 따뜻한 룽 부츠라면 완벽할 듯. <DS Furs> 마케팅팀 김지희 팀장



HEALTHY NEW YEAR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사실 이런 의지에 불을 지핀 것은 몇 년 동안 빛을 못 본 채 구겨져 있던 몇 벌의 스키니 진을 옷장 속에서 발견한 사건. 자기 관리의 시급함을 절실히 느낀 순간이었다. 다시 스키니 진을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일주일에 서너 번 필라테스를 꾸준히 해 스트레스와 음주 등으로 몸 안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탄탄한 보디라인을 가꾸려고 한다. 탄력을 잃지 않도록 전문적인 피부 관리도 병행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매사에 여유를 가지며 나에게 진정한 웰빙을 선물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에비뉴엘> 뷰티 에디터 이지현

NEW YORK, NEW YORK!

2013년은 내 나이가 서른이 되는 해. 여름휴가는 자유의 도시 뉴욕으로 혼자 떠나고 싶다. 평소 심플한 차림을 선호하는 만큼 모노톤 쇼츠에 브이넥 티셔츠나 베이식한 화이트 셔츠를 매치하고 멀버리의 투박한 클러치백을 든 채 뉴욕의 거리를 누빌 거다. 여름철이면 늘 지니고 다니는 남성적인 디자인의 톱 포드 선글라스는 이번 뉴욕 여행도 함께할 예정.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시슬리움> 소재 디자이너 강지현



BY MYSELF

화려한 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마지막 싱글 여행을 꿈꾸고 있다. 더불어 상상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과감한 백리스 드레스를 입고 라스베이거스의 근사한 바에서 멋진 남자와 탱고를 추는 것! 드레스도 장만하고 아름다운 뒤통을 위해 보디라인도 잘 가꾸고 탱고도 배워야겠지만, 반드시 실현하고 싶다. <홍보대행사 애플트리 원선미 대리> 글 김지원 기자



숫자로 말해요

3월 3일 삼겹살 데이, 9월 9일 구구 데이,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등 매달 숫자를 이용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뉴메릭 마케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외래어보다 친숙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 숫자 활용법은 뷰티 팁에서도 유용하다. 2013년 뷰티 전문가들이 귀띔하는 시크릿 넘버는?

4

날씬한 각선미를 위한 4자 스트레칭

"특별한 도구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트레칭법을 소개합니다. 똑바로 누운 다음 한쪽 다리를 일자로 편 뒤 반대쪽 다리의 무릎을 굽혀 허벅지에 올리세요. 위에서 보면 4자 모양이 되지요. 두 손으로 무릎을 눌렀다 펴면 골반 근육이 시원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편 다리의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겨 20초간 유지하세요." _ 제이 킴(필라테스 스튜디오 네이처 발란스 대표)



6cm or 8cm 굽 하이힐

"굽이 거의 없는 플랫 슈즈를 오래 신으면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려 허리가 빠근해집니다. 하지만 10cm 이상의 킬 힐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안정적인 슈즈 스타일링으로 굽 높이가 최소 3cm, 최대 6cm 하이힐을 추천하며 각선미를 뽐내고 싶을 땐 8cm 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_ 이은지(세에보카 대표)
블랙 & 골드 조합의 고급스러운 부티는 세에보카. 가느다란 끈이 달린 옥스퍼드 하이힐은 너무하나.

일주일에 2번 수분 팩 하세요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큰 겨울철에는 피부 신진대사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피지 분비 기능이 저하돼 얼굴이 땅기고 각질이 일어나며 마른 낙엽처럼 버석거리지요.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2회 수분 팩을 하라고 조언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안을 꼼꼼히 한 뒤 3분 이내로 토너와 에센스를 발라 피부를 정돈하세요. 그런 다음 수분 크림을 평소보다 2~3배 많이 바르고 10분 후 피부에 충분히 흡수되면 따뜻한 스팀 타월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_ 이정훈(차앤박피부과 삼성점 대표 원장)
'호프 인 어 자'. 슈크림처럼 촉촉한 질감의 수분 크림. 뷰티 셀렉트 숍 세포라가 선정한 베스트 수분 크림 중 하나다. 필로소피. 'CNP 듀얼 밸런스 워터락 모이스크림'. 산뜻한 젤 타입의 오일프리 수분 크림. 차앤박화장품. '하이드레이팅 B5 마스크'. 비타민 B5와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수분 트리트먼트 마스크. 스킨슈티컬즈.



1



나만의 항산화제, 1잔 레드 와인

"양껏 먹지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프렌치들의 아이러니한 체형을 빚대어 '프렌치 패러독스(French Paradox)'라고 합니다. 핵심 요인으로 레드 와인을 손꼽는데 식사할 때 곁들이는 적포도주의 폴리페놀 성분 덕분! 하루 한 잔의 레드 와인은 동맥경화, 심장 질환 발병률을 낮춰줍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의 레스베라트롤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속도를 늦추니 오늘부터 건강을 위해 와인 한 잔 어떠세요?" _ 엄경자(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수석 소믈리에) 2009년산 레드 와인 '아뮤즈 부셰 앤디 워홀 에디션' 하이드바렛.

1.5

1.5배 작아지는 얼굴

"얼굴이 동그랗고 하관이 발달한 '큰 바위 얼굴'이라면 볼륨 퍼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정수리 볼륨을 1cm만 살려도 얼굴이 훨씬 작아 보입니다. 얼굴형, 두상, 신장에 맞는 헤어 스타일만 잘 찾아도 다섯 살 어려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한 예로 앞머리를 자르면 시선이 볼 쪽으로 분산돼 발달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어요!" _ 이희(이희 헤어 & 메이크업 대표)



시향지, 40분 후에 확인하세요

"향수를 테스트할 때 시향지에 뿌린 다음 대충 말아보고 바로 구매하곤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잔향에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일! 새해부터는 시향지나 손목에 뿌린 다음 최소 30~40분이 지난 뒤 다시 한번 맡아본 다음 선택하세요. 톱 노트가 날아간 다음에야 진정한 향이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_ 최아름(아이센트 대표) '로베르토 카발리'. 핑크페퍼의 일싸한 첫 향이 달콤한 바닐라 향으로 마무리되는 여성 향수. 하이코스.

40

녹차팩 10분으로 수분 충전

"건조한 겨울철, 뭘 발라도 들뜨고 푸석한 피부를 위해 녹차 티백을 선물해보세요. 다 쓴 녹차 티백을 이용한 10분 활용법을 추천합니다. 화장 솜에 차가운 녹차 물을 적신 다음 10분간 이마, 양볼, 턱 등 얼굴 곳곳에 얹었다가 떼어내면 수분 크림 못지않은 보습 효과를 전합니다.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킬 때에도 유용합니다." _ 조혜영(A by BOM 부원장)

100

옷 맵시를 살리는 푸시업 100회

"딱 벌어진 어깨는 '옷발' 좋은 남녀의 공통점! 몸이 말라도 어깨가 딱 벌어지면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저 역시 '낭당할' 어깨를 위해 하루에 100회씩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한 달간 꾸준히 하다 보면 구부정한 어깨가 조금씩 펴지면서 자세가 좋아지고 키가 커 보입니다. 한 번에 무리해서 하지 말고, 20회씩 5세트로 나눠 하시길!"

_ 최진영(패션 스타일리스트)



1.5

반지 레이어링으로 손가락 1.5배 길어 보이게

"손가락 마디가 짧은 편이라 반지 착용을 꺼리다만 주목하시길! 가는 실 반지를 잘 레이어링하면 손가락이 최대 1.5배가늘고 길어 보입니다. 레이어링할 땐 3, 5, 7개 홀수로 맞추는 것이 포인트죠."

_ 이수진(수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실반지는 모두 수엘.

1번의 터치로 메이크업 끝!

"20여 년 동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최소의 터치로 최대의 효과를!' 얼굴에 자꾸 손을 대면 어색해지는 건 메이크업 역시 마찬가지예요.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립 & 아이 제품을 바를 때 브러시 한 번으로 마무리하도록 신경 씁니다. 손등에 파운데이션을 덜어 이마, 볼, 턱, 코 순서로 얇게 펴바르는 것이 첫 번째 단계. 이때 브러시를 사용하면 조금 더 균일하게 바를 수 있어요. 색조 화장할 시간이 빠듯할 땐 손가락을 이용해보세요.

눈두덩과 입술에 각각 제품을 바른 뒤 엄지손가락으로 한 번씩 펴바르면 끝!" _ 웬디 로워(메이크업 아티스트)

리얼 스킨 파운데이션 V303호, 페스티벌 립스틱 601호 애쉬톤, 페스티벌 미네랄 아이즈 202호 선샤인 비치 모두 VDL. 글 이주현기자 | 사진 김도현



6.2년 젊어지는 입속

"잇몸 염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단순히 입냄새 문제를 넘어 심장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음식물을 잘게 씹어 넘기는 데 어려움이 생겨 영양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위와 장에 무리를 주어 위장 질환에 걸릴 확률 또한 늘어나지요. 하루 세 번 이를 잘 닦는 칫솔질뿐만 아니라 치실을 이용한 잇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 오늘부터 하루 3번 3분간 규칙적으로 양치하고 치실로 마무리해보세요. 6개월에 한 번 치과에 들러 스케일링 받으면 '건치 미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_ 이윤경(차음 디톡스슬리밍센터 교수)



헤어트리트먼트 코드명 1120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한 모발 정전기, 1120 트리트먼트로 관리해보세요. 헤어 살롱에 들르지 않아도 찰랑이는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샴푸한 다음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20분 동안 그대로 두면 끝! 기다리는 동안 양치를 하거나 몸을 씻으면 지루함을 덜 수 있습니다." _ 두리(AbyBOM 헤어디자이너)

리스토리티브 헤어 마스크, 손상 모발을 집중 관리하는 트리트먼트, 모로칸오일, 까리떼 나리싱 크림, 시아버터가 주성분인 헤어트리트먼트, 모발에 바른 다음 스팀 타월로 감싸면 유효 성분의 흡수를 높일 수 있다. 르네휘데트, '스칼프 아쿠아 키밍 마스크', 고농축 수분 캡슐이 두피와 모발에 활력을 전하는 헤어 팩, 아윤체, '시아버터 & 비타민 나리싱 & 하이드레이팅 헤어 마스크', 비타민 A E H를 함유한 데일리 트리트먼트, 린스 대신 사용해도 좋다. 코레스.



5

에어 스쿼트로 5cm 힙업 효과를!

"크로스핏의 기초 동작 에어 스쿼트는 힙업 효과가 탁월합니다. 한 발짝 뒤에 있는 의자에 앉은 듯한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쪽 밀면서 내려갑니다. 무게중심은 뒤꿈치로 보내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팔을 들어 일어나세요. 무릎보다 조금 더 아래까지 엉덩이를 내려줍니다. 20초간 최대한 많이, 10초 쉬는 순환 동작 8회 반복하세요." _ 이근형(리복 크로스핏 트레이너)



THE MINIMAL BEAUTY

자신의 피부가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2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요즘, 10가지 이내의 최소 성분만을 사용한 저자극 화장품이 인기다. 인공 첨가물은 줄이고 기능은 극대화해 피부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 새해를 맞아 피부에도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 보는 것은 어떨까?

1960년대 후반 미국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미니멀리즘이 지금 패션과 예술을 넘어 화장품 업계에도 번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불어닥친 화장품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미니멀 코스메틱' 열풍에 불을 붙였고, 그 결과 화장품 회사들은 효과가 빠른 고기능성 제품 개발과 더불어 각종 첨가물을 배제한 최소 성분의 제품을 하나둘 선보였다. 텔크, 알코올, 색소, 방부제는 피부에 자극을 주는 대표적인 첨가물. 여드름과 피부 질환 치료에 자주 사용하는 스테로이드계 성분과 계면활성제, 포름알데히드, 디옥신, 파라벤, 미네랄 오일, 페녹시에탄올 등도 이에 포함된다. 여기에 피부가 민감하다고 느끼는 여성들이 늘어난 것도 '최소한의 화장품'을 탄생시키는데 한몫했다. 여러 피부과 학회지에 따르면 자신의 피부가 민감성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5년 사이 급격히 증가해 68.4%에 이르고 있다고, 많은 여성들이 이에 따른 피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잦은 피부과 시술과 더불어 환경오염과 급격한 기후변화, 과도한 냉난방으로 인한 피부 자극 및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니스프리 홍보팀 이해진 차장은 "요즘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제품 리뷰나 피부 관련 연구 논문만 봐도 외부 자극과 스트레스로 민감해진 피부 때문에 고민하는 여성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하며, "이런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성 화장품을 출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니스프리의 '더 미니멈 라인'은 모든 제품을 10가지 이하의 성분만으로 만든 것이 특징. 각각의 성분은 원료 자극 테스트를 통해 선별했으며, 10 프리-시스템(무파라벤, 무동물성, 무광물유, 무



1 리벨란싱 트리트먼트 페이스 오일. 샌들우드, 카르다몸, 라벤더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이 민감해진 피부의 균형을 되찾아준다. 클리안스. 2 '101 오인트먼트'. 양 턱에서 채취한 천연 라놀린 성분이 건조한 입술과 유두, 팔꿈치 등에 작용해 건조함을 완화한다. 라노립스. 3 '블루 피토 콤플렉스'.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유기농 허브를 함유해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BRTC. 4 '더 미니멈 모이스트 크림'. 충분한 보습이 필요한 하는 민감성·건성 피부에 효과적인 보습 크림. 피부 순환 주기에 맞춰 1개월 사용 용량(30ml)으로 출시했다. 이니스프리. 5 '울트라밤'. 호호바씨 오일, 칸데릴라 왁스, 서양장미꽃 왁스 3가지 성분만을 사용한 보디 모이스처라이징 밤. 라쉬. 6 '클렌징 워터.그린'. 살구씨 오일과 그린 클레이, 알로에베라 워터 함유로 피부 트러블을 최소화하며 완벽한 세안을 돕는다. 플레인 C. 7 '에코힐 페이스 오일'. 마카다미아 너트와 브라질 너트, 해바라기씨 오일을 함유한 제품으로 피부에 촉촉한 보습과 윤기를 선사한다. CLIV. 8 '프로스티드 오일밤 클렌저'. 흘러내리지 않는 밤 타입의 클렌징 오일로 1회용씩 포장해 사용이 간편하다. 피부 정화 능력이 뛰어난 모링가 오일을 함유해 모공을 억지로 열지 않아도 깔끔히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 프로스틴.

에탄올, 무아크릴아미드, 무실리콘 오일, 무포름알데히드, 무1, 4-다이옥산, 무색료, 무향료)을 적용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자극을 최소화했다. 플레인 C도 피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분 10가지 내외로만 제품을 만든다. 화학 성분, 파라벤, 알코올, 동물 성분, 중독 성분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천연 방부제조차 배제한 것이 특징. 유통기한에 따른 천연 성분의 변질을 막기 위해 선주문 후생산 방식을 채택했다. 플레인 C는 온라인 전용 화장품으로 쇼핑몰(www.plainc-mall.com)에서 구입 가능하다. 지난봄 모든 화학물질을 제외한 무방부제 냉장 화장품으로 탄생해 주목받은 프로스틴 역시 방부제로 분류되거나 방부 목적으로 개발된 모든 성분을 철저히 배제해 화장품 유해 성분 0%에 도전하고 있다.



FOR SENSITIVE SKIN

토너, 미스트, 부스터, 에센스, 세럼, 콘센트레이티드, 로션, 크림... 여성들이 세안 후 보습을 위해 순차적으로 바르는 제품들이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모두 비슷비슷한 성분의 조합이다. 미스트에 포함된 보습제 성분이 같은 라인의 에센스 성분에도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 단지 피부에 닿을 때 좀 더 가볍게 흡수되는지 아니면 고농축 성분으로 피부에 오랫동안 보호막을 만드느냐의 차이일 뿐 성분엔 큰 변화가 없다.

건강했던 피부가 화장품 사용 후 문제가 생겼다면 지난친 영양 공급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보자. 푸른 피부와 검어진 원장은 “적당한 유·수분 균형은 건강한 피부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한다. 화장품 역시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사실. 김 원장은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부위에 “가볍고 순한 모이스처라이저 하나만 바르라”고 조언한다. 건조한 정도에 따라 식물성 오일, 시어버터, 비타민E, 미네랄 등의 유연제에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스칼렌, 레시틴, 콜라겐, 엘라스틴, 아미노산, 포도당 등의 보습 성분이 적절하게 배합된 것이 좋다고. 시슬리 교육부 조현경 과장은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달래는 성분이 따로 있으니 제품 구매 시 꼼꼼히 따져보라”고 조언한다. 리코라이스, 린텐, 알란토인, 알로에베라, 캐머마일, 셀렌라 아시아티카, 징코 빌로바, 라벤더 오일 등은 최소한의 자극으로 피부를 진정시키는 성분들이다.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여드름 발생을 막는 논-코메

1 비노수르스 에스오에스 씨스트 쿼칭 세럼. 유해 첨가물 대신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 성분을 농축해 피부에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유·수분 균형을 맞춘다. 코달리. 2 아르간 뷰티 오일. 비타민 E와 오메가6가 풍부한 아르간 오일이 피부 보습력을 높인다. 멜비타. 3 아토팜 MLE 페이스 크림. 민감하고 건조한 얼굴과 목에 사용하는 보습 크림. 피부 각질층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세라마이드를 안전하게 흡수시키는 MLE 제형 기술로 피부 장벽을 강화한다. 아토팜. 4 데일리 페이스 모이스처라이저 SPF 15/PA+++. 간성과 민감성 피부를 위한 보습제로 외출 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끈적임이 적은 무향으로 흡수가 빠르다. 세타필. 5 페이스 클렌저. 천연 당질의 보습 성분 트레할로스를 함유해 세안 후에도 땅김 없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한다. 더마비. 6 리더믹 C 아이 에센스. 파라벤과 인공 향을 첨가하지 않은 눈가 집중 탄력 에센스. 비타민 C와 만노스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붉은 기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라로슈포제.

도제닉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트러블 예방에 좋으니 참고하도록. 또한 시뻘뻘처럼 통용되는 천연 추출, 100% 자연주의 같은 화장품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 100% 천연 원료를 사용하면 유통기한이나 제조상 문제가 많아 제품 완성이 불가능하다. 대신 화장품 성분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으니 제품 하나를 구입할 때도 문제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진행 심화정기자 | 사진 염정훈

제품 협조 코달리(546-7424), 더마비(080-500-0037), 라노랩스(726-8832), 라로슈포제(3497-9596), 러쉬(795-7510), 멜비타(3014-2997), 바이오더마(080-0011-7676), 세타필(6717-2000), 아토팜(3446-4926), 이니스프리(080-380-0119), 클라란스(3014-2916), 프로스틴(080-023-7007), 플레인 C(www.plainc-mall.com), BRTC-CLIV(080-332-3885)

THINK CLEAN

현명한 주부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못지않게 신경 써서 고르는 주방용·세탁용 세제. 인체에 덜 해롭고 설거지나 세탁 후 오수를 흘려보내도 미생물이 분해해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천연 재료를 사용해 자극은 낮추고 세정력은 높은 친환경 세제를 소개한다.

CHECK WHAT'S INSIDE

세제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와 성분이다. 세제의 주원료인 석유 추출물은 계면 활성제를 다량 함유하는데, 거품이 잘 일어나고 세정력은 높지만 자연 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친환경 세제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석유 추출물이 아닌 과일과 채소에서 얻은 천연 성분. 지방과 오염 물질 분해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레몬과 코코넛 오일, 알로에를 사용해 피부에 직접 닿아도 자극이 없다. 친환경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마크도 체크할 것. 제품 성분뿐 아니라 패키지 소재, 라벨의 잉크 성분까지 점검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미국의 'C2C' 재단,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환경 감사 시스템 'EMAS', 스웨덴 스톡홀름의 국제연합 환경 프로그램 'UNEP' 등 환경 보전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인증 마크가 있다면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증거다.



For Kitchen

선반 위의 흰색 찻잔 더플레이스 The Place, 하늘색비알레티 모카포트와 아래의 드롭기 토스터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레서피 북과 음식 화보집은 모두 한미문화사 Hanmi. 나무 도마와 노란색 조리기구통, 통에 담긴 스페큘러와 거품기 모두 르크루제 Le Creuset. 꽃 향기가 은은한 '사봉리퀴드' 랩스토어 Hapstore. 레몬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지방 분해 성분이 들어 있는 '레몬 발삼' 세제 프로쉬 코리아 Frosch Korea. 'C2C'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한 '핑크 그레이프' 세제 메소드 Method. 알로에, 레몬, 천연 소금 성분으로 만든 에코버 '자몽' 세제와 코코넛 및 야자 열매 성분이 들어 있어 세정력이 우수한 J.R. 왓킨스 '자몽' 세제, 천연 재료를 사용해 피부에 직접 닿아도 무해한 퓨어가닉 '에코' 세제 모두 랩스토어 Hapstore.





For Laundry Room

코코넛 오일 추출물로 만들어 뿌리기만 해도 욕조와 세면대를 깨끗이 세척하는 '데일리 샤워'와 라벨에 펭귄이 그려진 '리벤더 & 자몽' 고농축 세탁 세제 애티튜드 Attitude. 미지근한 물에도 잘 녹는 넬리스의 '소다' 표백제와 가루 세제, 알로에 성분으로 만든 키파서 치약 모두 에코엔트리 Econtree. 눈 내리는 나무를 표현한 '스노위 트리' 액자와 욕실용 디스펜서, 수건, 이불, 쿠션 모두 카사미아 Casamia. 옷걸이와 흰색 의자 모두 카레 Kare. 겨울용 '에스트라토 암비엔테' 룸 스프레이는 산타마리아노벨라 Santa Maria Novella.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미국 와이오밍의 천연 소다로 만든 세제, 종이 지퍼백 형태의 봉투에 들어 있는 가루 세제, 찌꺼기가 전혀 남지 않는 액상 세제 모두 찰리송 by 고그린스 Charlie Soap by Gogreens. 파란색 통에 들어 있는 욕조 및 세면대 전용 배스룸 클렌저는 메소드 Method. 수건 위에 둔 '사봉 내추럴' 비누, 염분과 다이옥신, 발암성 물질을 제거한 '어스 초이스' 가루 세제는 모두 햅스토어 Hapstore. ● 글 이영지 기자 | 사진 황인우 | 스타일리스트 최혜민 | 제품 협조 고그린스(031-335-9870), 카사미아(031-780-7100), 르크루제(3444-8801), 메소드(080-023-7007), 산타마리아노벨라(546-1612), 애티튜드(1566-3903), 에코엔트리(573-7401), 프로쉬 코리아(031-853-0717), 한미문화사(548-8084), 햅스토어(562-6612)

HELLO, NEW FACE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놓치지 말고 주목할 것.
9곳의 브랜드에서 2013년 12대의 대표 신차를 발표했다. 디자인과 성능,
개성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12대의 후보 중 당신의 선택은?

VOLVO



V40 '안전의 대명사' 볼보의 이미지는 프리미엄 5도어 해치백 모델인 'V40'에도 이어진다. 저속 충돌 방지 시스템인 시티세이프티의 작동 속도를 30km/h에서 50km/h로 향상하고, 세계 최초의 보행자 에어백, 평행주차 어시스트 시스템 등을 탑재해 '2012 유로 NCAP 충돌 테스트' 역사상 최고 점수를 기록한 것. 디자인은 한층 모던해졌다.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에 맞게 설계한 새시, 그래픽 요소를 강조한 계기판과 정보 전달 시스템이 운전전에 집중하게 한다. 기술된 엔진 T5는 254마력의 힘과 제로백 6.7초를 기록하며, 디젤엔진 D2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4g/km로 에코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상반기 출시 예정.

PORSCH



CAYENNE S DIESEL '청담동 머느리 차'라는 별칭이 생길 만큼 국내 SUV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포르쉐 카이엔이 더욱 스포티하고 세련된 '카이엔 S 디젤'을 출시한다. 외관은 기존 8기통 기술된 엔진 카이엔 S와 다르지 않지만 성능은 더욱 내실 있다. 제로백 5.7초, 최고속력 252km/h에 알맞은 역동적인 엔진 사운드를 놓치지 말 것. 포르쉐 구동력 제어장치(PTM)를 장착해 사륜구동이지만 후륜구동 차량의 정교한 핸들링까지 경험할 수 있다. 오토 스타트-스톱 기능을 장착해 유럽 기준 연비 8.3l/100km, 이산화탄소 배출량 218g/km를 기록했다. 1월, 독일에서 론칭한다.

TOYOTA



AVALON 부드러운 주행에 초점을 맞춘다면 토요타의 플래그십 세단 '아발론'이 최상의 선택이다. 물흐르듯 우아한 루프 라인과 낮은 벨트 라인으로 측면 실루엣이 매력적이며, 칼티 디자인 센터에서 디자인한 인테리어는 안락한 시트와 보다 넓어진 적재 공간이 포인트.
RAV4 원조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인 토요타의 'RAV4'가 4세대 모델로 돌아왔다. 대담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에 매끈한 루프 라인, 공격적인 캐릭터 라인이 돋보인다. 인테리어는 부드러운 터치 액센트와 운전자 중심 컨트롤이 핵심. 8개 에어백을 기본 장착했다.

FIAT



500 피아트 대표 아이콘인 '친퀘첸토'가 2013년 1~2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도심형 3도어 4인승 경차로 다양한 옵션과 개성 있는 디자인, 공간 활용성이 돋보인다. 80여 개국에서 50만 대 이상 판매됐으며, '2008 유럽 올해의 차'를 비롯해 60여 개의 상을 받았다.
500 CABRIOLET '친퀘첸토 카브리올레'는 파워트레인 옵션으로 사계절 최상의 주행 성능과 연비 절감을 자랑하며, 편안한 인테리어에 35가지 안전·보안 장치를 탑재했다. 3가지 소프트 톱 컬러, 14가지 외형 컬러, 12가지 시트 컬러, 2가지 인테리어 옵션 중 선택.

FIAT



TOYOTA



LAND ROVER



RANGE ROVER 10년 만에 풀 체인지된 플래그십 모델, 4세대 '올 뉴 레인지로버'가 2013년 1월 국내에 등장한다. 세계 최초로 초경량 알루미늄 모노코크 차체 구조를 채택한 SUV로, 최대 420kg에 달하는 차체 무게를 감량해 성능과 민첩성을 극대화하고 연비를 향상시켰다. 알루미늄 프론트와 리어 새시 구조, 새로운 4코너 에어 서스펜션으로 핸들링이 정교하다. 오토 버튼을 누르면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이 2분마다 노면 상황을 감지하고 도로 상황에 맞는 주행 모드를 설정해 오프로드에 강하다.

MINI



PACEMAN 날렵한 쿠페 라인과 MINI 고유의 고카트 느낌, 차별화된 인테리어가 결합한 '페이스맨'은 프리미엄 소형차로는 세계 최초의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 운전석과 조수석의 스포츠 시트가 기본 장비에 포함된다. 테일 게이트가 높게 열리고 트렁크 문턱이 낮아 짐을 싣거나 내리기가 수월해졌다. 프론트와 사이드 에어백, 앞뒤 좌석 사이드 커튼식 에어백 등 기본 안전 장비로 무장해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하만/카돈 하이파이 라우드 스피커 시스템을 장착해 운전의 즐거움을 더했다. 국내에는 MINI 쿠퍼 D 페이스맨과 MINI 쿠퍼 SD 페이스맨을 출시할 예정이다.



JAGUAR

F-TYPE 2인승 컨버터블 스포츠카의 미학, 'F-TYPE'이 출시된다. F 타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로 명성을 얻었던 E 타입을 계승하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 재규어 신형 3.0리터 V6 슈퍼차저 엔진을 탑재해 F 타입은 최대 출력 340마력, F 타입 S는 380마력을 발휘한다. 5.0리터 V8 슈퍼차저 엔진의 'F 타입 V8 S'는 최대 출력 495마력, 최대 토크 63.7kg·m, 최고 속도 300km/h, 제로백 4.3초를 기록해 압도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 더 커진 그릴은 앞을 향해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주며, 2개의 하트라인은 엔진 성능을 짐작하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코너링 시 더 정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운전자 중심으로 꾸며진 실내에는 스티어링 휠과 도어 핸들, 센터 패시아에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했다. 시트는 XKR-S보다 20mm 낮춰 보다 스포티한 자세를 연출한다.



MERCEDES-BENZ



VOLKSWAGEN



THE NEW CLS SHOOTING BRAKE

메르세데스-벤츠가 2013년 1분기 국내에 첫선을 보일 'CLS 슈팅 브레이크'는 세단의 안정성과 쿠페의 날렵함을 두루 갖춘 다이내믹한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차의 전면부는 CLS 클래스 세단과 흡사하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낮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과 측면 유리, 두텁게 강조한 타이어 주변 디자인이 CLS 슈팅 브레이크만의 독창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취향에 따라 내장재, 가죽, 우드 그레인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다. 모든 모델에 오토 스타트-스톱 기능을 포함한 7G트로닉 플러스 7단 자동변속기와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장착한다.

POLO 차체는 작지만 뛰어난 승차감과 주행 성능, 안전성과 콤팩트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폴로'가 국내 도로를 주행하는 날이 멀지않았다. 귀여운 이미지를 강조하는 일반 소형차와 달리 보다 날렵하고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 특징.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한 실내 구조가 편안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콤팩트 해치백 이상으로 넉넉한 적재 공간을 갖춘 것도 장점이다. '2010 올해의 차', '골든 스티어링 휠', '오토 트로피' 등 권위 있는 상을 다수 수상했을뿐더러 유로 NCAP 충돌 테스트에서 별 5개를 획득하며 뛰어난 안전성까지 검증받았다. 국내 출시 일정은 미정이다. ●

THE NEW A-CLASS 벤츠의 콤팩트 카 'A클래스'가 2013년 하반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감각적인 디자인, 최고 출력 211마력에 달하는 파워풀한 엔진, 뛰어난 연료 효율성, 이산화탄소 배출량 98g/km의 친환경성을 자랑한다. 이전 모델보다 차체 높이를 낮추고, 무게중심, 시팅 포지션을 낮춰 다이내믹한 핸들링을 선사한다. 사고 사전 예방 시스템인 프리-세이프를 장착했다.

글 이영채기자

우리는 디자인 마켓으로 간다

디자인에 민감한 베를리너, 런던너, 파리지앵은 디자이너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주말이면 마을 시장으로 향한다. 농부가 갓 수확한 사과와 옥수수를 내놓듯 디자이너가 애정을 담아 만든 쿠션, 커튼, 조명, 의자를 직접 판매하는 일상 속 디자인 마켓 4!



런던 최고의 디자인 마켓 디자이너스 메이커스마켓, 런던

런던 리버풀 스트리트 Liverpool Street 역에 자리한 올드 스피탈필즈 마켓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디자이너스 메이커스 디자인 마켓을 연다. 런던에서 활동하는 60여 명의 디자이너가 리빙용품, 패션 소품, 주얼리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디자이너스 메이커스 운영위원회의 소피 리즈 Sophie Rees는 “디자이너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11월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올드 스피탈필즈 마켓을 대표할 만큼 규모와 명성이 대단하다. 지금까지 참가한 디자이너 중 73%가 기업에 소속되거나 기업과 공동 작업을 하게 되는 등, 신진 디자이너의 등용문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디자이너스 메이커스의 자랑은 독특한 텍스타일 디자인의 패브릭 제품. 온라인숍도 운영한다. 위치 Old Spitalfields Market London E1 6EW 문의 www.designersmakers.com

디자이너스 메이커스에서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2

엘로이즈 홀 Eloise Hall 일본 젠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아 나비, 잠자리, 새, 물고기를 제품에 등장시키는 엘로이즈 홀. 주로 쿠션이나 커튼, 테이블보 등 패브릭 제품과 일본 전통 종이접기인 오리가미를 활용한 액자를 판매한다. 문의 www.eloisehall.co.uk

루시 셰리던 Lucie Sheridan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그녀는 카드 디자인으로 시작해 펍킨 복스의 커버 디자인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포스터 디자인과 일러스트 제품이 가장 인기 있다. 문의 luciesheridan.bigcartel.com

프랑스 신진 가구 디자이너들의 장 생제르맹데프레 마켓, 파리 피카소, 카뮈, 헤밍웨이 등 세기의 예술가가 사랑한 카페 ‘레 뒤 마고’와 ‘카페 드 플로르’가 자리한 생제르맹 거리.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생제르맹데프레 Saint-Germain-des-Pres 성당 광장에서 생제르맹데프레 마켓이 열린다. 인테리어 소품이나 테이블웨어, 아마추어 아티스트의 작품까지 구입할 수 있지만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디자이너 가구! 생제르맹 거리에는 휴고 슈발리에, 리네 로제 등 브랜드 가구숍도 다양하게 자리해 있지만 젊은 디자인 가구를 만나고 싶다면 생제르맹데프레 마켓에 주목하자. 주로 작은 선반이나 스톨, 1~2인용 테이블 정도만 직접 볼 수 있지만 디자이너마다 자신의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어 제품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주문도 할 수 있다. 위치 St-Germain-des-Pres, 75006 Paris 문의 www.parisinfo.com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승부한다 더마켓NYC, 뉴욕
2007년, 가난한 예술가들의 둥지 그리니치 빌리지의 멀버리 스트리트에 자리한 작은 농구 코트에서 시작한 더마켓NYC, 뉴욕의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거리만큼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작품과 디자인 제품이 등장하며 그리니치 빌리지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지난 9월부터 블리커Bleecker 거리로 장소를 옮겨 규모를 키우고,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해 기간도 늘렸다. 농치지 말아야 할 아이템은 패션 소품!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하는 디자이너 브라이언 파렐Brian Farrell의 액세서리가 특히 인기다. 레코드판을 녹여 형태를 변형하고 페인팅해 액세서리를 만드는 데 도쿄의 셀렉트숍에서 판매할 정도, 더마켓NYC의 오픈과 함께 작업을 시작할 수제 가방 및 지갑 디자이너 유키오 사토Yukio Sato는 이제 맨해튼 내 세 곳의 상점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위치 159 Bleecker street, New York 문의 www.themarketnyc.com



베를린의 가장 최신 디자인!

트렌드 마피아Trend Mafia, 베를린

미테 구역은 베를린에서도 가장 많은 갤러리를 자랑하는 곳으로, 폐허가 된 건물이나 공장을 활용한 예술 공간, 기괴한 분위기의 카페와 클럽이 한데 어우러진 베를린 컨템퍼러리 예술의 최전방이다. 2008년 6월 시작한 트렌드 마피아는 미테 구역 카를 리브크네흐트Karl-Liebknecht 거리에 자리한 디자인 마켓으로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열린다. 패션, 홈웨어, 주얼리 등 분야를 한정하지는 않는 대신 신진 디자이너만 참가할 수 있다. 테이아 디자인Theia Design 대표이자 디자이너인 실비아 테이아Szilvia Theia는 “디자인 마켓은 시장 경험이 적은 디자이너에게는 소비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라 좋다. 트렌드 마피아에는 아직 브랜드 이름을 정하지 않았거나, 라벨조차 붙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곤 하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은 이 점을 신선한 매력으로 느끼는 것 같다. 무엇보다 마켓에서 일러스트 드로잉을 하거나 액세서리 본을 뜨는 등 70여 명에 달하는 디자이너의 작업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다는 점도 쇼핑의 즐거움을 더할 것”이라고 말한다. 위치 Karl-Liebknecht-Str. 11, 10178 Berlin 문의 www.trendmafia.de

글 유선애기자

사진 더마켓NYC, 디자이너스 메이크스마켓, 트렌드 마피아, 파리 관광 안내사무소

트렌드 마피아에서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2

루시아 린저Lusia Rinser ‘루 러브스 핸드메이드’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핸드메이드 생활 소품을 선보이는 그녀는 다채로운 색감과 아기자기한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사랑받는데 그중에서도 아이 옷과 신발, 패브릭 장난감이 가장 인기가 높다. 문의 luloveshandmade.blogspot.com

실비아 테이아Szilvia Theia 나무, 플라스틱, 레진, 알루미늄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는 수제 주얼리 디자이너. 에나멜 세공과 금세공을 습득해 전문 주얼리 브랜드 못지않은 품질을 자랑한다. 기하학적인 디자인에 다양한 색을 입힌 것이 특징. 문의 www.theiadesign.net



세계 일주 항공권이 궁금해

‘여행자’들의 로망 세계 일주. 이 근사한 꿈은 캘린더 불 일이 많은 연초에 유독 자주 기지개를 켜다. 세계 일주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항공권. 언뜻 봐선 알기 어려운 장단점을 세계 여행 경험자들이 알려준다.

세계 일주 항공권의 가장 큰 장점은 편의성. 미리 비행 노선과 연계 구간을 체크하고 가기 때문에 이동편 걱정 없이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1년 안에 세계 일주를 마쳐야 한다는 점, 연합 항공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계 노선이 취약한 구간이 한 군데씩은 꼭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모든 항공권은 웹투어, 탐항공, 키세스여행사 등 항공 전문 여행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세계 27개 항공사가 결성해 선보이는 티켓으로 연계 구간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장점. 190여 개국, 1300여 도시를 여행할 수 있다. 세계 일주 전문가들은 “희망 여행지를 정리한 다음 제휴 항공사별로 연계 구간을 확인하며 일정을 짜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한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 쪽 노선이 많으며 비교적 규정 이간단해 첫 세계 일주 도전자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2만 6000마일, 2만9000마일, 3만4000마일, 3만9000마일 등 마일별로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구간별 거리에 따라 마일을 계산하는 것이 관건. 항공권 가격은 마일 별로 약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선으로 다양한 루트를 적용해가며 최적의 노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www.staralliance.com

스타얼라이언스 티켓



원월드 티켓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항공권. 다른 티켓은 마일리지 규정을 적용해 비행 횟수 등을 제한하는데 이런 제약 없이 대륙 수에 따라 요금을 결정한다. 3대륙, 4대륙, 5대륙, 6대륙별로 항공권이 나뉘는데 3대륙은 아시아-유럽-북미, 4대륙은 아시아-남서태평양(혹은 아프리카)-유럽-북미, 5대륙은 아시아-아프리카-유럽-북미(혹은 남미)-남서태평양 등으로 구성한다. 노선이 나오면 원월드 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내면 된다. 한 방향으로만 진행해야 하며 20구간까지 여행할 수 있다. <세계일주 바이블>의 저자 심태열 씨는 “호주와 남미 지역에 비중을 두거나, 뉴질랜드-타히티-이스터 섬-칠레의 경로처럼 오세아니아에서 남미 대륙을 둘러보는 일정을 원하는 여행자에게 적합하다”고 말한다. 영국항공, 캐세이퍼시픽 항공 등 11개 항공사가 제휴를 맺고 있다. www.oneworld.com

스카이팀 티켓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델타 항공, 알이탈리아, 베트남 항공, 아에로멕시코 등 19개 항공사의 제휴 항공권. 국제기로 편하게 여행하는 것을 중시하는 이라면 이용할 만하다. 역시 마일별로 가격을 결정하는데 스타얼라이언스와 비슷하다. 에어프랑스가 강점을 보이는 서부아프리카, 대한항공이 직항 노선을 운항하는 몽골이나 러시아, 아프리카 케냐 쪽을 중심으로 돌리고 싶은 이라면 만족도가 높을 듯. www.skyteam.com

세계 일주의 시작은 그 의미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세계 일주라고 하면 전 세계 5대양 6대주 구석 구석 모두 돌아보는 일정을 떠올리지만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3~5대륙을 돌아보고 오는 일정도 세계 일주로 일컫는다.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천천히 각 대륙을 여행할 수도 있다. 오세아니아 쪽은 필수가 아닌 선택. 이동 시간에 대비해 볼 것이 많지 않아 세계 일주를 하는 90% 이상의 여행객이 일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념해야 할 것은 세계 일주 항공권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희망 여행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항공권에 일정을 맞추면 원치 않는 지역까지 둘러봐야 하는 경우가 있다. 루카스여행사의 최진서 대표는 “일단 희망 여행지가 정해져야 최적의 루트를 짤 수 있다. 비행편을 기본으로 구간 구간 배나 기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여행지가 나오면 한 번에 갈 것인지, 나눠서 갈 것인지도 결정할 것. 반드시 한 번에 모든 여행지를 둘러봐야만 세계 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몇 월에 세계 일주를 시작할지도 중요하다. 날씨에 따라 준비물과 볼거리, 축제나 이벤트 등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이 일반화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찾기도 쉬워지면서 최근에는



와인, 아트, 건축, 골프, 액티비티, 레슨 등 주제를 정해 세계 일주를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라고 조언했다.

‘라이징 스타’, 저가 항공 세계 일주

세계적으로 저가 항공이 늘면서 최근에는 저가 항공을 이용해 세계 여행을 계획하는 이가 많다. 저가 항공 브랜드는 54개국 139개에 이르며,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일반 항공기 못지않게 다양한 루트를 갖추고 있다. 각종 프로모션을 활용하면 비용을 더 아낄 수 있다. 에어아시아의 경우 지난해 10월 부산-나리타 노선을 개설하며 편도 기준 7만3000원 특가 행사를 진행했다. <저가항공 세계일주>의 저자 강지준 씨는 “저가 항공 세계 일주를 계획한다면 출발지를 기준으로 가까운 곳부터 순차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비행 구간이 멀면 유류세 등 부가세가 올라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

글 정성갑 기자

세계 일주 경험자들의 조언



<세계일주 바이블> 공동 저자 심태열

세계 일주 항공권을 끊을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세계 일주 항공권은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 출발한 곳에서 한 방향으로 여행을 한 후 다시 출발한 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아시아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유럽

을 보고 남미나 북미로 넘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남미나 북미로 들어갔다 유럽으로 ‘백back’ 할 수는 없다. 아시아 쪽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루트가 되기 때문이다. 갔던 곳을 다시 가는 것도 금지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와서 봐야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세계 일주 항공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일반 항공사에서 구간별로 비행 티켓을 끊을 때보다 50% 가량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일리지 혜택도 뺄놓을 수 없다. 세계 일주를 마치고 나면 10만 마일가량 마일리지 쌓이는데 이 정도면 또 한 번의 장기 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 장거리 노선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다녀올 수도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원월드 티켓, 스타얼라이언스 티켓을 비교한다면? 원월드 티켓의 경우 남미 쪽 취향 노선이 잘 발달해 남미 쪽을 심도 있게 둘러보고 싶은 여행자들이 선호한다. 스타얼라이언스의 경우 오세아니아(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해 북미와 유럽 쪽 노선에 강하다.

추천하고 싶은 세계 일주 루트가 있나? <세계일주 바이블>의 공동 저자인 최대운 씨의 루트! 561일간의 여행으로, 한국에서 유럽까지 약 6개월간 육로 여행을 했고 그 후에는 프랑스에서 원월드 세계 일주 항공권 5대륙을 발견, 1년간 세계 일주를 했다.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모스크바로 날아간 다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몽골-중국을 경유해 귀국했다.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90개국을 돌아보는 데 쓴 비용이 약 4000만 원이었다. 세계 일주에는 수많은 옵션이 있으니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가 항공이 많지 않은데 저가 항공권으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에는 그 개수가 많지 않지만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저가 항공사는 5대양 6대주에 뻗어 있다. 남미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운항 편수가 제한적이지만 미취항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저가 항공을 이용해 세계 일주를 다녀왔는데 세계 일주 항공권 구매 가격이 약 280만 원이었다. 15개 저가 항공사를 이용했는데 비행 횟수는 총 23회다. 이 금액은 텍스와 수화물 비용까지 합한 것이다. 세부퍼시픽, 에어아시아,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에어라비아를 통해 필리핀과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등을 여행했고, 이스라엘과 스페인, 독일, 브라질, 멕시코 등의 구간에서는 이지젯, 부엘링, 라이언에어, 콘도르, 웹젯, 젯블루 등을 활용했다. 나의 세계 일주 동선을 기준으로 최대한 비슷한 경로의 세계 일주 항공권을 끊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니 스타얼라이언스 티켓은 약 740만 원, 원월드 티켓은 약 760만 원, 스카이팀 티켓은 약 700만 원이 나오더라. 세계 일주 항공권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성이지만 제휴를 맺은 항공사끼리 ‘팁 플레이’로 진행되므로 각각의 저가 항공사를 이용할 때보다 노선 연계성이 떨어진다.

세계 일주 루트는 어떻게 정했나? 아시아-중동-유럽-남미-북미-아시아 순이었다.

세계 일주 출발 전 모든 티켓을 다 끊었는가? 입국과 출국 날짜가 거의 확실한 곳을 중심으로 8매 정도만 미리 끊고 개별 구간은 이벤트 정보 등을 주시하며 현지에서 끊었다. 최근 저가 항공이 많아지면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많다. 주요 항공사를 미리 체크한 후 수시로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면 도움이 된다. 다만, 모든 티켓을 미리 끊을 경우 더 머무르고 싶은 여행지에서도 일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저가항공 세계일주> 저자 강지준



국내에 멕시코 음식 맛을 알린 온더보더

전 세계에 1000개가 넘는 매장이 있는 멕시코 레스토랑 '온더보더 On the Border'가 여의도 IFC몰에 국내 여섯 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주메뉴는 파이타 Fajita, 타코 Taco, 퀘사디아 Quesadilla 등 멕시코에서 맛볼 수 있는 정통 음식. 주요 식재료인 스테이크와 치킨, 해산물은 멕시코 정통 그릴 방식인 매스퀴트 방식으로 굽는다. 참나무의 일종인 매스퀴트 칩과 함께 식재료를 굽는데, 은은한 훈연 향이 육질의 고소한 맛을 배가시킨다. 온더보더의 메뉴는 애피타이저와 샐러드, 파이타와 타코, 퀘사디아 등 메인 메뉴와 디저트로 나뉜다. 애피타이저 추천 메뉴는 '구아카몰 라이브 Guacamole Live'. 익힌 아보카도를 으갠 뒤, 양파와 토마토, 고추와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멕시코 요리로 온더보더의 서비스 스태프가 고객 앞에서 직접 만들어준다. 옥수수 가루나 밀가루로 만드는 얇은 팬케이크 같은 토르티야 Tortilla에 각종 재료를 싸 먹는 파이타 요리로는 그릴에 구운 닭 가슴살에 베이컨, 잭 치즈, 멕시칸 랜치 드레싱을 뿌린 '몬트레이 랜치 치킨' 파이타, 스테이크 위에 볶은 양송이와 양파, 치즈를 올린 '스무더드 스테이크' 파이타 등 다양한 메뉴를 준비했다. 취향에 따라 주문할 수 있는 '빌드 유어 오운 부리토' 메뉴가 있으니 한번 주문해볼 것. 살짝 튀긴 토르티야에 꿀을 찍어 먹는 '소파피아'는 이곳에만 있는 멕시코 정통 디저트다. 문의 6137-5682



1



2



3

- 1 마르가리타에 코로나 맥주를 꽂아주는 '온더보더'의 '코로나리타'는 파이타, 퀘사디아와 환상의 궁합!
- 2 밤이 되면 테킬라와 맥주, 칵테일 바로 변신하는 공간.
- 3 본사 디자인팀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그림과 오브제 덕분에 멕시코 정취가 물씬 풍긴다.
- 4 서커스에서 영감을 얻은 '시릴로'의 내부 전경.
- 5 담백한 우설 타코와 피시 타코가 추천 메뉴.

mexican fever

뉴욕, 런던 등 세계의 대도시에서 불었던 멕시코 음식 열풍이 서울에서도 불기 시작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타코, 멕시코인 셰프가 만든 정통 멕시칸 타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서울의 미식가들에게 신고식을 치른 4곳의 레스토랑을 소개한다.



4

멕시코인 셰프가 정통 멕시코 스타일로 요리하는 시릴로

동빙고동에 위치한 '시릴로 Cirilo'는 오랫동안 외식 사업에 몸담았던 구교환 대표가 로스앤젤레스의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던 멕시코계 미국인 셰프 시릴로 로드리게스와 함께 오픈한 멕시칸 레스토랑. 레스토랑은 서커스에서 콘셉트를 얻어 색색의 타이포그래피와 춤추듯 나열한 전구, 극장이 연상되는 화이트와 블랙 메뉴판으로 꾸몄다. 주메뉴는 타코와 퀘사디아, 부리토. 특히 타코용 토르티야는 매일매일 반죽해 즉석에서 구워내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인스턴트 토르티야와 달리 촉촉하고 더 노란 빛깔을 띤다. 7가지 타코 메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우설 타코'다. 소하는 국내에서 흔히 취급하는 재료는 아니지만 멕시코에서는 누구나 즐겨 먹는 대중적인 식재료라고. 그릴에 익혀 잘게 썬 우설은 비릿한 맛이 없고 육질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 부리토 중에서는 그릴에 익혀 두툼하게 썬 목심 스테이크를 넣은 '아사다' 부리토를 추천한다. 치즈의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살린 치즈 퀘사디아도 놓칠 수 없다. 수제 소시지에 마요네즈와 핫 소스, 양파와 콩, 아보카도 사워크림 등 갖은 재료를 넣어 셰프의 비법 레서피로 만든 '시릴로의 핫도그'도 꼭 맛보길! 문의 793-3358



5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그릴파이브타코

가로수길, 홍대거리, 분당에 매장이 있는 타코 전문점 '그릴파이브타코 Grill 5 Taco'는 트럭에서 타코를 팔던 김현철 사장의 열정으로 탄생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타코를 제대로 선보이고 싶었던 그가 가로수길에 1호점을 오픈한 것은 지난 8월. 반짝이는 철제로 카운터와 벽을 마감했으며, 스태프들의 얼굴을 합성한 영화 포스터를 곳곳에 걸어두는 등 재치 있는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음식은 트럭에서 판매할 때 가장 인기 있던 메뉴들을 중심으로 심플하게 구성했다. 타코가 기본 메뉴로 소트 립, 매운 치킨, 두 배로 매운 치킨 중 선택 가능하며, 오리지널 타코와 아보카도 타코 중 고를 수 있다. 볶음밥 한 그릇을 먹는 것처럼 든든한 부리토는 롤과 볼로 준비되어 있고, 채식주의자를 위해 채소로만 만든 '베지 퀘사디아'도 메뉴에 추가했다.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한 '김치 퀘사디아'는 그릴파이브타코가 트럭에서 판매했던 최고의 인기 메뉴. 김치에 볶은 돼지고기를 섞고 모차렐라 치즈를 넣어 쫄깃한 식감과 고소함을 살렸다. 매콤하면서도 살짝 단맛이 느껴지는 김치 소스는 그릴파이브타코에서 개발한 비법 소스로 퀘사디아의 감칠맛을 배가시킨다. 생맥주도 준비되어 있으니 술 생각이 간절해진다면 주문할 것. 밀리의 '엑스트라 콜드' 생맥주는 부드러운 거품과 영하 2°C로 유지되는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문의 515-5549



1, 3 반짝이는 철제 마감에 포스터로 장식한 '그릴파이브타코' 내부 전경.
2 타코는 오리지널과 아보카도 중 고를 수 있다.
4 창가의 홀과 안쪽 홀로 나뉜 넓직한 '후버타코' 전경.
5 후버타코의 멕시코 음식에는 매장에서 직접 만든 매콤한 하바네로 소스가 잘 어울린다.

멕시코 조리법과 소스를 선보이는 후버타코

'테일스포드 오가닉', '사이바나' 등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셰프와 메뉴 컨설턴트로 일했던 류성 대표가 가로수길에 '후버타코 Hoover Taco'를 오픈했다. 입구 쪽 벽은 격자무늬 유리창으로 마감해 낮 동안 채광이 좋고, 벽돌로 마감한 벽은 편안한 분위기를 전한다. 안쪽 홀로 들어가면 오픈 키친에서 토르티야를 굽는 셰프들의 모습도 지켜볼 수 있다. 타코의 기본이 되는 도 dough는 반죽까지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일정한 두께와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수입한 토르티야 전용 기계로 굽는다고. 타코에 사용하는 주재료는 3~4시간 동안 삶아 잘게 찢은 돼지고기, 얇게 썬 삼겹살에 멕시코 향료로 양념한 뒤 생강과 함께 팬에서 구운 생강 삼겹살, 허브와 향신료를 넣어 삶은 쇠고기, 멕시코 허브에 채워 팬에서 구운 치킨 등이다. 메뉴로는 타코, 부리토, 퀘사디아가 준비되어 있으니 취향대로 선택하면 될 듯. 하바네로 habanero 핫소스에 버무린 '하바네로 치킨'과 아보카도와 고기로 속을 채운 토르티야를 기름에 튀겨 만든 '엔칠라다스 Enchiladas'도 별미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중 하나인 멕시코의 하바네로 고추로 만든 매콤한 소스는 매장에서 직접 만든다. 은은한 훈연 향이 배어 있어 타코 맛에 감칠맛을 더하는 '치폴레 Chipotle' 하바네로 소스는 꼭 맛볼 것. 문의 548-0855

글 이영지 기자 | 사진 김용일, 김동오 기자



PARTY & EVENT

Celebrity Style

패션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개성 넘치는 모델들의 행사장 룩, 스타일 지수를 높여줄 겨울 패션 아이템 하나만 고르라면 역시 퍼, 멋지게 변하고 싶은 데 시간이 없다면 해답은 블랙!



미니 원피스에 미니 백을 매치해 귀여운 느낌을 강조한 포피 델레바인.



블랙 & 화이트 투톤 컬러 대비, 스트라이프와 레드 림으로 시선을 끈 강소영.



짧은 길이의 시스루 니트 디자인이 특이하다. 영국 모델 조지아 메이 재거.



배우로 변신중인 제사카 스타. 미우미우 리조트 룩을 입었다.

REAL 'BEST' DRESSER 자기만의 방식으로 멋지게 차려입은 패션 모델들의 각양각색 스타일링.



섹시한 시스루 셔츠 위에 가죽 재킷을 매치한 송해나.



화이트 니트, 롱스커트, 워커, 크로스백, 단정한 머리, 모든 것이 완벽한 링가리자크.



뉴욕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 활동을 시작한 헤박.

BEST ITEM





스키니 진 팬츠에
풍성판 퍼 재킷,
긴 목도리로
포인트를 준
파비 아널드.

STYLE UP, FUR

따뜻하고 멋스럽고 고급스럽기까지.
겨울 스타일링을 위해 이만한 아이템이 또 있을까.



퍼 트리밍
가죽 재킷을
선택한 홍진경의
패션 감각은
여전하다.



화이트 컬러의
퍼 아우터로
소녀스러운 느낌을
강조한 프롤리
아널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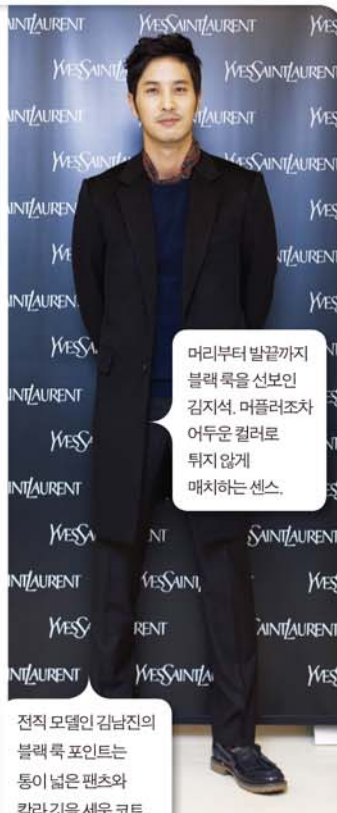


스타일리스트, 컨설턴트,
패션 저널리스트 등
직업이 다양한 아만다
브룩스의 블랙 & 퍼 패션.

MEN IN BLACK

남자를 가장 빠르게 변신시켜 주는 열쇠는
깔끔하고 도시적으로 보이는 블랙 컬러다. ● 글 정려윤기자

선글라스와 하이톱
스니커즈, 실버 링,
헤어스타일 등
전체적인 조화가
멋스러운 김지훈.



머리부터 발끝까지
블랙 룩을 선보인
김지석. 머플러조차
어두운 컬러로
튀지 않게
매치하는 센스.

전직 모델인 김남진의
블랙 룩 포인트는
통이 넓은 팬츠와
칼라깃을 세운 코트.



남자라고
브로치 하지 말란
법은 없다.
옷과 같은 컬러로
첫 도전을 할 것.
유아인



블랙 슈트에
화이트 셔츠를 입고
꼭이 좁은 넥타이를
선택해 깔끔한 멋을
살린 유지태.

Agenda



이상한 나라의 매력적인 팀 버튼

이 시대 최고의 비주얼 아티스트이자 영화감독 중 한 명인 팀 버튼의 전시는 입구에서부터 관람객을 매혹한다. 엄마에게서 나오자마자 탕탱볼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아이, 팀 버튼의 그림에 주인공으로 자주 나오는 '굴 소년'을 유혹하는 '성냥 개비 미녀' 등을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데 위트와 상상력이 넘친다. 이밖에 팀 버튼이 어린 시절부터 그린 습작들,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영화 제작을 위해 만든 캐릭터 모형,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일하면서 그린 회화와 데생까지 총 860여 점을 볼 수 있다. 몇몇 초기 단편영화까지 관람하면 반나절이 훌쩍 간다. 다른 별의 작품처럼 특이한 그림과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상한 나라의 팀 버튼'이 새삼 더 특별하고 더 매력적으로 와 닿는다. 어린 시절의 자유분방하고 톡톡 튀는 상상력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어지는 것도 놀랍다. 12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2, 3층. ● 글 정성갑기자



새해에 만나는 한 폭의 풍류

2013년 새해, 농사짓고 널뛰고 사랑하는 옛 선인들의 일상을 담은 풍속화와 동양적 소재인 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 미술을 만나보자.

조선 회화에서 만나는 실용의 미학 <조선시대의 삶과 풍류> 개항 직후 19세기 말, 한국을 찾았던 서양 선교사들은 어떻게 조선인의 풍속과 생활을 배울 수 있었을까? 한글을 읽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림'은 최고의 교과서였다. 그중에서도 평민 출신의 화가 김준근이 그린 풍속화는 평민들의 관혼상제 등 생활 속 다양한 상황, 물건의 용도 등을 섬세하게 묘사하면서도 아름다움까지 겸비해 선교사들이 그의 그림을 주문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시집가고', '농부 점심(점심)먹고', '녀인 침공하며 으북다리는 모양(여인 의복 다리는 모양)' 등 재미있는 제목의 김준근 풍속화 50점을 1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두가현갤러리와 갤러리현대 본관에서 만날 수 있다. 이밖에 조선 후기 대표적 인 화원 출신 화가 궁제 김득신, 겸재 정선, 해산 유숙, 화산관 이명기, 혜원 신윤복, 궁원 김양기의 풍속화 10여 점, 성인 관람객만 입장 가능한 예술성 높은 춘화 15점까지 감상할 수 있다. 문의 2287-3500



1월에 만나는 매화 <향기가 옵트다> 따뜻한 봄의 기운이 간절한 1월, 일우스페이스가 매화를 주제로 전시를 연다. 사진작가 구성연, 모던 진경산수화가 차규선, 사대부가 주로 그린 문인화의 명맥을 잇고 있는 허달재, 화려한 색감과 문양을 강조하는 홍지윤, 모던 민화를 그리는 홍지연이 모여 자신만의 매화를 선보인다. 매화를 통해 작가 각자의 개성을 살펴보는 것이 관람 포인트! 개, 나비, 학, 호랑이 등 다양한 동물을 동양적 화풍으로 담아낸 홍지연 작가는 '꽃사슴_봄'에서 사슴의 뿔을 매화 가지처럼 표현하고 꽃망울을 그려 넣었다. 1월 3일부터 2월 27일까지. 문의 753-6502



한국 미술의 지금 (Im/Pulse to See)

국제갤러리 출신의 두 큐레이터 이승민, 정혜연이 동빙고동 대사관길에 갤러리 101를 오픈했다. 개관전으로 기획한 <Im/Pulse to See>는 그동안 '재현'에 관심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해온 3명의 작가가 함께한다. 복장이나 신체의 한 부분을 클로즈업해 보여주는 강석호와 미니 어처 오브제를 캔버스 삼아 그리는 김을, 사진을 보는 것처럼 세밀한 화풍을 자랑하는 이광호까지 이들이 모여 조각과 회화 등 총 20여 점을 1월 13일까지 전시한다. 갤러리 101은 이 전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아카데미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739-3093



신개념 3차원 회화 <Be Ready to Run>

캔버스 위에서 막 터진 듯한 계란, 분침과 시침을 캔버스에 두고 튀어오르는 자명종 프레임, 비상구 사인에서 탈출하고 있는 사람 형상... 일본 신에 작가 마츠에다 유키는 2차원의 캔버스에 투명 아크릴을 덧대 3차원의 입체 작품을 구현해낸다. 미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3D 아트의 창시자'라 불리는 그는 착시 현상을 이용한 기존 입체 예술과 달리 실제 3D 작품을 제작한다. 작가의 아버지는 과거 인쇄소를 운영했는데, 종이 안에 갇혀 있는 이미지를 보여 3차원의 세계로 이끌어내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고. 2007년 'Super Egg'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입체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그가 12월 29일까지 금산갤러리에서 전시를 연다. 신작은 물론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시바스 리갈과의 콜라보레이션 작업 등 총 5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최초 대규모 개인전이다. 액자를 박차고 나오는 그의 오브제를 통해 유쾌한 일탈감을 맛보길. 문의 3789-6317

새해의 뮤지컬, 따뜻하거나 뜨겁거나

〈심야식당〉 작년 초, 두산아트센터에서 후원하는 '두산 아트랩'을 통해 첫선을 보였던 뮤지컬 〈심야 식당〉이 1년간의 담금질을 끝내고 동숭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마음속 허기까지 채워주는 음식이 주제이기 때문일까? 뮤지컬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추억을 떠올릴 때처럼 기분을 좋게 한다. 원작인 만화 〈심야 식당〉은 2006년 일본에서 첫선을 보인



〈심야식당〉

이래 누적 판매량이 110만 부를 넘겼고, 우리나라에서는 30만 부 넘게 팔렸다.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심야에만 문을 여는 허름한 식당과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야기.

〈심야 식당〉에 이야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주인공은 다양한 캐릭터와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다. 신주쿠의 간판 스트리퍼 '마릴린', 40대 노총각 '타다시', 게이 바 마담 '코스즈', 험악하게 생겼지만 마음은 따뜻한 야쿠자 '첸자키

류', 쾌활하고 수다스러운 노처녀 3인방 '오차즈케 시스터즈'... 코스즈와 첸자키 류의 귀여운 러브 라인처럼 심야 식당이 사랑방이 되어 펼쳐지는 여러 에피소드도 재미있다.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2012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2월 17일까지.

〈레베카〉 사고로 죽은 전 부인 레베카의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사는 남자 막심 드 윈터와 죽은 레베카를 숭배하며 맨덜리 저택을 지배하는 집사 댄버스 부인 그리고 사랑하는 막심과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댄버스 부인과 맞서는 '나'. 등장인물의 관계만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레베카〉는 영국의 대프니 듀 모리에가 쓴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으로 1940년 앨프리드 히치콕이 영화로 선보여 이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뮤지컬 버전은 등장인물들의 분노와 광기, 애증과 환상이 격렬한 음악과 어우러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 막심役に 유준상·류정환·오만석, 댄버스 부인役に 신영숙과 옥주현이 캐스팅됐다.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LG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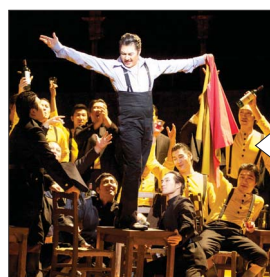


〈레베카〉



피아니스트 지용 리사이틀 '제2의 키신'으로 주목받은 피아니스트 지용이 리사이틀을 연다. 바흐와 부조니의 샤콘느를 테마로 한 뮤직비디오와 미니 앨범에 이은 〈Ji-Yong Exhibition〉의 완결편. 슈만의 '어린이 정경', 브람스의 '인터메초', 슈베르트의 '죽음곡', 바흐의 '파르티타 1번'과 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등을 들려준다. 1월 12일 고양아람누리 이람음악당, 1월 15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시카고 심포니 & 리카르도 무티 현대카드 슈퍼 콘서트 18번째의 주인공은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스트라빈스키의 '요정의 입맞춤 중 디베르티멘토', 부조니의 '투란도트 모음곡',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리카르도 무티는 낭만주의 음악부터 현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자랑한다. 2월 6일과 7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2 오페라 갈라 2012년 선보인 최고의 작품과 2013년 선보일 주요 작품의 하이라이트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웅장한 합창이 매력적인 〈카르멘〉, 청춘 남녀의 연애담을 담은 〈코지 판 투테〉, 오페라와 발레, 한국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창작 오페라 〈청〉, 2013년 탄생 200주년을 맞는 바그너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등을 만날 수 있다. 12월 29~30일 오후 3시·7시 30분(총 4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book

장르별 월간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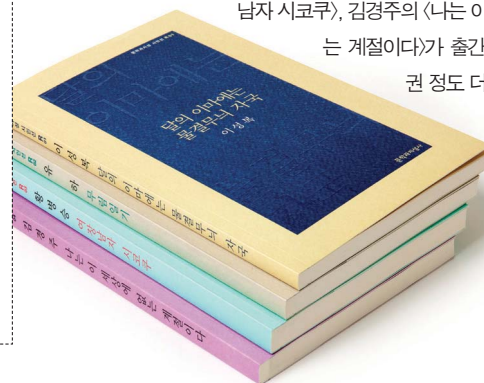
건축을 읽는 겨울

‘좋은 건축가는 좋은 작가이구나’ 하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을 향하여〉나 로버트 벤투리의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을 읽다 보면 그저 집이나 건물 짓는 일이라 생각했던 건축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 일본의 건축가들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으며 그들의 건축론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쿠마 켄고. 건물이 세워지는 곳의 풍토와 기후, 구하기 쉬운 재료를 중시하고 소규모, 저예산 건축의 한계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해하는 작업으로 널리 알려진 그는 자신의 저서 〈약한 건축〉에서 배척하고 대립하는 건축이 아닌, 포용력 있고 유연한 건축의 가치를 묻는다. 주위를 지배하고 어떻게든 존재를 드러내려 하는 강한 건축, 이기는 건축에 대비해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스스로를 지워가는 ‘약한 건축’, ‘지는 건축’이 필요하다는 그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공감을 하게 된다. 2004년 발간된 책이지만 그가 주장한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예전에 비해 그 중요성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느낌이다. 쿠마 켄고 다음 세대의 대표 격인 건축가가 바로 후지모토 소우. 2012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이토 도요, 이누이 구미코 등과 함께한 프로젝트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 화제가 된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한 칸짜리 화장실, 전면이 유리로 된 주택 등을 선보이며 건축에 관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하기도 했다. 〈건축이 태어나는 순간〉은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건축가의 길을 걸으며 작업의 설계, 진행에서 느낀 것들을 정리한 책이다. 자신의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미스 반 데어 로에, 르 코르뷔지에, 루이스 칸 등의 대가는 물론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보르헤스의 소설, 콜로세움과 파르테논 신전 등 음악과 역사, 다도 등 다양한 분야를 오가는 문화 편력 덕에 책 읽기가 더욱 즐거워진다. 자연과 인공물 사이, 주택과 도시 사이를 고민하는 건축가, 부자유하고 형태가 없는 건축을 시도하는 모험가. 이 책을 읽고 나면 분명히 건축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건축가가 얼마나 특별한 일을 하는지 새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디자인하우스.



시집, 부활을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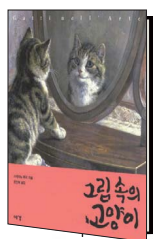
시인 이재하의 캐리커처, 굵은 표지 테두리로 익숙한 ‘문학과지성 시인선’이 지난해 10월 400호를 출간해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현대시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 시리즈에는 황동규, 이성복, 함성호, 최승자 등의 시인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이번 겨울 ‘문학과지성 시인선 R’이 추가되었다. 절판이나 품절 등으로 인해 그동안 구하기 어렵던 시집 중 문학사적으로 의미 깊은 시집을 다시 되살리는 노력인 것. 이름에 붙은 ‘R’은 ‘복간Reissue’의 의미를 넘어 부활 Resurrection로도 해석될 수 있을 듯한데 그 첫 시도로 유하의 〈무림일기〉, 이성복의 〈달의 이마에는 물결무늬 자국〉, 황병승의 〈여장남자 시코쿠〉, 김경주의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가 출간되었고 20권 정도 더 발간될 예정이다.



“더 많은 보수, 더 나은 직함, 다른 종류의 집안일이 우리를 좀 더 만족스럽게 해줄 것임을 믿어야 한다. 이미 가진 것, 제안 받은 것에 만족한다면 다른 뭔가를 요구할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다. 여자는 더 적은 것에도 쉽게 만족한다.” 〈여자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린다 뱌록 외, 한국경제신문.



“당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고통에 면역되지는 않는다. 불행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불행이 삶의 중심에 있다고 단언하는 것과는 다르다. 불행이라는 인간의 공통적인 경험을 어둠 속에서 고집내네 그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불행의 힘을 줄여나가기 시작한다.” 〈가짜 우울〉, 에릭 메이젤, 마음산책.



“수많은 세월을 인간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고양이는 특별히 실용적인 일을 배운 적이 없으며 다른 동물에 비해 더욱 도도하고 한가로운 모습을 유지해왔다. 행동생물학적으로 보면 ‘고양이가 스스로 인간 사회에 들어오기를 선택했다’ 그 반대는 아니다.” 〈그림속의 고양이〉, 스테파노 추피, 예경.



movie

담당 유선에게자

이 겨울, 판타지 영화의 묘미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호두까기 인형, 타조를 닮은 비행기부터 식인 괴물과 거대한 바위 거인까지...

모험을 자극하는 판타지가 이 겨울 우리를 찾아온다.

아름다운 판타지를 꿈꾼다면 <호두까기 인형> 판타지 동화 작가 E.T.A. 호프만의 원작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의 왕>을 1892년 차이콥스키가 발레극으로 재탄생시킨 후 겨울 대표 발레극으로 자리를 잡은 <호두까기 인형>이 3D 영화로 옷을 갈아입었다. 크리스마스트리 위를 마차로 날아오르는 메리(엘르 패닝)와 호두까기 인형, 눈꽃 여왕과 그 주변을 날아다니는 요정 등 환상적인 장면들은 성인 관객들도 충분히 즐길 만하다. 화려한 색채와 3D 영상으로 표현한 화면 역시 겨울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살려냈다. 호두까기 인형을 따라 새로운 세계로 떠난 메리가 그를 도와 쥐 마왕 군사들과 벌이는 고군분투는 영화의 하이라이트. 박진감을 더하며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전개된다. 친숙한 차이콥스키의 음악에 가사를 더한 OST도 이번 작품을 감상하는 또 다른 즐거움. 개봉 1월 3일 개봉.

피터 잭슨이 돌아왔다 <호빗 : 뜻밖의 여정> 피터 잭슨 감독의 모험이 다시 시작됐다. 20세기 최고의 판타지 거장 J.R.R. 톨킨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화한 <호빗 : 뜻밖의 여정>. 영화는 <반지의 제왕 : 반지 원정대>의 시작 지점, 절대반지를 없애기 위해 떠난 모험으로부터 6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용 스마우그에게 풍요로운 에레보르 왕국의 영토를 빼앗긴 스로르 왕(제프리 토머스)의 손자 소린(리처드 아미티지)과 그를 따르는 난쟁이 열두 명이 왕국을 되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난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능가하는 화려한 볼거리를 기대해도 좋다. 12월 13일 개봉.



로봇과 할아버지의 '한 탕' <로봇 앤 프랭크> 평화롭다 못해 떠분하기까지 한 전원 생활을 보내는 전직 금고털이범 프랭크(프랭크 란젤라). 건망증이 심해진 그에게 아들은 건강 보조 로봇 VGC-60L을 선물한다. 식습관부터 운동 습관까지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는 로봇이 못마땅한 프랭크. 하지만 어느 날 로봇이 자신의 전성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물쇠를 여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프랭크는 로봇에게 일생일대 마지막 한 탕을 제안한다. 1월 10일 개봉.



독립 영화의 축제 '선댄스 영화제' 짐 자무시 감독의 <천국보다 낯선>, 존 캐머런 미첼 감독의 <헤드워> 등을 발굴해온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 규모의 독립 영화제 '선댄스 영화제'가 미국 유타 주 파크시티에서 1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개최된다. 올해는 배우 조셉 고든 레빗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감독 데뷔작 <돈 존의 중독>이 감독상 후보에 올라 화제다. 이밖에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가 이번 영화제에서 첫 공개될 예정이다.



혁명가를 사랑한 왕비 <로알 여제>

절대왕정의 권력이 절정에 달하던 18세기 덴마크. 편집증을 앓고 있는 왕 크리스티안(미켈 보에 폴스라르)을 치료하기 위해 고용된 독일인 의사 요한(매츠 미켈슨)은 뛰어난 언변, 어린 왕과 왕비를 감싸주는 포용력으로 신임을 얻어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시대를 앞섰던 파격적인 개혁 법안으로 귀족들의 견제를 받지만 그의 자유로운 사상은 왕비 캐롤라인(알리시아 비칸데르)의 환심을 사게 된다. 세 인물의 정치적 음모와 비밀스러운 로맨스에 호화로운 궁궐의 배경이 더해져 매력적이다. <멜랑콜리아> 등 독특한 영화로 예술성을 인정받는 라스 폰 트리에 감독과 <밀레니엄 : 여자를 증오한 남자>의 각본을 통해 탁월한 재능을 입증했던 니콜라이 아르셀 감독의 공동 연출로 작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과 남우주연상, 미국 AFI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12월 27일 개봉.

新年運勢

열두 방위에서 쥐·양·호랑이·토끼·용·뱀·말·소·원숭이·닭·돼지·개의 형태로 땅과 인간을 수호하는 십이지신十二支神.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열두 동물을 이용해 나이를 세고 날짜를 기능했으며, 1년 열두 달의 신수를 짐치기도 했다.
2013년 계사년을 맞이해 <럭셔리>에서 열두 띠별 패션 토정비결을 준비했다.

EDITOR JANG RAYOON·KIM JIWON PHOTOGRAPHER AHN JOOYOUNG·YUM JUNGHOON

巳 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시기. 집안에서는 가족 간에 따뜻한 정이 피어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단합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에서는 대인 관계가 넓어진다.

재물 운도 좋은 편. 투자를 해두었던 곳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등 수입이 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도 있다. 부부 금실도 좋고 솔로들은 새로운 만남이 생길 수도 있다.

뒷면을 모피로 덧댄 뱀피 패턴 슬리브리스 톱 **자니 헤잇 재즈** Johnny Hates Jazz.

뱀피를 프린트해 이그조틱한 분위기를 자아낸 레깅스 **로베르토 카발리** Roberto Cavalli.

킬라 모양의 뱀피 프린트 목걸이와 볼드한 뱀글 **블랙뮤즈** Black Muse.

곡선을 그리는 독특한 굵이 돋보이는 부티 **스튜어트 와이츠먼** Stuart Weitzman.





A woman is shown in profile, facing left, wearing a full-body white sheep costume. The costume includes a hood with large, fluffy ears and a thick, textured white woolly body. Her eyes are closed, and she has a serene expression. The background is a plain, light color.

未 양

비전이 보이고 희망이 생기며 그에 따라 활동량과 영역이 넓어진다.

따라서 과로할 수 있으니 건강에 신경 쓰고 몸에 맞는 운동을 하며 건강식품도 섭취할 것.

인간관계에 공을 들여야 하는 해이기도 하다. 부동산 구입이나 내 집 마련에 희망이 생길 수 있으며

연봉이 오르거나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 기혼은 2세 만들기에 적당한 해이며

연인들은 청혼가를 부르거나 들을 수도 있다.

하얀 털실로 풍성한 양털 느낌을 재현한 재킷. 클럽모나코Club Monaco.

午 말

경쟁의 시기. 직장 동료들과 승진이나 프로젝트 또는 연봉 등의 일로 경쟁할 수가 있다.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노력할 것. 또 같은 업종의 타 회사와 경쟁으로 과로, 스트레스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발전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친한 사람과는 금전 거래를 하지 말고 동업 또는 투자도 금해야 하는 해.
 집안일로 배우자와 다툼 수 있는데 양보하고 이해해야 한다. 연인들은 밀고 당기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해다.

통나무 말 안장 결이와 송아지가죽 말 안장, 벨벳승마모자와 채찍 모두 **CH 캐롤리나 헤레라CH Carolina Herrera**.

(왼쪽부터) 캐주얼한 룩을 완성하는 블랙 스니커즈 부츠 **지미 추Jimmy Choo**.

리본 모티프 버클을 발목 부분에 장식해 여성스러움을 가미한 부츠 **모스키노 Cheap & Chic**.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송아지가죽 라이딩 부츠. 블랙과 브라운 컬러 모두 **로로피아나Loro Piana**.

부츠의 상단을 곡선으로 처리한 송아지가죽 라이딩 부츠 **CH 캐롤리나 헤레라CH Carolina Herrera**.

무릎을 덮는 길이의 카프 스킨 부츠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빈티지한 색감이 돋보이는 카프 스킨 라이딩 부츠 **샤넬Chanel**.





戌 개

진행하고 있는 일에 성과를 거두고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지도 좋아지고
 실력도 향상되므로 욕심이 생길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형편과 능력에 맞출 것.
 또한 적당하면 만족할 줄 알고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연봉이 오르거나
 이익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채테크와 관련한 꽤 많은 정보도 얻게 될 한 해.
 술로는 애인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으려 하자.

네크라인과 주머니에 모피를 덧댄 롱 베스트 앤디 앤 데브 Andy & Debb. 화이트 레깅스 자니 헤이트 재즈 Johnny Hates Jazz.

스티드 장식이 강렬한 목걸이 미네타니 Minetani. 회색 스톤을 연결한 목걸이 젬마 알루스 디자인 Gemma Alus Design.

오른팔의 블루 톤 큐빅 장식 뱅글 블랙뮤즈 Black Muse. 금색 체인 장식 뱅글 젬마 알루스 디자인 Gemma Alus Design.

투명한 큐빅 반지와 불드한 옐로 반지 모두 폴리 폴리 Folli Follie. 왼팔에 감아 팔찌로 연출한 스파이크 모티프 목걸이 블랙뮤즈 Black Muse.

버펄로 얼굴 모양 반지 엠주 Mzuu.



西 닭

지는 것이 이기는 것. 작은 것부터 양보하고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좋은 해다. 혼자서 하기보다 여럿이 팀워크를 이뤄
일하는 것이 결과가 좋으니 단체로 하는 일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쓰는 돈은 아끼지 않는 것이 좋다. 미혼은 멋진 만남이
생길 수 있으니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
부부와 연인은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뒤에 두른 블루톤의 스톤과 실리콘 소재의 목걸이 엑 송프라세르트 by 반자크Ek Thongprasert by bbanZZac.
(왼쪽부터) 청록색 스톤이 톤보이는 목걸이와 구슬, 큐빅, 컬러풀한 옷핀이 어우러진
목걸이 모두 블랙뮤즈Black Muse. 사파 모양 브로치 제이 티아라J.Tiara.
핑크 골드 줄을 여러 개 레이어드한 브레이슬릿 폴리 폴리Folli Follie. 녹색 곤충 모양 귀고리 엠주Mzuu.
2개의 커다란 보랏빛 크리스털이 화려한 반지 스와로브스키Swarovski.
녹색 큐빅을 촘촘히 세팅한 플리워 모티프 브로치 케이티 앤 켈리Kate n Kelly.
볼드한 진주 목걸이 디올Dior. 물방울 모양 귀고리 미네타니Minetani.

辰 용

배움의 끝은 없다. 모든 일에서 한수 배우는 즐거움이 생기는 해.
또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전환기가 될 수 있다. 자신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고
알맞은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길 것. 남의 재산이나
부동산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좋다.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는 해. 배우자나
연인에게 멋진 사랑의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화려한 용 모티프 반지 버틀러 앤 윌슨Butler & Wilson.



亥 돼지

변화가 많은 한 해가 될 듯. 이사를 하거나 이직 또는
부서를 옮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도전해볼 것.
그럴 때마다 계약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술로는 만남의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연인은
이별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왼쪽 여자 아이의 플리츠스커트 원피스와 모피 베스트 모두 **봉뽕양Bon Point**.

화이트 웨지힐 **세린느Celine**. 자켓빛 레깅스 에디터 소장품.

남자 아이의 체크 패턴 셔츠 **자카디Jacadi**.

데님 셔츠와 팬츠 모두 **펜디 키즈Fendi Kids**.

오른쪽 여자 아이의 오버사이즈 자주색 니트 톱 **펜디 키즈Fendi Kids**.

타탄체크 패턴 반바지 **자카디Jacadi**, 블랙 레깅스 에디터 소장품.





子 취

열었던 물이 녹아 편안하고
자유롭게 흘러가듯 힘든 고비를 벗어나
삶과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한 해가 될 듯하다.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편안해질 수 있다.
취미나 여가 생활을 통해 삶을 윤택하게 할 시기.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지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긴다. 멋진 만남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으니
미혼은 기대해도 좋다.

블랙 테일러드 재킷 **디올Dior**. 이너웨어로 입은 블랙 상의 에디터 소장품.
블랙과 화이트 컬러 대비로 재미를 준 팬츠 **3.1 필립 림3.1 Phillip Lim**.
청키한 굵이 독특한 옥스퍼드화 **프라다Prada**.

卯 토끼

받기보다는 베푸는 한 해가 될 듯. 덕을 베풀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행동하며, 타인과 논쟁이나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고가의 물건 구입은 자제하며 투기성 투자는 하지 않도록 하자. 하지만 자녀에게 하는 투자는 결과가 좋다.

사랑을 줄 때는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에 맞춰주어야 효과가 있음을 명심하라.

브랜드를 상징하는 부엉이 캐릭터를 그려 넣은 칼라장식 **럭키 슈에뜨Lucky Chouette**.

산뜻한 컬러 대비가 돋보이는 사각형 핸드백 **체뚜Cettu**, 도트 무늬 보타이 **패러디 나인Parody Nine**.

프레임을 교체할 수 있는 안경 **그라픽 플라스틱Grafik:Plastik**, 블랙 중절모 에디터 소정품.



申 원승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은 별로 없는 시기. 따라서 일을 벌이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충실한 것이 좋다.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것.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보다 혼자서 하는 것이 결과가 좋겠다.
재테크에 좋은 정보가 생길 수 있는데 잘못된 정보도 함께 오니 조심해야 하며, 남과 금전 거래는 금물.
기혼은 겉으로는 잉꼬부부지만 속마음은 상할 수 있고 미혼은 잘못된 만남으로 마음만 어지러울 수 있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얇은 무브먼트를 장착해 보다 가볍고 편안하게 디자인한 워치 '엑스트라 플랫 톤다 1950'.

시, 분, 초 주요 기능만 탑재해 가독성을 높였다. **파르미지아니 Parmigiani.**

투박한 오토매틱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합한 심미적인 디자인의 '빌리레 울트라 슬림' 워치.

3시 방향에 날짜 표시 창이 있고 생활 방수가 가능하다. **블랑팡 Blancpain.**

시간 디스플레이가 다이얼 중심에서 왼쪽으로 위치하게 해 재미를 줬다. 케이스 지름은 41.9mm.

자사 무브먼트를 탑재했으며 7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랑에 윈 타임 존'. **랑에 윈트 쇠네 A. Lange & Sohne.**

'롱드 솔로' 시계의 기하학적이고 건축학적인 디자인을 재구성한 '롱드 솔로 XL 오토매틱'.

기품 있는 라운드형 다이얼 위에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시간을 두 번 새겼다. **까르띠에 Cartier.**





丑 소

위에서 끌어주고 아래에서 밀어주며, 또 양쪽 사이에서
교량 역할도 할 수 있을 듯,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력도 향상되니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시도해도 좋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나 돈은 아끼지 말 것.
올 한 해는 자신의 머리와 몸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가 될 것이다.
기혼은 집안에 웃음이 피어나고 사는 맛이 나게 된다.

러플 장식 스웨이드 톱과 H라인 스커트, 투박한 소재의 질감을
살린 트렌치코트 모두 **랄프 로렌 Ralph Lauren**.

寅 호랑이

여러모로 주의해야 하는 시기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가능한 한 멀리하고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기존의 일에 충실하면서 건강에 신경 쓸 것.

또한 장거리 이동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돈 잃고 사람까지 잃을 수 있으니

남과 금전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 각종 투자는 신중을 기하고 자제하도록.

연인은 사랑의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강렬한 레오파드 패턴으로 물들인 염소 모피 코트 **랄프 로렌 컬렉션Ralph Lauren Collection**.

관능미 넘치는 레오파드 패턴의 나하이 부츠 **주세페 자노티 by 10 코르소 코모Giuseppe Zanotti by 10 Corso Como**.

손에 쥐고 있는 호랑이 얼굴을 모티프로 디자인한 목걸이 **블랙뮤즈Black Muse**.

운세 제공 조규문 박사(경기대학교 문학 예술대학원 동양철학과 교수대우) | 어시스턴트 이영우 인턴기자

모델 박세라 | 헤어 김귀애 | 메이크업 공혜련 | 네일 김나혜(루미가넷)

제품 협조 그라픽 플라스틱·젬마 알루스 디자인·모스키노 침앤시크·클렘모나코(3447-7701), 까르띠에(1566-7277),

디올(513-3232), 랄프 로렌(545-8200), 랄프 로렌 컬렉션(6004-0134), 랑에 운트 죄네(756-7568),

럭키 슈에뜨·반자크·앤디앤델·펜디 키즈·3.1 필립 림(3446-7725), 로로피아나(546-0615),

로베르토 카발리(6905-3666), 미네타니(3443-4164), 버틀러 앤 윌슨(3445-6427), 보테가 베네타(3438-7682),

봉쎽앙(3444-3356), 블랑팡(3438-6268), 블랙뮤즈·제이 티아라·케이트 앤 켈리·패러디 나인(508-6033),

샤넬(3708-2700), 세린느·지미 추·폴리 폴리·주세페 자노티(3444-1708),

스와로브스키(514-9006), 스튜어트 와이츠먼(3444-1730), 엠주(3443-3065),

자카디(3442-5870), 자니 헤잇 재즈(545-1261), 체투(545-5134), 파르미지아니(3479-1986),

프라다(3218-5331), CH 캐롤리나 헤레라(794-1571)





COORDINATION



winter essential, cashmere

최고급 소재로 사랑받는 캐시미어. 소재 자체가 지니는 특징을 살리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을 고르는 것이 멋쟁이들의 정석이다.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에 맞춘 캐시미어 연출 제안.

EDITOR JANG RAYOON PHOTOGRAPHER YOON MYUNG SUB

10°C sunny

자연스럽게 접히는 티들백 디자인이 멋스러운 튜닉 롱톱 **아노나Agnona**.
버건디 컬러 목도리 **말로Malo**. 팔꿈치를 덮는 긴 장갑 **로로피아나Loro Piana**.
호피 패턴 프레임이 개성적인 선글라스 **엘리자베스 앤 제임스 by BCD 코리아**
Elizabeth and James by BCD Korea.



5°C windy

목 왼쪽에 리본을 묶어 여성스러운 멋을 강조한 원피스

랄프 로렌 블랙 라벨 Ralph Lauren Black Label.

단정한 캐주얼 컬러 테일러드 코트 타임Time.



0°C chilly

언밸런스한 헬라인이 멋스러운 롱 카디건 **자딕 앤 볼테르Zadig & Voltaire**.

작은 스팅글을 장식한 반소매 니트 톱과 체크무늬 숄

모두 **브루넬로 쿠치넬리Brunello Cucinelli**.

단정한 진회색 목도리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베이지색 비니 **말로Malo**. 연분홍색 프레임 선글라스

랄프 로렌 컬렉션Ralph Lauren Collection.



-5°C cold

몸에 밀착되는 블랙 터틀넥 톱과 넉넉한 실루엣의

블랙 코트 모두 루이비통Louis Vuitton.

목에 두른 연분홍색 니트 톱 질 샌더Jil Sander. 한쪽 팔에 들고 있는 양 인형과

폼폰 장식 보라색 모자 모두 로로피아나Loro Piana.



-10°C snowy

파란색 터틀넥 톱과 밑단에 양털 장식을 단 네이비 컬러 코트 모두 아그노나Agnona.
클래식한 회색 목도리 랄프 로렌 블랙 라벨Ralph Lauren Black Label.



-15°C freezing

카키색 니트 톱 **랄프 로렌 컬렉션**Ralph Lauren Collection.

성글게 짠 니트로 목 부분을 덧대 보온성을 높인 코트 **발란타인**Ballantyne.

질은 파란색의 도톰한 목도리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버건디 컬러 솔 **아노나**Agnona. 레이스 장식 미니 클러치백 DVF.

클러치백 위의 투명한 크리스탈 귀고리 **스와로브스키**Swarovski.

어시스턴트 이영우 인턴기자 | 제품 협조 랄프 로렌 블랙라벨(3438-6274),
랄프 로렌 컬렉션(6004-0133), 로로피아나(546-0615), 루이비통(3441-6465),
말로(3438-6273), 발란타인(3444-1730), 브루넬로 쿠치넬리(3438-6207),
살바토레 페라가모(2140-9666), 스와로브스키(514-9006), 아노나(2016-5313),
자딕 앤 볼테르(3446-7725), 질 샌더(517-2076), 타임(540-4723),
BCD 코리아(3447-7701), DVF(3444-1708)



beautiful partner

아름다움이란 궁극의 상호작용이다. 아름다움의 구현을 목표로 삼는 뷰티 업계는 소비자, 전문의, 아티스트, 판매 직원, 사회단체와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의미 있는 도전을 한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8개 코스메틱 브랜드 책임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뷰티 파트너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섰다.

EDITOR SHIM HEEJUNG, LEE ZOOHYUN PHOTOGRAPHER JUNG JIEUN

자랑스러운 '스타' 고객

라 메르·조 말론 런던 브랜드 매니저 지주현 이사+배우 주상욱

최민수·강주는 부부, 엄정화·임태웅 남매, 배우 하정우, 주상욱...

이들을 브라운관이 아닌 현실에서 만나기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다.

라 메르가 입점한 백화점 매장을 방문하면 이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관리에 철저한 유명 스타들이 이곳을 즐겨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 메르 고객 관리 카드에 '상위 1%' 우수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 주상욱은 '레디언트 인퓨전', '오일 오퍼빙 토닝', '리제너레이팅 세럼' 등

한 번 들어서는 좀처럼 기억하기 어려운 제품명을 술술 이야기한다.

"진한 방송용 메이크업은 피부를 강하게 자극하죠. 잘 지우지 않고 자면 트러블로 이어지기 때문에 깨끗한 세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라 메르의 제품이 "불규칙한 생활 패턴에도 언제나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최상의 제품"이라 말하며,

"자극적이지 않으며, 바를 때 느껴지는 편안한 향이 좋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특별한 광고 계획이나 달콤한 선물 공세 없이

유명 스타들이 한 브랜드에 '충성'을 다짐하기란 쉽지 않다.

샤넬과 켈랑의 마케팅 매니저를 거쳐 지난해부터 라 메르와

조 말론 런던을 총괄하고 있는 지주현 이사는 라 메르를

"유행을 좇기보다는 브랜드의 정통성과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들이

많은 브랜드"라 평한다. 또한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견고하다"고 넌지시 자랑한다. 그래서인지

라 메르는 신제품 출시 전 VIP를 위해 시연회를 연다거나

스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과 긴밀함을 유지하면서

이들을 통한 입소문을 최고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가을 '모이스춰라이징 소프트 크림'의 론칭을

앞두고 VIP 고객들과 오찬을 함께했는데

이들 상위 1%의 목소리를 통한 의견 수렴이

상위 10% 고객의 빠른 구매로 이어졌다고.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뛰어넘는

특화된 고객 감동 서비스는 지속될 예정이다.

지주현 이사가 입은 퍼 트리밍 레드 드레스는 퍼블리카아틀리에.

그린 스톤 네크리스는 랍프 로렌. 골드 뱅글은 블랙 뮤즈.

주상욱이 입은 퍼플 컬러 재킷과 터틀넥, 셔츠와 베스트,

팬츠는 모두 프라다.



컬래버레이션의 가치를 높이는 아티스트

코스메 데코르테 니오 도모유키 사장+SYNN 김미선 대표

여자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2가지 수단이 있다.

바로 화장품과 하이힐. 2012년 4월 코스메 데코르테

니오 도모유키 사장이 디자이너 슈즈 브랜드 SYNN과

특별한 협업을 진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코스메 데코르테는

SYNN 김미선 대표에게 '모이스처 리포쉬'를 모티프로

하이힐 제작을 의뢰했고 그녀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러인

보라색과 새틴 소재를 활용해 매력적인 디자인을 완성해냈다.

코스메 데코르테와 SYNN의 만남은 지난 11월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 '모이스처 리포쉬'

20주년 스페셜 에디션 출시의 일환으로 우수 고객에게

증정할 블랙 & 퍼플 하이힐을 제작한 것.

"두 번째 협업을 진행하면서 우수 고객을 직접

만났어요. 제품에 대한 무한 신뢰는 기본,

브랜드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품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신진 작가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코스메 마케팅'의 중심에는

니오 도모유키 사장이 있다. 한국을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라고 표현하는 그가 느끼는

한국 여성의 매력은 무엇일까? "피부와 세련된 스타일

그리고 친절한 에티튜드,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 여성은 '토탈 뷰티' 그 자체입니다."

김미선 대표가 입은 자칫빛 민소매 원피스는 엘리 타하리.

레이어드한 핑크와 블루 컬러의 볼드한 스톤 네크리스는 모두 블랙 뮤즈.

니오 도모유키 사장이 착용한 보타이는 D&G. 프린트 머플러와 슈즈는 슈즈.



특별한 전통을 지켜온 패션 하우스

입생로랑 뷰티·키엘 브랜드 매니저 이선주 상무+패션 모델 이수열·지화섭·최태환·김한수

“패션은 사라지더라도 스타일은 영원하다.” 20세기 최고의 패션 혁명가로 손꼽히는 이브 생 로랑. 그의 스타일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패션을 비롯한 뷰티, 예술 다방면에 걸쳐 훌륭한 트렌드 참고서가 된다. 그는 1966년 여성을 위한 펜츠 슈트인 스모킹 펜츠와 사파리 재킷을 세계 최초로 디자인해 화제를 모았으며, 흑인 모델과 택시도를 입힌 여성을 런웨이에 세운 최초의 디자이너기도 하다. 낮에는 심플하게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을, 밤에는 관능적인 이브닝웨어 스타일을 전개하며, 이브 생 로랑만의 독특하고 멋있는 분위기를 ‘생 로랑 시크’로 완성했다. 이처럼 브랜드의 역사가 혁명 그 자체인 이브 생 로랑은 1960년대에 “내 옷을 입는 여성에게 얼굴을 선사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패션에 어울리는 향수와 화장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이같은 패션 DNA를 간직한 입생로랑 뷰티를 지난해 한국에 다시 선보인 주인공은 로레알 코리아의 이선주 상무. 이미 키엘의 성공 신화를 일으킨 주인공으로 본사에서 이 상무의 탁월한 마케팅 능력을 인정해 입생로랑까지 맡게 한 것. “입생로랑과 키엘은 브랜드 콘셉트, 포지셔닝, 타깃층까지 매우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기존에 담당하던 브랜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 도전 의식이 발동했죠.” 그녀는 세계 톱 10에 드는 명품 화장품 브랜드인 입생로랑 뷰티의 한국 총괄 제의에 아주 잠깐 망설였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은 70~80여 개의 제품을 보고는 단숨에 이 러브콜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클래식 엘레강스에 기초를 둔 패션처럼 화장품 역시 기능은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빠른 시간에 여성을 지적이고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스마트한 제품이 많다. 멀티 펜으로 불리는 하이라이터 ‘뚜쵸 에끌라’와 립스틱처럼 선명한 발색에 바르기 쉽도록 스펀지 팁을 고안한 ‘루즈르 꾸뛰르 베르니 아 레브르’ 등이 대표적. 올해는 메이크업에 이어 스킨케어 제품의 론칭을 앞두고 창업자의 철학을 계승한 패션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왼쪽부터) 모델 이수열이 입은 재킷과 팬츠는 TNGT. 셔츠는 닥스. 슈즈는 미스페.

모델 지화섭이 입은 재킷과 팬츠, 셔츠 모두 던힐. 슈즈는 제나. 모델 최태환이 입은 재킷과 팬츠, 셔츠 모두 버버리.

이선주 상무가 입은 블랙 롱 베스트와 레이스 원피스 모두 케이수 by 김연주. 팬츠는 데레쿠니.

블랙 펌프스는 YSL. 모델 김한수가 입은 턱시도 재킷과 팬츠, 셔츠 모두 제나.



착한 가치를 공유하는 베스트 프렌드

록시땅·멜비타 김진하 이사장+ 한국점자도서관 육근해 관장

이제는 착한 기업이 사랑받는 시대가 되었다. '사회 공헌'이 단순히 이윤 추구를 위한 프로모션이 아닌, 기업의 존재 이유가 되고 있는 것. 프로방스에서 건너온 천연 화장품 록시땅과 유기농 화장품 멜비타는 전통과 인간, 자연에 대한 존중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록시땅의 시각장애인 돕기, 창립자율리비에 보충이 시작한 운동으로, 본사의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지난 2007년부터는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정착시킨 것이 지금 록시땅을 맡고 있는 김진하 이사장이다. 그녀는 2008년 록시땅 코리아의 체너럴 매니저로 입사해, 2011년 이사장으로 승진했다. "시각장애인도 자연에서 얻은 향기롭고 촉촉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그녀는 2011년까지 매년 10월이면 가로수길에서 바자회를 열었고, 판매 수익금을 시각장애 어린이 개안 수술을 위해 삼성의료원에 전달했다. 지난 2012년에는 한국점자도서관 육근해 관장을 만나 시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향수 점자책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 책에는 록시땅 향수에 사용되는 라벤더, 민트 같은 식물 성분들이 입체적인 일러스트와 함께 점자로 설명되어 있다. 육근해 관장은 "이 책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고 말하며, "작은 노력이 앞으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살린 직업 찾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한다. 록시땅 코리아는 앞으로도 이들을 위해 향수 클래스를 열고, 점자 보편화 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왼쪽) 김진하 이사장이 입은 그레이 니트 톱퍼스커트
모두 마이클 코어스. 골드 버튼 오픈토 힐은 모스키노.
지브러 패턴의 네크리스는 블랙 뮤즈.
육근해 관장이 입은 트워드 톱은 앤디앤델, H라인
니트 톱퍼스커트는 모스카. 블랙 컬러 펌프스는 아크네 퀸.
스톤 네크리스는 블랙 뮤즈.



최고의 피부 조연자, '키 닥터'

코티 코리아 프랑수아 소렐 사장+퓨린 피부과 김연진 원장

최근 피부과 시술에 준하는 효능을 자랑하는 홈 뷰티 제품 출시가 한창이다.

수많은 브랜드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최근 반가운 론칭 소식을 알린 것이

바로 필로소피다. 창립자 크리스티나 칼리노는 피부과 전문 시술을

집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효능을 지닌 제품을 만들어냈다.

효능이 피부과 시술에 못지않아 희망을 담은 크림을 의미하는

'호프 인 어 자 Hope in a Jar'에서 알 수 있듯 사랑스러운 제품명과

디자인을 더해 여심을 자극한다. 11월 한국 론칭 이래 바쁜 일정을 보내는

코티 코리아 프랑수아 소렐 사장은 한국이 일본,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필로소피의 첫선을 보이는 것에 기대가 크다. 그는 "아시아의 떠오르는 별,

한국에서 얼마나 좋은 반응을 얻느냐에 따라 일본, 중국 시장 진출이

결정된다"고 말하며 "한국 진출에 앞서 브랜드의 효능과

피부 개선 효과를 제대로 설명해줄 수 있는 브랜드 '키 닥터'

섭외가 시급했다"고 전한다. 필로소피 홍보대사로 발탁된

키 닥터가 바로 퓨린 피부과 대표 김연진 원장이다.

"C'était écrit"란 말이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당연한 결과라는 뜻이지요. 김연진 원장과

필로소피의 만남은 운명적입니다." 김연진 원장 역시

필로소피의 키 닥터로 활동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커졌다고 말한다.

피부과 시술 못지않은 필링 효과를 전하는

'필Peel' 라인은 그녀의 화장대 필수품.

건조한 겨울철 파운데이션이 들뜨고 안색이

칙칙해 고민이라면 김연진 원장의 조언에

귀 기울여보자. "2013년 첫 번째 신제품

'더 마이크로탈리버리 트리플-에시드

브라이트닝 필'로 각질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날개 포장된 코튼 패드로 닦아내면

그만이라 사용이 쉽고 간편해요."

김연진 원장이 입은 플라워 프린트 랩 원피스는 에스까다.

스트랩 슈즈는 펜디. 진주 네크리스는 블랙 뮤즈.

진주 브레이슬릿은 프란시스 케이.

프랑수아 소렐 사장의 네이비 솔리드 재킷과 팬츠.

셔츠와 페이턴트 슈즈 모두 디올 옴므.



뷰티 시너지를 발휘하는 '엑스퍼트'

겔랑 브랜드 매니저 이현경 상무+엑스퍼트팀 김인희 부장·신관홍 팀장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에 등장하는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일이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 즉 10년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180년 역사의 겔랑은 브랜드의 오래된 명성만큼이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2세기에 다다른 브랜드의 역사를 머릿속에 줄줄 꿰며, 전통에서 끝나지 않고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려면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겔랑에 합류한 이현경 상무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1994년 한국에 비오템을 성공적으로 론칭시킨 것을 시작으로, 프랑스와 한국을 넘나들며 존슨앤존스, 로레알 파리, 부루벨 등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실력을 쌓았다. 이현경 상무는 "최근 화장품의 트렌드가 토털 케어를 완성하는 명품 하우스로 기울고 있는데, 그 시초가 180년 역사의 겔랑"이라고 전한다. 그만큼 겔랑에서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 어느 한 분야도 놓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겔랑은 향수로 시작한 브랜드인 만큼 장인 정신이 깃든 퍼퐁머로서 자부심이 있으며, 역사 속 가치와 이야깃거리를 발견해 감각적인 메이크업 제품으로 만드는 데에도 탁월하다. 또한 겔랑은 최상의 원료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다리며 최고의 스킨케어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모든 결과는 겔랑의 각 분야별 전문가인 엑스퍼트 덕분이다. 겔랑 코리아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스킨케어 분야의 전문가 김인희 부장과 메이크업팀의 신관홍 팀장이 바로 그들. '겔랑 엑스퍼트'로 임명된 이들은 전국 겔랑 매장을 순회하며 고객들을 직접 만나 브랜드의 역사와 가치, 제품의 효능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골드 오키드 엑셉셔널 컴플리트 케어 크림', '코드명:5G'와 같이 2013년 기대되는 신제품 역시 이들의 손과 입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왼쪽부터) 김인희 부장이 입은 블랙 재킷은 닐 바렛. 트위드와 레더가 믹스된 원피스는 아르마니 익스제인지. 스트랩 슈즈는 랄프 로렌. 이현경 상무가 입은 시스루 블랙 원피스는 하니와이. 블랙 펌프스는 아크네퀸. 골드 주얼리 초커와 골드 뱅글은 모두 블랙뮤즈.



‘자연주의’를 응원하는 열성 팬

오리진스 제너럴 매니저 김병익 상무 + 지 플레르 이지연 실장

‘헤어 & 보디케어 전문 브랜드’, ‘저자극 자연주의 브랜드’, 뷰티 브랜드 오리진스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다. 새해에는 오리진스의 특별한 ‘변신’을 기대해보아도 좋겠다. 에스티 로더 코리아가 남성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랩시리즈의 성공 신화를 이끈 주역 김병익 상무를 오리진스의 수장으로 발탁한 것. 김병익 상무는 지난 11년간 에스티 로더의 세일즈, 이벤트, 프로모션, 마케팅 분야에서 활동한 것은 물론 아라미스, 랩시리즈의 제너럴 매니저로서도 활약한 멀티플레이어. “안티에이징 전문 브랜드 못지않은 고기능성 화장품이지만 주성분이 자연 원료라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철저한 임상 실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리진스의 매력에 푹 빠진 김병익 상무의 ‘강추’ 제품은 ‘프랜트스크립션 안티에이징 크림’. 라즈베리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추출물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다. 낮에는 플로리스트로 활동하며 밤에는 홍익대학교 도시건축대학원에서 환경설계를 공부하는 지 플레르 이지연 실장은 오리진스의 열혈 마니아다. 그녀는 먹고 마시고 바르는 모든 것을 자연과 연계해 생각한다. “잎이 크고 풍성한 나무 한 그루.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심벌 마크에서 알 수 있듯 오리진스는 자연 그 자체입니다. 제품 뒤편의 성분표를 보면 식물이나 과일 추출물이 주성분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선한 채소를 먹듯 기분 좋게 바르다 보면 피부가 알아서 좋아지지 않을까요?”

김병익 상무가 착용한 스트라이프 재킷과 팬츠, 이너재킷과 화이트 셔츠, 레이스업 슈즈 모두 루이비통. 이지연 실장이 입은 다크한 그린 컬러 실크 튜프와 A라인 스커트 모두 발리, 버건디 컬러 펌프스는 슈콤미보니. 이어링은 페르소나.



고객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뷰티 컨설턴트

랑콤 브랜드 매니저 손은실 상무+뷰티어드바이저 6인

현란한 광고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객관적으로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땐 온라인에 후기로 올라온 제품평을 참조하거나 화장품 매장에 들러 직접 그 제품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다. 이때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결정을 돕는 사람이 바로 매장 직원들이다. 이들의 친절하고 깊이 있는 설명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브랜드 역시 이 점에 주목해 광고 홍보만큼이나 매장 직원들의 교육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전국 72개 매장에 상주하는 랑콤의 직원들은 그야말로

브랜드의 가치를 최전방에서 전하는 ‘친선 대사’죠.”

지난해 랑콤 브랜드 매니저로 부임한 손은실 상무가 입사 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매장 직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녀는 직원들이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섰을 때

고객에게 진정성 있게 제품의 효능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몇 해 전부터 매장 직원을 부르는 방식도 바뀌었다.

판매 사원 대신 BA, 즉 뷰티 어드바이저라는 호칭을 사용해 자부심을 더해준 것. 손은실 상무와 랑콤의 인연은 남다르다.

14년 전 그녀가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로레알 파리에

입사해 화장품 업계에서 모험을 시작한 브랜드가 랑콤이기 때문이다. 이후 로레알 파리를 근거지로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마케팅 경험을 쌓은 후 지난해 한국 땅을 밟았다. “랑콤에서 다시 일하는 것은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기분이 든다”고

소감을 밝힌 그녀는 브랜드를 통해 여성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싶다고.

앞으로도 매장 직원들과 끊임없이 상호소통해 직원들이 곧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전진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손은실 상무가 입은 블랙 & 화이트 실크 드레스는 퍼블리카아틀리에, 스트랩 슈즈는 랄프 로렌.

스톤과 주얼리가 믹스된 네크리스는 블랙 뮤즈, 이어링은 엠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김은경 부매니저, 현대백화점 목동점 이은경 부매니저, 현대백화점 천호점 김윤희 부매니저, 롯데백화점 안산점 한아름 부매니저, 롯데백화점 부산점 임은주 부매니저, 롯데백화점 본점 어은혜 부매니저.



헤어 건형(순수도산본점), 김귀애, 신동민, 애녹, 연지(라뷰티코아도산점) | 메이크업 기은(라뷰티코아도산점), 배혜랑, 한상민(순수도산본점)
 패션스타일링 정은이 | 세트 이은정 | 패션제품협찬 구찌(3444-3169), 닐바렛(3444-1708), 타스(515-9895), 던힐(3446-7725), 데레쿠니(3444-1708),
 디올 옴므(513-3232), 랄프 로렌(6004-0133), 루이비통(3441-6464), 마이클 코어스(3444-1730), 모스카(3447-7701), 모스키노(3444-7725),
 미소페(542-0385), 마쉴 에블린(3446-7725), 발리(542-0385), 버버리(3485-6583), 블랙 뮤즈(508-6033), 슈콤마보니(3447-7701),
 아르마니 익스체인지(3446-7725), 아크네 퀸(3447-7701), 앤디앤델(3446-7725), 에스까다(3014-7419), 엘리 타하리(3444-1730), 엠주(3446-3068),
 제너(543-5313), 케이수 by 김연주(3444-1708), 퍼블리카 아틀리에(515-4877), 페르소나(508-6033), 펜디(2056-9021), 프라다(3442-0939),
 프란시스 케이(508-6033), 하니와이(3444-1730), D&G(3444-1708), TNGT(515-9895), YSL(3438-7628)

2013 SKIN CARE KEYWORD COSME-CEUTICAL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 & 보디 케어로 양분된 국내 뷰티 시장에 '피부과 화장품'이라는 블루오션이 떠오른 건 2000년대 초반. '피부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는 피부과 전문의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화장품Cosmetic과 의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이자 신조어 '코스메슈티컬'이 그 주인공이다. 오랜 임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 믿을 수 있고 광고 마케팅 비용을 성분 개발과 연구에 투자해 집에서 피부과 시술 못지않은 개선 효과를 선사하니 코스메슈티컬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뷰티 지름길, 코스메슈티컬 브랜드에 주목하자.

1 민감성 피부 전문가, 라로슈포제 라로슈포제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643년 전, '라로슈포제 스파'로 거슬러 올라간다. 1370년 나폴레옹의 명령에 따라 유럽 최초의 온천 치료 센터로 설립된 라로슈포제 스파는 1869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으며, 1913년 프랑스 의학 회로부터 하이드로테라피 스파로 등록됐다. 라로슈포제 온천 치료 센터의 피부 기적을 집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동명의 스킨케어 브랜드 '라로슈포제'를 출시한 건 1975년 르바야 박사에 의해서다. 1989년 로레알 그룹에 합류한 라로슈포제는 피부 타입별로 다양한 라인을 갖춰 피부과를 방문한 환자들의 피부 상태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HIT ITEM '에빠글라 K 데일리 리뉴얼 에센스'. 트러블 피부를 위한 각질 제거 에센스. 피지 분비를 원활히 하는 LHA와 살리실릭산이 주성분이다.

2 피부에 바르는 항산화제, 스킨슈티컬즈 키이라 나이틀리, 우마 서먼, 르네 젤 위거, 오프라 윈프리의 '피부 주치의'로 활약하는 스킨슈티컬즈의 슬로건은 '소량의 제품으로 최대의 효과를!'이다. 1997년 안정화된 비타민 C 성분으로 항산화 연구의 초석을 다진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로 듀크대 피부과 명예교수 셀던 R. 핀넬 교수가 노화 방지 키워드에 '항산화'를 추가하며 스킨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스킨슈티컬즈의 제품 철학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하나, 유해 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프리벤트Prevent'. 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프로텍트Protect'. 셋, 항산화 성분을 함유한 제품으로 피부를 가꾸는 '코렉트Correct'가 바로 그것.

HIT ITEM 'CE 페룰릭'. 브랜드를 대표하는 스포이트 타입의 항산화 세럼.



3 대웅제약연구소의 미용법, 이지듀 대웅제약 관계사 디엔컴퍼니가 2006년 론칭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이지듀'는 피부 케양이나 흉터 치료 중인 환자에게 권장하던 'DW EGF'를 핵심 성분으로 활용한 화장품을 선보인다. EGF는 대웅제약에서 세계 최초로 의약품화에 성공한 피부상피세포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로, 상피세포를 재생하는 역할을 하며 피부 세포분열과 성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보습은 물론 주름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대웅제약의 '새살연고'에도 사용되는 'DW EGF'를 함유한 이지듀는 2008년 전국 피부과 의원에 유통되며 사랑받고 있다.

HIT ITEM '이지듀 EGF 리페어 컨트롤'. EGF 10ppm을 함유한 노화 집중 관리 제품이다.

4 한국 정통 CM 브랜드, CNP차앤박화장품 올해로 탄생 13주년을 맞은 CNP차앤박화장품은 한국인의 피부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을 만들고자 피부과 전문의 50여 명이 설립한 정통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다. 국내 코스메슈티컬 브랜드의 선두 주자로서 '한국인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만들자'는 취지 아래 수익의 10% 이상을 연구 개발 센터에 투자한다. 양질의 원료를 고집하고, 원가가 비싸더라도 피부에 유익하다면 성분 함량을 극대화할 정도다. 'C1모이스춰라이저'에는 세라마이드가 시판 보습 크림 대비 최대 10배 이상 들어 있다.

HIT ITEM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 예민한 피부 진정에 효과적이다.

5 독일 넘버원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유세린 유세린은 112년 독일 피부 과학의 정수를 담은 스킨케어 브랜드다. 저명한 피부과 전문의와 긴밀히 협력해 탄생한 유세린은 매년 최신 피부 과학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선보이며, 바이어스도르프 피부 과학 연구소의 임상 실험을 거쳐 모든 제품의 안전성과 그 효과를 증명한다. 코엔자임Q10의 안티에이징 효과와 감초 추출물의 항염 효과를 밝혀내 제품화한 것도 유세린이다. 그뿐 아니라 히알루론산을 최초로 크림 타입으로 상용화했으며, 2003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연구 주제인 '아쿠아포린'에 주목해 남조류 추출물 글루코 글리세롤 성분을 활용한 '아쿠아포린 액티브' 라인을 출시한 바 있다.

HIT ITEM '하이알루론 필러 아이 크림'. 눈가, 이마, 입가에 필러를 시술한 듯 볼륨을 되찾아준다.

6 콜레트에서 찾은 보물, M.E. 스킨랩 M.E. 스킨랩은 약사 출신인 미셀 에브라드가 설립한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다. 관절염을 앓던 그녀는 무릎 수술 이후 상처 부위에 센텔라 아시아티카Centella Asiatica 추출물을 바르면서 그 놀라운 피부 재생 능력을 확인했다. M.E. 스킨랩 전 제품에 재생, 항염, 항산화에 탁월한 센텔라 아시아티카를 정제한 'MA2 콤플렉스'가 함유되어 있으며 전통 조제 방식인 밤과 연고 타입으로 만날 수 있다.

HIT ITEM '에센스 27'. 10코르소고모 청담점과 롯데백화점 에비뉴엘점에서 판매한다.

7 자연과 과학의 만남, 에스테메드 에스테메드는 31인의 피부과 전문의들이 그동안의 임상 자료를 토대로 한국 여성의 피부 고민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자연 성분에서 찾아내 제품화한 자연주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다. 미백 라인 제품 중 '씨 플러스 레이저 화이트'는 특허 받은 비수계 유효 시스템을 제품 개발에 활용한 것이 특징. 비타민C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것은 물론 세포 속 멜라닌을 관리한다. 에스테메드는 공식 온라인 몰(www.drskincare.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HIT ITEM '씨 플러스 레이저 화이트'. 순수비타민C를 함유한 미백 에센스.



8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바이오더마 바이오더마의 역사는 1977년 프랑스의 약학 생물학자 장노엘 토렐이 세계 최초로 세제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샴푸를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피부는 ‘에코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응급 처치에 그칠 게 아니라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이런 비전 아래 1985년 일시적인 ‘반짝 효과’가 아닌 피부 고민의 근원에 작용하는 바이오더마를 출시했다. 피부에 남아 있는 메이크업 잔여물은 흡착하고 빈자리는 수분으로 채우는 ‘미셀 솔루션’을 화장품에 적용한 ‘센시비오 H₂O’는 브랜드의 상징. 이외에 민감성 피부를 위한 ‘톨레리딘’, 지성 피부를 위한 ‘폴루이드 액티브’, 문제성 피부를 위한 ‘에코디펜션’ 등 특허 성분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HIT ITEM ‘센시비오 H₂O’. 메이크업 잔여물은 말끔하게 지우고, 수분 보호막은 그대로 유지하는 저자극성 클렌징 워터.

10 민감성 피부 지킴이, BRTC

프랑스 화학자 르네 모리스 가테포세는 어느 날 실험을 하다 손에 화상을 입었다. 그때 근처에 있는 라벤더 추출액에 급히 손을 담그니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뿐더러 상처나 수포 없이 빠르게 치유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라벤더의 자연 치유력을 기반으로, 피부과 전문의들과 손잡고 BRTC를 론칭했다. 90여 종에 이르는 BRTC 전 제품 모두 피부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해 믿고 사용할 수 있다.

HIT ITEM ‘바이탈라이저 크림’. 미백과 주름을 한 번에 관리하는 비타민 크림.

11 약국 화장품의 대표 주자, 비쉬 비쉬는 1931

년 프랑스 비쉬 온천수의 효능을 눈여겨본 프로스퍼 알레 박사가 만든 스킨케어 브랜드다. ‘여성 아름다움은 피부 건강에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1955년 약국에 유통하면서 주목받았다. 올해로 82주년을 맞은 비쉬는 피부과 전문의들의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능이 뛰어난 제품을 선보이며 80여 개국에서 인정받는 약국 화장품의 선두 주자다.

HIT ITEM ‘놀마덤 트리악티브 안타-임퍼펙션 하이드레이팅 크림’.

12 이제는 EGF 코스메틱 시대! 셀리시스 대웅제약 생명 과학연구소 기술 연구진과 아산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이 전하는 피부 래서피에 귀 기울여보자. 셀리시스는 19년간의 연구 과정과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 리포솜 형태의 고농도 상피세포 성장인자(EGF)를 함유한 화장품들을 선보인다. 식약청 허용 기준에 맞는 국내 최대 함량 10ppm을 함유하며 펩타이드, 세라마이드, 아르간 오일 등 유효 성분을 배합해 피부 탄력 강화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HIT ITEM ‘셀리시스 EGF 부스팅 앰플 세트’. 사용 직전 혼합하는 안티에이징 앰플이다.

9 닥터 코스메틱, 고운세상 고운세상 코스메틱은 8명의 의학박사와 33명의 피부과 전문의, 100명의 피부 전문 에스테틱 원장이 공동 개발한 닥터 코스메틱 브랜드. 피부과 시술 이후 빠른 회복을 돕는 제품 라인이 특히 유용하다. 기미, 잡티 제거를 위한 ‘맥스 G’와 ‘엑셀 브이’ 시술을 받은 다음에는 ‘화이트 아우라 비타-20 캡슐 앰플’과 ‘마일드 유브이 커팅 선크림’을, 여드름 치료를 위한 ‘테라클리어’ 시술 이후에는 ‘스팟 리페어링 세럼’을, 날렵한 V 라인을 되찾아주는 ‘올셰라’와 ‘에어젠트’를 시술한 다음에는 ‘악티펍 리커버리 크림’을 처방해 빠른 회복을 돕는다.

HIT ITEM ‘고운세상 브라이트닝 밤 SPF 30 PA++’. 미백, 자외선 차단이 이중 기능성 비비 크림으로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닥터의 조언 한마디

10인의 피부과 전문의가 말하는 '새해, 이것만 기억하면 피부 나이 두 살 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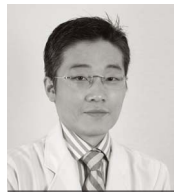
열을 피하라 “자외선에 의한 광 노화와 열에 의한 열 노화는 피부 손상을 앞당깁니다. 무심코 쬔는 헤어 드라이기 바람, 창가 자리의 따가운 햇빛, 뜨거운 물 세안 등 사소한 일이지만 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콜라겐 분해 효소가 증가해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생기기 주의하세요.” _큐브스피부과 황도현 원장



화장품 바꿀 때 신중하라 “환절기에는 화장품을 바꾸지 마세요. 봄가을은 피부 보습도가 떨어지고

피부가 민감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 혹은 겨울에 새로운 화장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_비앤씨피부과 김상덕 원장

잠을 충분히 자라 “잠이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칙칙해지며 다크서클, 여드름 등 각종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숙면이 필수이며, 세포 재생이 활발해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엔 꼭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_BK피부과 신영익 원장

자외선 차단에 힘써라 “피부에 열 자극을 가하는 자외선B를 차단하는 SPF 지수와 기미와 잡티 등 색소 질환을 유발하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PA 지수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스키장에 갈 땐 SPF 40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길!”

_청담 고운세상피부과 안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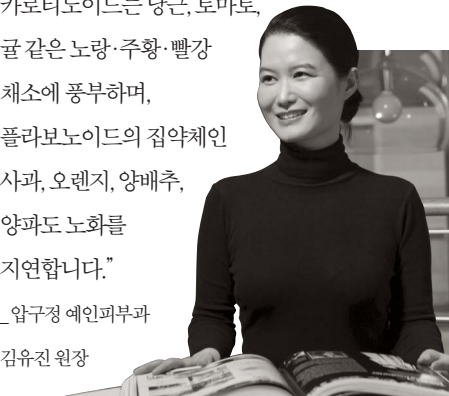
지성 피부일수록 보습에 신경써라 “좋은 피부를 위한 3대 필수 조건은 꼼꼼한 세안,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그리고 수분 공급입니다. 지성 피부는 번들거림이 싫어 기본적인 스킨케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가벼운 수분 에센스로 대체해서라도 유·수분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_차앤박피부과 건대입구점 김세연 원장



소식하라 “노화의 주원인인 독성 산소를 생성하는 데에는 무분별한 식습관도 한몫을 합니다. 필수영양소를 제외한 불필요한 식품은 섭취를 제한하라고 조언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컬러 푸드는 독성 산소 제거의 중요한 키워드!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카로티노이드는 당근, 토마토, 굴 같은 노랑·주황·빨강 채소에 풍부하며, 플라보노이드의 집약체인 사과, 오렌지, 양배추, 양파도 노화를 지연합니다.”

_압구정 예인피부과 김유진 원장



사용하는 제품 수를 줄여라 “지나치게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됩니다. 피부를 가꾸는 주요 성분뿐 아니라 방부제와 향료 등 좋지 않은 성분까지 피부에 흡수되고, 이런 성분들이 차곡차곡 쌓여 피부에 자극을 주면서 결국 노화를 앞당기죠.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수분크림 등 꼭 필요한 기초 제품 3~4개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_바이어스도르프 메디컬 매니지먼트 총판 율리아 젤렌스키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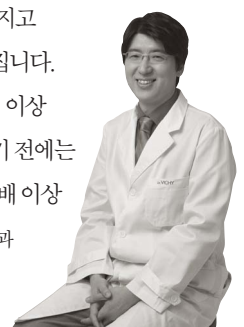
비타민을 챙겨 먹어라 “속부터 아름다워지는 비결, 이너 뷰티를 위해 보조제를 챙겨 드세요. 피부 건강을 위해 코엔자임Q10, 비타민B 복합제, 비타민C를 추천합니다.” _HtoO 항노화센터 이용 원장

디톡스를 위한 건강 도시락 챙기기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면 결코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도시락을 준비해보세요. 평일의 시작과 끝인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약속이 많은 편이니 두 날을 제외하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점심을 ‘디톡스 도시락’으로 대체합니다. 제철 채소와 당분이 많지 않은 과일로 구성하면 몸은 가벼워지고 피부는 좋아집니다.”

_명동 클린업피부과 김지영 원장



너무 자주 씻지 말라 “너무 안 씻어도 문제지만 자주 씻는 것도 피부에 좋지 않아요. 유·수분 균형이 흐트러지고 피부 보호 장벽이 약해집니다. 얼굴도 몸도 하루에 2회 이상 씻지 않도록 하고 잠들기 전에는 보습 제품을 오전의 1.5배 이상 듬뿍 바르세요.” _해피부과 김승일 원장



건축조명 디자이너 빛으로 부리는 마술

조명이 또 하나의 디자인이자 캐릭터, 전략이란 인식이 확대되면서 건축물 설계나 구상 단계에서부터
건축 조명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건축물을 캔버스 삼아 보다 크고 근사한 조명의 세계를 보여주는 이들이 그린 '그림'!

“건축물과 한 몸이 되도록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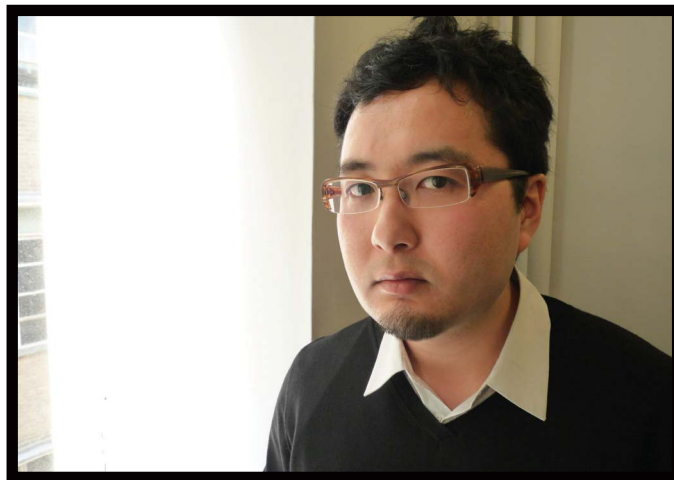
호아르 레아 라이팅Hoard Lea Lighting 수석 디자이너 조만상 최근 그의 이름은 영국 현지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된다. 런던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스트랜드 이스트Strand East에 이케아 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향후 10년간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는데 이를 기념하는 스트랜드 이스트 타워의 조명 디자인을 그가 담당했다. 금속공예를 전공한 경력과 '키네틱 조명' 등 테크놀로지에 강한 덕분에 모던하고 입체적인 조명 디자인을 한다는 평을 듣는다. 최근 영국의 조명 전문 컨설팅 기업 호아르 레아의 수석 디자이너로 스카우트 된 그를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스트랜드 이스트 타워는 조명을 이용해 다양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고 들었다. 스트랜드 이스트 타워는 대각선으로 꼬인 72m의 목조 구조물이 16개의 철제 링에 고정된 형태다. 내부 구조물 없이도 45m의 건축물이 버틸 수 있는 건 목재의 탄성을 이용해 격자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 조명 디자인의 역할은 이런 구조물의 재료와 질감 그리고 매력을 최대한 강조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내부에는 LED 프로젝트를, 외부에는 LED 도트 매트릭스 시스템을 설치했다. 전자는 내부를 다양하게 비춤으로써 목재의 질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후자는 타워 외부에 빛의 레이어를 만들어 대낮에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매력을 창조한다.

900년 역사의 세인트 조지 교회 조명 프로젝트도 유명하다. 교회 중앙에 있는 샹들리에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 간접조명을 사용했다. 샹들리에에는 1800년대 초에 제작한, 촛불을 올려놓고 쓰는 디자인으로 빅토리아 & 앨버트 뮤지엄에서 대여했다. 문제는 샹들리에 아래 의자에 앉아 예배를 볼 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조도를 확보하는 것. 샹들리에의 조형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전체 공간과 어울리는 조명 시스템을 고안해야 했다. 그 결과가 바로 '윈칭 시스템winching system'으로 조도에 따라 샹들리에와 그 위쪽으로 설치한 원형 조명의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된다.

유럽은 오래된 건축물의 수리, 보수 작업이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역사적 건축물의 레노베이션 작업을 일컬어 '헤리티지 프로젝트heritage project'라고 부른다. 영국의 경우 건축물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따져 등급을 매기는데 세인트 조지 교회는 '1등급'이었다. 조명 디자인은 물론 배선과 설치 방법에 이르기까지 교회 운영위원회와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쳤다.

조만상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왕립 미술 학교Royal College of Art를 졸업한 후 조명 디자인 컨설팅 & 조명 디자인 회사 '스튜디오 메이크라이트Studio Make Light'를 설립하면서 조명 디자인을 시작했다. 현재, 런던에 거주하며 헤리티지 프로젝트를 포함해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팀에서 일하는 김수미 디자이너가 아내로 언젠가 '빛과 보석이 콘셉트가 되는 조명'을 만들고 싶다고.



그 자체가 움직이는, 키네틱 조명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무언가의 움직임과 그 메커니즘에 관해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였다. 장 텅겔리Jean Tinguely, 레베카 호른Rebecca Horn, 파나마렌코Panamarenko 등의 작품에 매료된 것이 그 배경이다. 작년에는 LG 아트센터와 함께 키네틱 조명을 이용한 무대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했다.

영국에서 조명 디자이너의 입지와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 영국의 건축 프로세스는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가 정한 11단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조명 디자이너의 경우 건축물의 콘셉트와 디자인을 잡는 단계부터 참여하는데 큰 프로젝트의 경우 마스터플랜을 짤 때부터 '투입'되는 경우도 많다. 조명 디자이너 역시 건축가처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과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최근 조명 분야에서 자연광 분석 작업이 활발하다고 들었다. 계절에 따라 실내로 유입되는 자연광의 광량이나 색온도를 계산해 인공조명을 컨트롤하는 데이터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미래에 지금의 조명 기구들이 교체될 것을 염두에 두고 조명 디자인의 재활용 방법까지 반영하는 움직임도 있다.

좋은 건축 조명 디자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적절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빛을 낭비 없이 사용하는 것. 최근 디지털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한 고층 건물이 건축물이나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럴 때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뭐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격언이 떠오른다. 건축 조명 역시 절제가 최고의 디자인을 만든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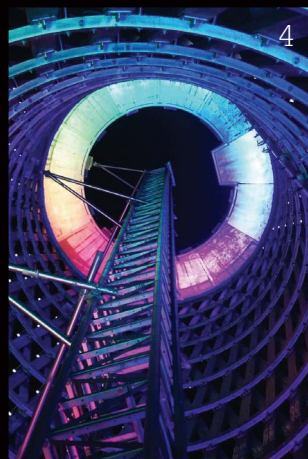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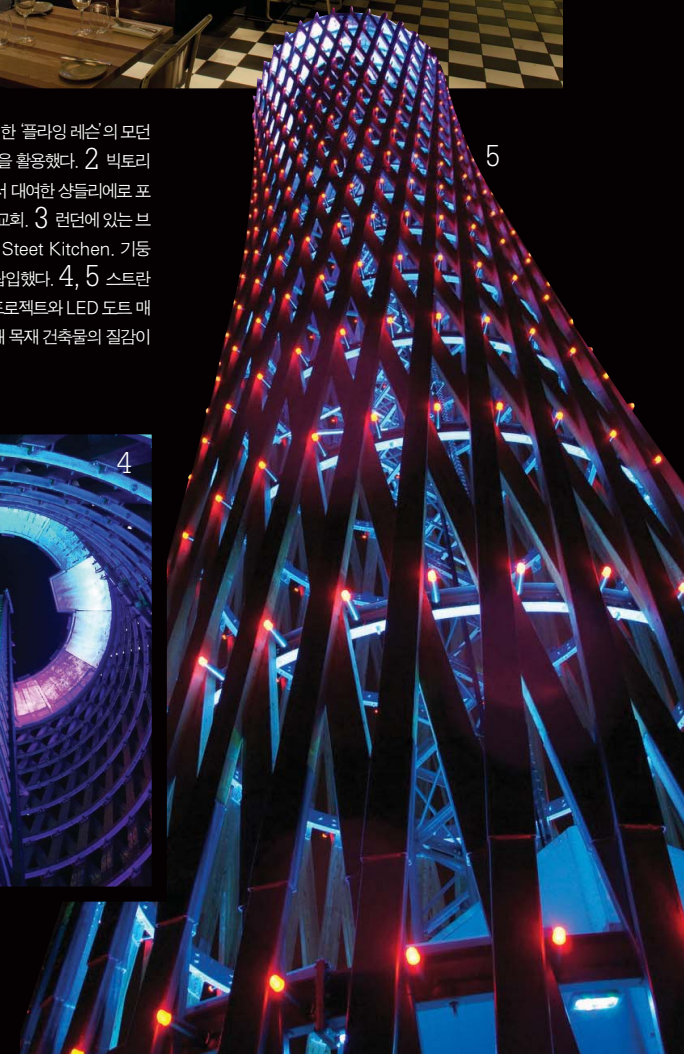
3

1 LG 아트센터와 협업한 '플라잉 레슨'의 모던 발레 무대. 키네틱 조명을 활용했다. 2 빅토리아 & 앨버트 뮤지엄에서 대여한 상들리에로 포인트를 준 세인트 조지 교회. 3 런던에 있는 브레드 스트리트 키친 Bread Street Kitchen. 기둥 구조물 내부에 조명을 삽입했다. 4, 5 스트란드 이스트 타워. LED 프로젝터와 LED 도트 매트릭스 시스템을 장착해 목재 건축물의 질감이 돋보이도록 했다.

5



4





1



2



3



4

1, 3 지면과 벽면 등에 설치한 간접조명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낸 제주도 나인브릿지 골프장과 안양예술공원의 알바로 시자 홀. 2 천장에서 늘어뜨린 원형 조명을 통해 테이블의 집중도를 높인 '썬네 드 세프' 프로젝트. 4 건물 외부에 태양 궤적 장치인 헬리오스테이트 시스템을 설치해 내부에 태양빛이 떨어지도록 한 국립중앙박물관. 5 청덕궁 야간 조명은 버선코처럼 올라간 처마선을 돋보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5

인간의 심리와 생리까지 고려한 ‘예술’

비츠로 고기영 대표 ‘조명 유관순’! 건축 조명 전문 기업 비츠로 고기영 대표의 애칭이다. 그녀가 건축 조명 디자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가 1992년. 청계천이나 을지로 일대에서 파는 전기 시설이나 전등을 조명과 동의어로 생각하던 때부터 경력을 쌓아온 데 대한 주변인들의 인정이 담겨 있다. 지난 20년간 그녀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창덕궁 야외 조명 마스터플랜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 한강 예술섬, 루이 비통 인천공항점, 안양예술공원 알바로 시자 홀 등의 조명을 맡았다. 최근에는 카타르와 두바이 쪽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조명 디자인을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온 때가 1992년이다. 당시에 비하면 조명 디자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진 것 같은데 어떤가? 예전에는 조명과 디자인을 연결 짓지 못했다. 조명은 곧 전기나 형광등과 동의어였으니까. 그간 일반인들의 인식은 높아졌지만 사회·교육적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조명 디자인이나 건축 조명을 가르치는 학과나 대학교가 하나도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파슨스 디자인 스쿨 조명 디자인학과에서는 주로 무엇을 가르치나? 총 6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30학점은 디자인, 또 다른 30학점은 엔지니어링에 관한 내용이다. 디자인 수업에는 심리학, 생리학, 문학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조명이 인간의 심리나 신체 밸런스, 정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 수업 때는 실제 조명을 관리·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반사판 설계나 등기구 디자인, 회로 구분, 조도와 휘도 계산 등을 배운다.

조명 디자인이라고 하면 쉬운데 건축 조명 디자인이라고 하면 뭔가 어려운 느낌이다. ‘건축 조명 디자인’을 쉽게 설명한다면? 대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면 “자신의 얼굴이 가장 예쁘게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와라” 하고 숙제를 낸다. 조명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결과물을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를 위한 최적의 조명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된다. 건축 조명 디자인도 이와 비슷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건축물 자체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고 아름답게 느끼는 빛을 찾아주는 것. 조명의 종류, 색온도와 조도, 설치 방법에 따라 수많은 디자인이 가능하다.

인테리어 조명 디자인과 건축 조명 디자인의 차이점은? 인테리어에서 조명은 공간에 포인트를 주는 ‘펜던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건축물에서 조명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역할을 한다. 건물 내외부의 빛 흐름과 캐리더, 느낌까지 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건물의 스케일과 공간감, 창문 위치와 모양, 야근의 빈번도, 외부 마감재의 종류, 선큰 가든 sunken garden의 유무 등 건축가적 입장에서 전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그간 작업한 결과물 중 대표 작품을 예로, 어떤 전략과 디자인을 활용했는지 들려달라. 안양예술공원 내에 건축가의 이름을 딴 알바로 시자 홀이 있다. 알바로 시자 특유의 시적이고 차분한 건축미를 살리기 위해 조명을 벽면 뒤나 아래쪽에 숨겨 빛이 은은하게 번지도록 했다. 천장 아래쪽에 조명 트랙을 걸어 작품을 비추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건축미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가장 도전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시간을 담은 건축’이 설계 콘셉트라 내부에서도 빛의 움직임을 느꼈으면 하는 것이 건축가의 바람이었는데 태양 빛이 내부 바닥까지 떨어지기에는 여러 모로 힘든 상황이었다. 건축물 바깥에 유리판으로 제작한 태양 궤적 장치이자 소형 인공 태양 시스템인 헬리오스테이트 시스템을 설치해 경사진 반사판을 통해 튕겨진 햇빛이 바닥에 닿도록 했다. 가장 애착이 가는 프로젝트는 사업 초창기에 진행한 제주도 나인브릿지 골프장 조명 작업. 비밀의 숲 같은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 가로등을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조명을 지면에 설치해 나무와 건물 등을 은은히 비추도록 했다. 창덕궁 야간 조명은 버선코처럼 살짝 올라간 처마 선을 강조하기 위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빛을 쏘는 ‘업라이트’ 조명을 사용했다.

고기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간 디자인과 환경디자인을 전공하고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건축 조명 디자인을 배웠다. 몇몇 조명 설계 회사를 거쳐 1998년 극장과 박물관, 오피스, 리조트 등의 내·외부 조명 디자인을 설계하는 비츠로를 설립했다. 그녀는 각 공간의 환경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기능에 맞는 사람 중심의 빛환경을 계획해야만 최고의 조명 디자인이 나온다는 점을 근거로 건축 조명은 또 하나의 과학이라고 말한다. 비츠로 홈페이지(www.bitzro.co.kr)에서 그간의 프로젝트를 둘러볼 수 있다.



건물 벽면 전체에 LED를 이용한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로 화제가 된 서울 스퀘어의 조명 디자인도 유명하다. 리모델링을 통해 오피스 빌딩으로 바뀌면서 주간과 야간의 이미지 구분이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외벽을 미디어 파사드로 활용하기 위해 외벽 마감재인 황도색 테라코타에 구멍을 뚫고 1만5000개의 LED를 넣었다. 로비의 콘셉트는 하늘로 잡아 구름 형태의 조명을 설치했는데 색온도 자동 조절 시스템을 장착해 아침에는 색온도를 높이고 저녁에는 낮춰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쾌적함을 느끼도록 했다. 사무실 천장 조명의 경우 기존 조명 방식을 탈피, 등기구의 효율을 높이는 반사판 설계를 통해 아늑한 느낌을 주면서도 등기구의 전체 수량을 3분의 2로 줄였다. 전력 소비도 그만큼 줄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 조명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편이다. 조명을 잘못 쓰는 건물의 사례도 그만큼 많을 것 같다. 한 쇼핑몰의 경우 입주 상인들 간에 경쟁이 가열되면서 자신의 가게에 진열한 상품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공간의 밝기를 계속해서 높였다. 어느 순간 1000룩스를 넘어 2000룩스까지 갔는데 이런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편한 기분이 든다. 일반적인 사무실의 밝기가 700~800룩스. 빛은 무조건 밝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어두운 빛, 따뜻한 빛, 평온한 빛, 영롱한 빛 역시 좋은 빛이란 걸 알았으면 좋겠다.

“도시의 조명이 곧 나의 웰빙”

아부다비 시 라이팅 전문가 마틴 밸런타인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건축 프로젝트와 도시환경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곳 중 하나가 바로 아랍에미리트다. 장 누벨과 프랭크 게리가 참여한 루브르와 구겐하임 박물관 공사가 한창이고, 안도 다다오가 설계하는 해양 박물관 건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최고의 문화, 건축 강국이 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인데 조명 역시 주요 어젠더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영국 출신의 마틴 밸런타인 Martin Valentine은 ‘조명의 선진화와 미래화’를 위해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지난 2010년, 스카우트한 인물로 아부다비에 있거나 새로 들어서는 주요 건축물과 공공시설의 조명 전략을 총괄한다.

아부다비에서 당신의 미션과 역할은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 다방면의 전문가를 스카우트해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선두에 아부다비가 있다. 가까운 미래에 건축, 예술 등 분야에 걸쳐 ‘세계 톱 5 도시’가 되는 것이 아부다비의 목표다. 내가 하는 일은 건축가 등과 협업해 조명 디자인과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다양한 공공 건축물의 조명을 디자인하고 일선 관리자들에게 빛의 흐름과 효과, 조명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일도 한다. 최고 수준의 조명 기준을 만든다고 할까?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팅 핸드북> 같은 책자를 편찬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아부다비에는 ‘에스티다마 estidama’ 가이드라인(지난 2010년 아부다비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발표한 법령으로 아랍어로 ‘지속 가능성’을 뜻한다. 에너지 절약 등 7개



마틴 밸런타인 런던의 명문 바틀릿 건축 대학을 졸업했으며 세계 최고의 건축 설계 사무소 에이콤 Aecom의 라이팅 그룹 디렉터로 일했다. 영국의 남극대륙 기지 조명부터 중동의 다양한 빌딩 조명까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BBC 사옥, 런던 자연사 박물관 파사드 조명도 대표작이다. 그는 “라이팅 전문가로서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건축주나 고객의 입장에서 나의 의견과 제안을 되돌아보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을 자신의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부문의 점수를 더해 건물의 등급을 구분하는데 신규 건축물은 모두 1등급을 받아야 한다)이 있다. 25년째 건축 조명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데 그간의 시행착오, 경험, 그 과정에서 배운 노하우 등을 모두 쏟아부어 새로운 그림을 창조하는 느낌이다.

도시 개발과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조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근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빛이야말로 모든 물체의 창조자”라고 했다. 빛과 조명은 도시의 모든 구조물과 건축물에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는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조명은 좋은 건축물을 탄생시키는 첫 번째 디자인이자 아이디어”란 말을 자주 한다. 아부다비는 세계 최초의 탄소 배출량 제로 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도로나 공원, 공공 건축물 등의 조명을 효율이 높은 LED로 바꾸는 프로젝트도 그 일환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에너지 소비와 환경 공해가 반 이상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20년간 조명 시설 등을 운영하며 생기는 공공 구역의 탄소 배출을 현행 대비 65%, 금전적으로는 약 11억 디르함 Dirham(약 3200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일하는 방식이 영국과는 많이 다를 것 같다. 이곳에 와 일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지속 가능한 도시의 조명 전략을 수립하란 지시를 받았는데 그 전체 내용을 며칠 안에 발표하라는 거다. 스스로 행운을 빌 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 겨우겨우 일정에 맞춰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앞줄에 앉은 ‘높으신 분’들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라. 세례를 받는 기분이었고 그 후 더 큰 열정과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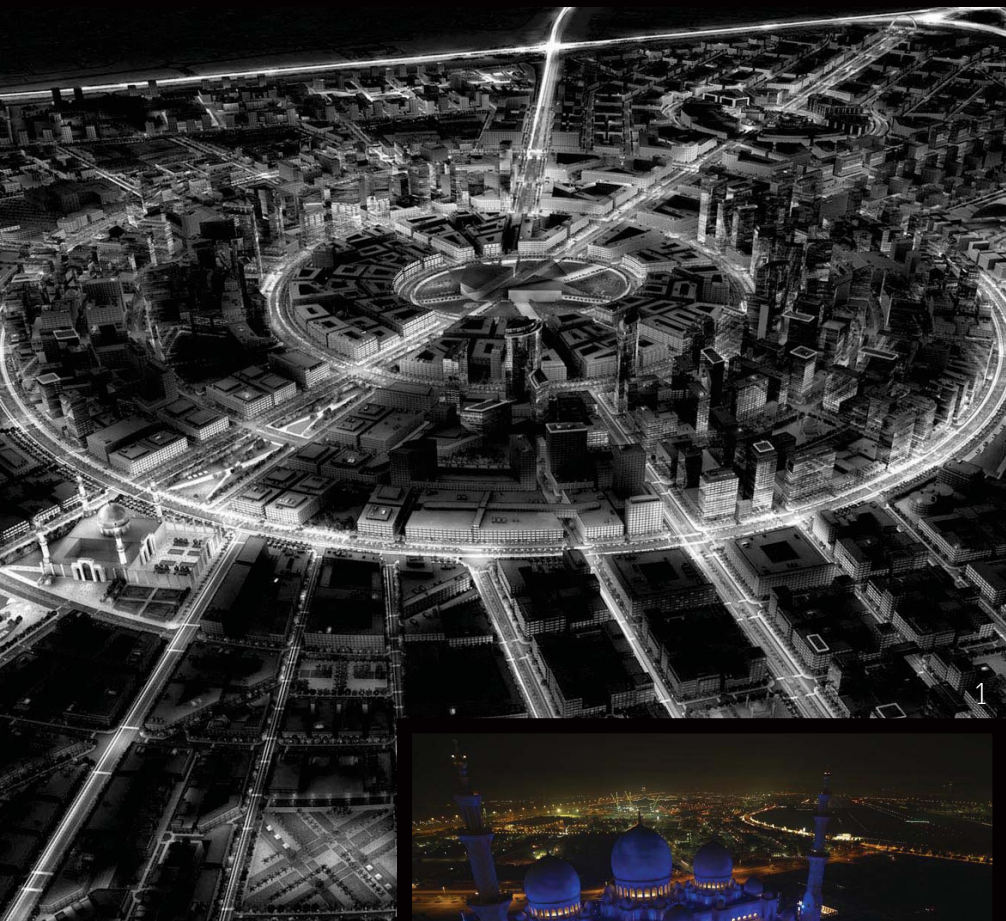
그간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대표작을 꼽는다면? 아부다비는 세계 정상급의 건축가, 조명 전문가와 협업하는데 최고의 결과를 보여준 것 중 하나가 아랍에미리트의 전 대통령인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이 건립한 그랜드 모스크(1000개의 기둥과 돔 천장, 황금과 크리스털로 만든 상들리에와 정교하게 그린 꽃 페인팅으로 유명한 곳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모스크다). 달의 주기와 연동한 조명 시스템을 장착해 그날그날 달의 모양에 따라 조명 색깔이 변하게 했다. 초승달일 때는 블루, 보름달일 때는 화이트... 구름을 뚫고 나온 달빛을 형상화한 각종 텍스처도 건물의 입면에 투사한다.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셰이크 자이드 브리지도 빼놓을 수 없다. 메탈 할리에드 램프와 DMX 컨트롤을 장착해 약 1670만 가지의 컬러를 만들 수 있다. 이곳 사람들은 밤에 활동하는 것을 더 좋아해 꽤

적하고 효율적인 조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캐피털 디스트릭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시티, 칼리파 시티 A&B, 300여 개의 공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금은 5성급 호텔로 변신한 런던의 철도역 세인트 판크라스 챔버스 St. Pancras Chambers의 레노베이션 작업도 유명하다. 이 건축물은 19세기 후반에 지은 매우 유명한 건축물로 조지 길버트 스코트 경이 설계했다. 철도역으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호텔로 레노베이션을 했는데 이때 조명을 맡았다. 목표는 명확했다. 조명을 최소한으로 사용해 건축물이 철도역으로 기능했던 옛날의 분위기를 최대한 이끌어낼 것! 빛의 파장이 적은 작은 조명 등으로 가스와 전기로 불을 켜던 당시 느낌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

영국 생활이 그림진 않나?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는 훌쩍 비행기를 타곤 한다. 비행기로 6~7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지구 반대편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파인트 잔에 따라 마시는 시원한 맥주, TV 프로그램, 런던의 특유의 빈정거림과 위트가 그림다. 하지만 이곳에서 빛과 조명으로 사람들의 삶을 더 낮게 만드는데 대한 보람과 자부심도 크다. 알다시피, 조명은 웰빙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

글 정성갑기자



1 아무다비는 세계 최고의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공공 건축물의 조명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2 판크라스 르네상스 호텔. 오래된 철도역이 전신으로 간접조명과 작은 조명 등을 활용, 가스와 전기로 불을 켜던 과거의 분위기가 나도록 했다. 3 달의 모양에 따라 조명 색깔이 바뀌는 그랜드 모스크의 야경. 4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셰이크 자이드 브리지. DMX 컨트롤 기기 등을 장착해 1670만 가지의 컬러를 구현할 수 있다.



LIVING CALENDAR

Fabric Inspiration

한겨울에는 포근함을, 봄에는 화사함을, 여름에는 청량함을, 가을에는 운치를 더해주는 패브릭.
열두 달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재, 컬러, 패턴의 패브릭을 매치해 뷰 파인더에 담았다.
4인의 사진가와 4팀의 스타일리스트가 사계절 동안 준비한 2013년의 패브릭 캘린더.

EDITOR LEE YOUNGCHAE · LEIGH YOUNGJI





January Blankets in the Snow

아무도 없는 한겨울의 설원에서 컬러풀한 블랭킷의 향연이 펼쳐졌다.
울이나면 혼방으로 이뤄진 블랭킷은 두께는 얇아도 가볍고 따뜻해 겨울 내내 찬바람을 막는 데 유용하다.
거실이나 서재에서는 무릎 담요로, 침실에서는 이불 위 스포레드로 활용할 수 있다.

돌돌 만 아이보리색 '캐시미어 플레이드'는 **우양알앤비Woo Yang RNB**. 화색 꽃문양 울 블랭킷은 **이노메싸Innometsa**. 체크무늬 블랭킷은 **도데카Dodeka**.
베이지색 체크무늬 쿠션은 **예원A.I.D Yewon A.I.D**. 빨간색 '캐비지 블랭킷'은 **주미네Jumine**. 네이비와 브라운 컬러의 패브릭은 **패브릭 길드Fabric Guild**.
노란색 테두리의 '블라 블라 미니 블랭킷'은 **에이치픽스Hpix**. 램스 울 100%의 멀티 스트라이프 블랭킷은 **이노메싸Innometsa**. 핑크색 '해피 힐리퀸 블랭킷'은 **루밍Rooming**.
톤다운된 피치 컬러 미니 블랭킷과 핑크색 테두리의 미니 블랭킷, 빨간색 스트라이프 미니 블랭킷 모두 **피그베Pigve**. 사다리 위 패키지는 **메릴리조이Merrilyjoy**.
'루미' 캐릭터 쿠션은 **에이치픽스Hpix**. 진보라색 아기 모포는 **피그베Pigve**. 아이보리색 보더 무릎 덮개는 **무인양품Muji**. 멀티 컬러 체크무늬 블랭킷은 **루밍Rooming**.
바닥에 놓인 연보라색 패턴 쿠션은 **디자인 파일럿Design Pilot**. 오른쪽 사다리 위 회색 쿠션은 **키티버니포니Kitty Bunny Pony**.
아이보리색 '쥬드' 블랭킷은 **데이비드 휘세네거David Fussenegger**. 램스 울 100%의 진회색 블랭킷은 **이노메싸Innometsa**.
진보라색 패브릭은 **패브릭 길드Fabric Guild**. 나뭇가지에 걸린 '키즈 악어 블랭킷'은 **데이비드 휘세네거David Fussenegger**. '폭스' 램스 울 쿠션은 **에이치픽스Hpix**.
외인색과 남색 블랭킷은 **우양알앤비Woo Yang RNB**. 오렌지색 패브릭은 **짐블랑J'aime Blanc**.

사진 이종근 | 스타일링 최지아(가라지)

February Check Bedroom

하운드 투스, 헤링본, 타탄, 아가일 등 겨울에 자주 등장하는 체크 패턴은 분위기를 포근하게 만든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무늬가 주를 이룬 하운드 투스 체크는 중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균형 잡힌 사선 문양의 헤링본 체크는 클래식한 공간 스타일링에 적합하다.

스코틀랜드 하일랜드 지방에서 유래한 타탄체크는 선의 굵기가 다른 서너 가지 색을 바둑판처럼 조합한 것으로

공간을 산뜻하게 만든다. 다이나몬드 패턴으로 불리는 아가일 체크는 경쾌한 분위기에 안정맞춤.

벽에 부착한 옷걸이와 콘솔은 **르쑤메Le Sommet**. 옷걸이에 건 '케이진' 베개 커버는 **소프라움Sofraum**. 생각하는 강아지 조각상은 **카레Kare**.

금속 프레임의 가죽 소재 암체어는 **르쑤메Le Sommet**. 의자 위 베이지색 헤링본 쿠션은 **예원A.I.D Yewon A.I.D**. 체크 문양의 파티션은 **프랑프랑Franc Franc**.

파티션에 걸친 보라색 헤링본 블랭킷은 **데이비드 휘세네거David Fussenegger**. 침대 위 연두색 쿠션은 **주미네Jumine**.

흰색 베개와 이불 커버 '클래식 화이트 스탠더드'는 **샐리가든Sally Garden**. 베이지색 바탕의 타탄체크 베개 커버와 이불 커버는 **헤이스팅스Hastings**.

보라색 바탕의 타탄체크 베개 커버와 이불 커버는 **소프라움Sofraum**. 회색의 체크 문양 '데드' 블랭킷은 **데이비드 휘세네거David Fussenegger**.

여행 트렁크 모양의 사이드 테이블과 수납함은 **르쑤메Le Sommet**. 테이블 램프는 **힐로 라이팅Hillo Lighting**. 포니 액자와 아스티에 드 빌라트 초,

가죽 트레이는 모두 **피숀Pishon**. 니트 짜임 모양의 초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연보라색 헤링본 쿠션은 **프랑프랑Franc Franc**.

갈색 감엽 체크 이불 커버는 **무안양품Muji**. 회색 헤링본 블랭킷은 **데이비드 휘세네거David Fussenegger**. 체스 세트는 **카레Kare**.

사진 이종근 | 스타일링 최지아(가라지)





March Spring Yellow

현색 다음으로 가장 밝은색인 노란색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 잘 어울리는 컬러.
자신감과 낙천적인 마음이 들게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도록 도와주기에
노란색 패브릭을 활용하면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헤이의 노란색 스틸 의자는 **이노메사Innometsa**. 의자 위 '마카로니' 쿠션은 **주미네Jumine**. 풀밭에 놓인 흰색 바탕에 노란색 꽃 문양의 쿠션, 연노란색 바탕에 진노란색 패턴을 가미한 쿠션, 노란색 바탕에 화려한 꽃 그림을 더한 쿠션, 네온 옐로 컬러 바탕에 물결무늬를 새긴 쿠션은 **프랑프랑Franc Franc**. 복잡한 도시 풍경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옐로 시티' 쿠션은 **에이치픽스Hpix**. 그 아래에 놓인 2개의 진노란색 '슬리피 아울' 쿠션은 **주미네Jumine**. 진노란색 옥스퍼드 원단 쿠션은 **짐블랑J'aime Blanc**. 노란색 바탕에 멀티 컬러의 지그재그 패턴이 그려진 쿠션은 **프랑프랑Franc Franc**. 카르텔의 노란색 '버블 클럽' 체어는 **라콜레뜨La Collecte**. 의자 위 일러스트 패턴의 '옐로 하우스' 쿠션은 **에이치픽스Hpix**. 해마 패턴이 그려진 폴리에스터 소재의 '시호스 아웃도어 필로'는 **짐블랑J'aime Blanc**. '미우라' 테이블은 **라콜레뜨La Collecte**. 테이블 위 패턴 에스프레소 컵들, '별키' 티포트와 찻잔 세트, 노란색 오브제는 모두 **이노메사Innometsa**. 레트로 보조 소들은 **인디테일Indetail**.

사진 전택수 | 스타일링 민송이, 민들레(7 도어스)



April Floral Garden

봄이 완연한 4월의 정원에 플라워 프린트로 꽃을 피웠다. 향기가 은은한 차 한잔을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기 좋은 티 테이블과 우아한 소파까지 매치해 유럽식 봄의 정원을 완성했다.

금속 프레임과 꽃무늬 시트의 안티크 의자는 모두 **이자벨Izabel**. 티 테이블과 티포트, 케이크 스탠드, 찻잔은 모두 **바바리아Bavaria**. 핑크정미에서 영감을 얻은 무어의 '오를락' 체어는 **웰즈Wellz**. 바닥에 놓인 도트와 빨간색 스트라이프의 다용도 쿠션은 **프랑프랑Franc Franc**.

꽃을 담은 화기는 **바바리아Bavaria**. 핑크색 면으로 커버링한 '프로잔느 핑크' 2인 소파는 **데일리 스위트Daily Sweet**.

소파 위 연두색 원형 방석은 **예원A.I.D Yewon A.I.D**. 소파와 바구니 속 플라워 패턴의 순면 쿠션은 모두 **프랑프랑Franc Franc**.

소파 옆에 세워둔 플라워 패턴의 패브릭은 **다브Dav**. 꽃과 쿠션을 담은 바구니는 **바바리아Bavaria**.

연두색 가죽의 '쉐비식 그린 푸프' 스툴은 **데일리 스위트Daily Sweet**. 핑크색 원형 방석은 **예원A.I.D Yewon A.I.D**.

우드 프레임의 플라워 패턴 안티크 의자는 **앤앤티크Ann Antique**.

사진 천택수 | 스타일링 민송이, 민들레 (7 도어스)





May Teepee Playground

가정의 달 5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 공간을 만들어보자. 귀여운 패턴을 새긴 패브릭으로 인디언 천막을 세우고 폭신한 쿠션과 블랭킷을 놓으면 신나게 놀 수 있는 재미난 공간이 완성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인형과 동물 패턴의 쿠션까지 준비한다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어린이 텐트는 **가가갤러리Gaga Gallery**. 텐트 안 100% 피마면 소재의 열기구 모빌, 코끼리와 인디언 그림 걸런드는 **루밍Rooming**. 오가닉 코튼 소재 동물 인형과 쿠션은 **짐블랑J'aime Blanc**. 사슴 조명 '디어 디어'는 **에버블루밍Everblooming**. 순면 소재의 블랭킷, 판다와 여우 그림의 쿠션과 캐릭터 인형은 모두 **짐블랑J'aime Blanc**. 피마면 소재 지구본, 로봇 장난감, 볼링 세트, '알렉산더 지라드 알파벳 블록' 세트는 모두 **루밍Rooming**. 파란색 가방은 **마리메코Marimekko**. 하늘색 원형 방석은 **예원A.I.D Yewon A.I.D**. 바더 구스 램프는 **에버블루밍Everblooming**. 기린 인형은 **한사토이Hansatoy**. 빨간색 베니티 페어 의자는 **밀라노 디자인 빌리지Milano Design Village**. 코끼리 그림의 쿠션은 **짐블랑J'aime Blanc**.

사진 전택수 | 스타일링 민송이, 민들레(7도어스)



June Kitchen Fabric

더위가 시작되는 6월, 열기로 가득한 주방에서 사용할
패브릭 제품은 소재 선택이 중요하다. 물기 흡수가 빠른 면,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르는 마는 여름에 사용하면 좋은 최고의 소재.
티타월이나 에이프론, 글러브를 선택할 때 참고할 것.

천장 속 밝은 그레이 톤 리넨 티타월은 **샬리가든 Sally Garden**.
빨간색과 회색, 짙은 회색 티타월은 **무니바이 Muniby**. 뉴트럴 컬러 볼과 싱크대 위의 컵,
소서 모두 **무겐 인터내셔널 Mugen**. 토스터는 **쿠진아트 Cuisinart**. 흰색 일러스트 티타월은
무니바이 Muniby. 벽에 걸린 키친 툴 모두 **헨켈 Henckel**. 스트라이프 오븐 장갑 **아키텍 Archit**.
벽에 건 차분한 회색 티타월은 **샬리가든 Sally Garden**. 스트라이프 패턴 티타월은 **리베코 Libeco**.
싱크대 위 그레이 톤 리넨 러너와 푸른색 체크무늬 티타월, 코스터 모두 **무니바이 Muniby**.

사진 박찬우 | 스타일링 이소영, 이승희(스타일링 하다)

July Cool Stripe

20세기, 프랑스의 휴양지를 찾은 유럽의 부르주아들이 유행시킨 스트라이프 패턴.
바다또는 선원이 연상되는 이미지라 무더운 여름, 공간에 청량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푸른 빛깔이 감도는 스트라이프는 경쾌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핑크나 오렌지 등의 스트라이프는 사랑스럽고 발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하늘색 스트라이프 쿠션은 **키티버니포니 Kitty Bunny Pony**, 앞뒤 컬러가 다른 네이비 & 베이지 컬러 쿠션은 **다브 Dav**,
검푸른빛이 감도는 원형 방석은 **모던하우스 Modern House**, 뉴트랄 톤 체크 패턴 방석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흰색 캔들 홀더는 **까사미아 Casamia**, 모래사장 위의 스트라이프 패턴 쿠션과 카키색 쿠션 모두 **키티버니포니 Kitty Bunny Pony**.
네이비 컬러 쿠션은 **다브 Dav**, 나무에 걸린 베이지 스트라이프 침구는 **리베코 Libeco**, 볼드한 네이비 스트라이프 패브릭과
어두운 네이비 컬러 원단 모두 **오리고 Origo**, 은은한 푸른색 스트라이프 침구는 **베딩 컬렉션 Bedding Collection**.

사진 박천우 | 스타일링 이소영, 이승희(스타일링 하다)





해먹과 미니 쿠션 모두 **핼리코Pimlico**.
 나무에 걸린 원목 랜턴은 **모던하우스Modern House**.
 뉴트럴 톤 리넨 소재 토트백은 **리베코Libeco**.
 모래 위의 네이비 컬러 비치 타월과 쿠션, 조개껍데기 모양으로
 포인트를 준 티라이트 홀더는 모두 **모던하우스Modern House**.
 책 모형 케이스는 **샬리가든Sally Garden**.
 나무 프레임 유리 케이스는 **코츠윌즈Cotswolds**.



사다리에 걸 스트라이프 비치 타월은
모던하우스Modern House.
 짙은 네이비 패브릭은 **오리고Origo**.
 모래 위의 흰색 원형 쿠션과 쿠션 위에 둔 모형 밧줄
 모두 **모던하우스Modern House**.
 흰색 리탄 체어는 **웨스트 코스트West Coast**.
 푸른색 꽃잎 패턴이 있는 쿠션은 **다브Dav**.
 굵은 스트라이프를 입힌 쿠션은 **오리고Origo**.
 선명한 네이비 스트라이프 쿠션은
키티버니포니Kitty Bunny Pony.



바구니 속 범랑 저그와 볼, 빈티지 액자는
 모두 **코츠윌즈Cotswolds**. 푸른색과 녹색이 어우러진
 미니 블랭킷과 의자 위의 쿠션, 의자 앞의 패브릭 모두 **오리고Origo**.
 리탄 암체어는 **컬러미스페이스Color Me Space**.
 이국적인 패턴의 볼은 **까사미아Casamia**.
 빈티지 원목 촛대는 **샬리가든Sally Garden**.
 화려하고 이국적인 컬러의
 비치 매트 는 **핼리코Pimlico**.



파리솔과 '사우스시' 맥 체어, 화려한 스트라이프의 바람막이,
 피크닉 가방 위에 둔 티 타월 모두 **핼리코Pimlico**.
 책과 피크닉 가방, 샴페인 글라스는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청량하고 싱콤한 독일 '다인하르트' 리슬링 와인
동원와인플러스Dongwon Wineplus.

August Botanical Mood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드는 8월, 나뭇잎과 가지, 줄기와 꽃, 열매를 담은
보태니컬 프린트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관상용 희귀 식물을 키우는 것이 부의 상징이던
18세기 유럽인이 유행시킨 프린트로, 내추럴하고 심플한 공간에 포인트로 활용하면 좋다.

2개의 분홍색 실크 쿠션 모두 **짐 톰슨 Jim Thompson**, 녹색 보태니컬 프린트 쿠션은 **키티버니폰나 Kitty Bunny Pony**.

이국적인 패턴을 입힌 핑크 쿠션, 식물과 꽃을 그린 베이지색 쿠션, 민트색 테두리의 노란색 쿠션, 터키색 쿠션, 바닥에 둔 핑크색 블랭킷, 바닥에 깔 때뒹뒹한 노란색 블랭킷,
첫잔과 티포트를 둔 원형 방석, 파라솔 아래 빨간색 패브릭 모두 **컬러미스페이스 Color Me Space**, 플라워 패턴의 흰색과 꽃무늬 티 케이스, 부채 모두 **8 컬러스 8 Colors**.
내추럴한 라탄 백은 **캐스키드스 Cath Kidston**, 플라워 패턴 파라솔은 **핼리코 Pimlico**, 블랭킷 위의 '와일드 스트로베리' 첫잔과
방석 위의 티포트와 첫잔, 접시 모두 **웨지우드 Wedgwood**, 푸른색 웨지 샌들과 피크닉 가방, 가방 속의 소품 모두 **캐스키드스 Cath Kidston**.

사진 박찬우 | 스타일링 이소영, 이승희(스타일링 하다)



September Silk Bedding

몸에 부드럽게 휘감기면서 서늘한 감촉을 전하는 실크 침구는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초가을에 어울리는 소재다. 실크는 누에고치에서 얻은 섬유를 뜻하는데, 그중에서도 중국 산둥과 인도 지방에서 재배해 조직이 섬세하고 광택이 우아한 야생 누에 실크를 최고로 친다. 가볍고 내구성이 좋으며 공간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한다.

플로어 램프는 **와츠Watts**. 검은색 저그는 **코발트숍Kobalt Shop**.

저그를 둔 사이드 테이블과 핀 율이 디자인한

아키텍트 메이드의 '터닝' 트레이 모두 **인노메싸Innometsa**.

위셔블 실크로 만든 리네이의 '비발디' 흰색 침구는 **덕시아나Duxiana**.

뱀 가죽 패턴의 '포어락' 베개는 **르베이지 메종Maison Lebeige**.

원통 모양의 블랙 & 화이트 베개는 **데네브 홈Deneb Home**.

회색 & 흰색 스트라이프 '보에로' 쿠션은 **아르마니 까사Armani Casa**.

가족 무늬의 '주키 리아시스' 침대 커버는 **우양알앤비WooYang RNB**.

'이카데미아' 흰색 침대 커버는 **아르마니 까사Armani Casa**.

격자무늬 '세르펜트' 침대 커버는 **르베이지 메종Maison Lebeige**.

점점이 찍힌 패턴이 독특한 '크로메' 침구는 **파라디스Paradies**.

'미니 유라곤' 테이블 램프와 액자는 **르베이지 메종Maison Lebeige**.

'블리츠' 양초와 '쑤자' 캔들 홀더 모두 **아르마니 까사Armani Casa**.

바닥에 떨어진 라운지웨어 슬립은 **르베이지 메종Maison Lebeige**.

실크 슬리퍼는 **예원 A.I.D Yewon A.I.D**.

사진 도재홍 | 스타일링 심필영(스타일 내음)





October · Damask Pattern

산과 숲의 색감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가을, 다마스크 패턴으로 짠 커튼을 제안한다.
같은 울로 짜더라도 한쪽 면은 광택이 있고 다른 쪽 면은 광택 없이
무늬가 도드라지는 다마스크 패턴 2가지 색을 쓰면 안팎의 문양이 전혀 달라 보이기도 한다.

길대 발 위로 보이는 민트색 커튼과 머스터드색 커튼 모두 예원 A.I.D Yewon A.I.D. 금색 벨벳 커튼은 데네브 홈 Deneb Home.
온색 타이백은 유앤어스 You & Us. 사다리 맨 위의 갈색 타이백은 라테라 Laterra. 사다리에 걸친 퍼플 & 와인 컬러 '드래곤' 패브릭,
올리브 & 머스터드 컬러 '센수알리티' 패브릭, 갈색 & 와인색 갈란테 패브릭 모두 유앤어스 You & Us. 옷걸이는 쿤 위드 어 뷰 Koon with a View.
옷걸이에 걸 금색과 갈색 '로투스' 패브릭은 예원 A.I.D Yewon A.I.D. 테이블 위 양초는 쿤 위드 어 뷰 Koon with a View.
오렌지 & 딥 레드 컬러 갈란테 패브릭은 유앤어스 You & Us. 민트 & 핑크색 '일루소' 타이백은 라테라 Laterra.
금색에 회색 패턴을 입힌 '볼로냐' 침대 커버는 우양양앤비 WooYang RNB. 네온 민트색 '트라비아타' 패브릭은 예원 A.I.D Yewon A.I.D.
홀러내리는 금으로 장식한 머그컵은 코발트숍 Kobalt Shop. 빈티지 단추는 라마라마 Ramarama.
하늘색 킬링 패브릭과 황갈색 패브릭 모두 예원 A.I.D Yewon A.I.D. 갈색 타이백은 라테라 Laterra. 금색과 짙은 보라색 패브릭은 데네브 홈 Deneb Home.
엔터크 유리병과 단추, 재단 세트 모두 라마라마 Ramarama. '버티컬' LED 조명은 디자인과일렛 Design Pilot.
하이메이온이 디자인한 '아온 버드' 오브제는 웰즈 Wellz. 왼쪽 스톨 위 회색 쿠션은 지오데코 Geodeco. '슈메이커 No.69' 의자는 이노메셋 Innometsa.
올리브색과 빨간색 '보탐 스탠다드 삼' 베개는 줄로 Julio. 흰색과 황동색 쿠션은 데네브 홈 Deneb Home.
대나무를 촘촘히 심어 완성한 '치키티' 스톨은 인다 디자인 Indah Design. 스톨 위에 둔 오렌지 컬러 쿠션은 다브 Dav.

사진 도재홍 | 스타일링 심필영(스타일 내음)

November Autumn Grey & Violet

추위로 몸이 움츠러들기 시작하는 11월, 차분한 회색과 화려하고 개성 강한 보라색 컬러 패브릭으로 공간을 꾸며볼 것. 색채 심리학에 따르면 회색은 모든 컬러 중 가장 자극이 적고 수수하며, 조화를 이루는 색이고, 보라색은 마음의 평정을 안겨주어 심신이 편안해진다고.

벽에 건 라일락 컬러 트웰 스카프는 **불가리Bulgari**. 빈티지 트렁크 **라마라마Ramarama**. 질은 회색 알파카 쿠션과 보라색 도트 쿠션 모두 **지오데코Geodeco**. 아이보리 컬러 쿠션과 퍼 쿠션 모두 **르베이지 메종Maison Lebeige**. 밝은 회색 타이백은 **유앤어스You & Us**. 트렁크를 올려둔 사이드 테이블은 **모벨랩Mobel Lab**. 테이블 양말은 **디자인 파일럿Design Pilot**. 보라색 '베라' 러그는 **로쇼룸Loshowroom**. 빈티지 서랍장은 **모벨랩Mobel Lab**. 타조털 먼지떨이는 **이노메싸Innometsa**. 동판화는 **라마라마Ramarama**. 동판화 아래 체크무늬 실크 스카프는 **에르메스Hermes**. 질은 바이올렛 스카프는 **로로피아나Loro Piana**. 원숭이 오브제는 **이노메싸Innometsa**. 회색과 흰색 리틀 리믹스 담요와 '플러그 브라운' 캔들 스틱 모두 **루밍Rooming**. 회색 노트는 모두 **북바인더스 디자인Bookbinders Design**. 화려한 문양의 '헤리티지 트라뷰트' 실크 스카프는 **불가리Bulgari**. '머스크' 캔들은 **르베이지 메종Maison Lebeige**. '산티아고 허클베리' 캔들은 **8 컬러스8 Colors**. 질은 보라색 블랭킷과 밝은 보라색 블랭킷 모두 **다브Dav**. 질은 회색 블랭킷은 **불가리Bulgari**. 밝은 회색 패브릭은 **소노 by 라테라Sogno by Laterra**. 짜임이 들어간 질은 회색 '하베이' 블랭킷은 **르베이지 메종Maison Lebeige**. 신발 오브제는 **라마라마Ramarama**. 오브제에 건 보라색 타이백은 **라테라Laterra**. 다이아몬드 모양의 모빌은 **루밍Rooming**. 흰색 '셀스킨' 쿠션은 **8 컬러스8 Colors**. 보라색 타이백은 **라테라Laterra**. '스틀라 막시 셰브론 베이비 C' 회색 솔과 '스틀라 오페라' 흰색 솔 모두 **로로피아나Loro Piana**. 울로 만든 흰색 침대 커버는 **아르마니 까사Armani Casa**. 커다란 사이즈의 '울 쓰로우 리누스' 솔은 **8 컬러스8 Colors**. 독특한 문양의 카키색 '에리티' 쿠션은 **다브Dav**. '헤비 래빗' 문진은 **디자인 파일럿Design Pilot**. 푸른색이 감도는 보라색 쿠션은 **이노메싸Innometsa**. 노란색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쿠션은 **라테라Laterra**.

사진 도재홍 | 스타일링 심필영(스타일 내음)



헤리지티® 벽난로는 **삼심벽난로**로, 난로 위 부엉이 모양의 저금통은 모두 **카레Kare**. 거자색 의자는 **리모드Remod**. 의자 위 회색 그란 그레이® 쿠션은 **에이치픽스Hpx**. 빨간색 '보벌' 쿠션은 **카레Kare**. 천연 양털 카펫은 **주미네Jumine**. 사이드 테이블은 **모벨랩Mobel Lab**. 테이블 위 '슈튜디오 오크'는 **짐블랑J'aim Blanc**. 부엉이 모양 저금통은 **카레Kare**. 캔들 홀더 '깊은 산속'은 **디자인 파일럿Design Pilot**. 패치 워크 스톨은 **프랑프랑Franc Frenneger**. 은결이는 **카레Kare**. 오목이요 걸림 빨간색과 오렌지색 양면 테크무늬 블랭킷은 **데이비드 후세네거David Fussenecker**. 모든 원삼의 화려한 패턴 '트리 클리퍼드' 스키프는 **에이치픽스Hpx**. 니트로 둘러싼 화병은 **디자인! 파일럿Design Pilot**.

양면 트레이티 테이블과 흰색 촛대는 **이노메사Innometsa**.
 니트 바스켓은 **짐블랑J' aime Blanc**. 사슴 오브제와 오너먼트,
 겨울 숲 그림의 커튼은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장작을 담은 겨자색 니트
 바스켓은 **짐블랑J' aime Blanc**. 양 그림 니트 쿠션은 **아플랏Aflat**.
 '그레이시 체크' 러그는 **한일카페트Hanil Capet**.
 모카신 룸 슈즈는 **무인양품Muji**. 카키색 이지 체어는 **모벨랩Mobel Lab**.
 빨간색 체크무늬 블랭킷은 **이노메사Innometsa**.
 아이보리색 '보벌' 쿠션은 **카레Kare**. 스크롤랜드 램프를 소재의
 스물 '어니스트 푸페 인 지그재그'는 **에이치픽스Hpix**.
 사슴 패턴의 회색 블랭킷은 **이노메사Innometsa**.

사진 이종근 | 스타일링 최지아(가리지)



CUISINE

New Year's Table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자리,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까지 모두 모이는
새해 첫 아침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음식이 빠질 수 없다. 한국,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인도, 중국의
여섯 셰프가 건강과 부, 달콤한 날들을 기원하는 각 나라의 새해 아침상을 소개한다.

EDITOR LEE YOUNGCHAE PHOTOGRAPHER KIM KYUNGSOO



건강과 부를 기원하는 떡국

우리나라는 예부터 정월이면 떡국을 먹었다. 떡국을 끓이는 방법은 지역이나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다. 고려 후기에는 꿩이나 닭으로 국물을 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쇠고기로 국물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골과 양지머리, 사태 등을 오랫동안 고면 깊은 맛이 난다. <동국세시기>에 보면 가래떡을 엽전처럼 썰어 떡국을 끓인다고 적혀 있다. 이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담은 것으로,

지금도 대부분 흰떡을 동전 두께로 어슷하게 썬다. 개성 지방에서는 가운데를 잘록하게 만든 조랭이떡국을 먹기도 하고, 충청도에서는 익반죽한 쌀가루를 도토리 크기로 둥글게 빚어서 떡국을 만들기도 한다.

떡국에 얹는 꾸미는 다진 고기, 오색의 채 고명, 작은 크기로 지진 고기 산적 등이 대표적이다.

상에 놓기 바로 전에 펄펄 끓는 국에 썰어놓은 떡을 넣고 떡이 떠오를 때까지 끓인 다음,

떡이 떠오르면 함이나 대접에 담고 꾸미를 얹어서 낸다.

『품서술』 오녀 셰프 노영희



열두 달의 행운을 비는 포도

프랑스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 날 가족이나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파티를 연다.

보통 프랑스에서는 아침을 가볍게 먹지만 전날 늦게까지 파티를 즐긴 1월 1일에는 가족과 함께 느지막이 일어나 풍성한 브런치를 즐기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는 아침에 소금기 있는 음식보다

달콤한 메뉴를 주로 먹는다. 부드러운 크루아상, 팬에 버터를 두르고 구운 브리오슈와 크림, 오렌지 주스, 핫초콜릿과 함께 특별한 의미를 지닌 열두 알의 포도를 곁들이기도 한다.

포도 열두 알을 먹는 것은 그 해 1년 열두 달 동안 행운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테이블 34' 베르트랑 콤페

루브시엔느 라인의 클래식 패턴 티포트와 에스프레소 잔, 직사각형 접시, 브리오슈와 크림을 담은 둥근 접시, 찻잔은 모두 **하빌랜드Haviland**.

빵을 담은 와이어 바스켓은 **선혁 구디Sunhyuk Goody**. 빵 바구니 안의 레이스 냅킨, 흰색 냅킨, 커틀러리, 테이블클로스는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베라 왕의 레이스 스트라이프 벽지는 **LG 하우스시스 지인LG Hausys Z'in**.



新年 謹賀



행운과 풍작을 바라는 오세치

일본의 설 음식은 '오세치' 요리다. 설은 오곡五穀을 지키는 신을 맞이하는 의미가 있어 이때는 불을 사용해 조리하지 않는다. 대신 설 전에 미리 쪄낸 새우와 검은콩, 멸치, 연근, 밤, 다시마, 청어알 조림 등의 요리를 만들어 3~5단 찬합에 보기 좋게 담아 설 연휴 동안 먹는다. 멸치는 풍작, 다시마는 행운, 연근은 지혜, 새우는 장수, 콩은 성실과 노력, 밤은 재운, 청어알은 자손 번성을 의미한다. 여기에 채소와 생선 등으로 우린 국물에 떡을 넣고 끓인 일본식 떡국 오조니를 곁들이는데, 일본에서는 오조니를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고 여긴다.

_그랜드 하얏트 서울 '아카사기' 게이이치 와타나베

양병용 작가의 고풍스러운 나무 트레이는 반김Ban Gim. 나무젓가락과 젓가락 집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이즈미야의 흰색 간장 병은 TWL. 해산물을 담은 아이 원형 접시는 미요Meyo.

파티의 여운을 지우는 샐러드와 수프

선달 그믐날 자정 제야음악회로 한 해를 마감하고,

신년 음악회로 한 해를 여는 오스트리아.

새해 첫날 아침 메뉴로는 진날 파티의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청어 샐러드가 빠지지 않는다. 사과, 오이, 양파, 딜을 곁들인

청어 샐러드에 삶은 감자와 달걀, 화이트 와인을 함께 즐기는 것.

새해에는 항상 지갑에 돈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소시지를 넣은 스파이시 렌틸 수프를 바삭하게

구운 빵에 곁들여 먹는다.

_그랜드 하얏트 서울 충주방장 스테판 피트

벽에 세운 앤티크 문은 **윤현상재Younhyun**. 에스텔 시리즈의 샐러드 접시,

수프 볼과 소서, 빵 접시와 디저트 접시는 모두 **로젠탈Rosenthal**.





달콤한 한 해를 기원하는 디저트

인도에서는 새해를 맞아 가족이나 친구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음식을 뷔페처럼 준비하고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며 새해를 축복한다. 파티 음식으로는 쌀을 끓인 다음 우유를 넣어 만든 달콤한 디저트 키르kheer가 빠질 수 없다. 잘게 부순 밀을 넣거나 카르다뭉, 건포도, 사프란, 캐슈너트, 피스타치오, 아몬드 등을 넣어 먹기도 한다.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하지만 중독성 있는 요리로, 한 해가 달콤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_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아시안 라이브' 하짓 쿠마

인도의 전통 세밀화가 그려진 탁자는 **실크로드Silkroad**, 인도 브라스 재떨이와 인도 카치 지방의 자수가 새겨진 코스타는 **모쉬룸숲Moshroomsoup**, 재떨이 아래 나무로 만든 컵 받침, 바닥에 놓인 검은색 나무 함은 **선혁 구디Sunhyuk Goody**, 인도 라자스탄 지방의 전통 패턴을 프린트한 패브릭은 **포20Four20**, 키르를 담은 붉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직사각형의 인센스 보관함은 **선혁 구디Sunhyuk Goody**.



복을 비는 물만두

아침 식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인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 아침, 온 가족이 모여 물만두인 수이자오쯔를 만들면서 새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눈다.

수이자오쯔는 지방에 따라 조리법이 각기 다른데 돼지고기와 배추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떡국과 마찬가지로 수이자오쯔를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먹는다는 의미가 있으며, 만두를 빚을 때 소에 동전을 넣어 새해에는 부자가 되라는

기원의 뜻을 담는다. 주로 기본 간장에 가늘게 채 썬 생강과 고추 기름을 넣은 간장 소스를 만들어 찍어 먹는다. 싱거운 흰죽에 피단, 밀가루 반죽을 튀긴 유우티아오,

간식고기, 전복, 돼지고기 등 본인의 기호에 맞게 선택한 재료를 넣고

2차 조리를 한 다음 고수나 과를 잘게 썰어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콘지가 대표적인 아침 메뉴라면, 겨울철 별미로는 유우티아오를

뜨거운 콩국에 찍어 먹거나 넣어 먹는 것이 일품이다.

서울신라호텔 '더 파크뷰' 황지웅

중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문과 붉은색 테이블, 녹색 의자는 모두 **대부 앤틱Daeboo Antique**.

포슬린 패턴의 차 보관함은 **오리엔탈 무드Oriental Mood**, 중국 차통은 **바이 중국By China**, 수이자오쯔를 담은 먹색 접시와

간장을 담은 종지, 쌓아놓은 먹색 접시, 콩죽과 유우티아오, 콘지를 담은 붉은색 볼은 모두 **광주요KwangJuYo**.



‘폼 서울’ 노영희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덕에 명절이 끝나도 친척들의 방문이 끝나지 않았던 어린 시절. 하루 종일 가래떡을 썰고, 쇠고기 양지머리로 진하게 육수를 내고, 쪽파로 장식한 미니 산적을 곁들인 어머니의 떡국은 지금도 그 맛이 잊히지 않는다. 신문에 써둔 햇배추로 담근 나박김치, 고소한 녹두전까지 함께 차린 설날 상차림은 벅찼으로 닦아놓은 냇그릇이 있어 더욱 특별했다.



‘테이블 34’ 베르트랑 콤베 12월 31일 밤 상제리제 거리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해가 바뀌면 주변 사람들과 서로 볼에 키스를 하는 전통이 있다. 스페인 국경 인접 지역에서는 새해 전날 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뒤, 포도밭으로 이동해 한밤중에 포도를 수확한다. 이 포도로 만든 와인은 달콤하고 강한 맛이 난다. 사람들은 이 와인을 특별히 보관하기도 한다.



‘이카사카’ 게이이치 와타나베 요리를 접시에 예쁘게 담아내는 모리쓰케에 관심이 많았고, 몸소 만든 요리를 직접 만든 그릇에 담아내고 싶어 도예를 배우기도 했다. 새해에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오세치를 만들어 선물하곤 했다. ‘謹賀新年’ 등의 문구를 한지에 붓글씨로 쓴 다음 찬합 위에 장식하면 격조 있는 선물로 그만이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총주방장 스테판 뢰트

오스트리아에서는 돼지가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사람들은 새해에 더 큰 행운을 염원하며 돼지 모양의 달콤한 마지팬과 돼지 머릿고기로 만든 테린, 돼지 족발 등 다채로운 돼지고기 요리를 먹으며 새해의 의미를 되새긴다.



‘아시안 라이브’ 하짓 쿠마 인도에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해 종교마다 각자에 맞는 책력을 적용해 새해를 축하한다. 인도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힌두교는 5일 동안 ‘등불의 행렬’을 뜻하는 디왈리Diwali 혹은 디파발리Deepavali라는 이름의 축제를 연다. 사람들은 신선한 꽃으로 집을 장식하고, 새 옷을 사고 선물을 사서 친구나 가족과 선물을 교환하고 달콤한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는다.



‘더 파크뷰’ 황지용 중국의 새해 아침 풍경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수이자오쯔를 먹는 것으로 시작한다. 평상시에는 ‘터우장’이라고 부르는 콩국과 유우티아오를 주로 먹는다. 밀가루를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유우티아오는 시장, 골목길 등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국민 음식으로, 입맛에 따라 설탕을 뿌려 먹기도 한다.

스타일링 이소영, 이승희(스타일링 하디) | 어시스턴트 유지혜 | 소품 협조 광주요(3442-2054), 대부 앤텍(797-6787), 로젠탈(3449-5159), 맥스 다다미(2636-3052), 미요(070-7553-8183), 모쉬룸술(070-8688-9833), 바이 중국(070-4366-1295), 반김(730-6958), 선혁 구디(3443-3708), 실크로드(031-923-2748), 오리엔탈 무드(536-5280), 윤현상재(540-0145), 하빌랜드(3449-5465), 포 20(6403-0700), LG 허우시스 지인(080-005-4000), TWL(070-7820-7526) | 참고 도서 <떡국을 먹으면 부자 된다>(청보리)